연구보고서 2020-39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변수정
정희선·최선영·조성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0-39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61-0 93330

발|간|사

한국의 가족은 변화하였다. 변화의 가장 큰 결과는 가족의 다양성일 것이다. 가족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삶이 다양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족주의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도 가족 안에 부모가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 가족유형 또한 가족 내에서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이 뚜렷한 가족이 전형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은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에서 변했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내에 남성 양육자와 여성 양육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가족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양육자 수의 차이는 가족유형을 구분짓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남성 양육자와 여성 양육자가 모두 있는 가족의 경우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진출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가족이 매우 많아졌다.

이렇게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이, 한국은 사회 발전과 함께 복지 발전, 그리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도 경험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도 발전하였지만, 한국의 가족 정책은 여전히 정상가족을 전제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족이 다양해지면서 모든 유형을 명명하며 구분하고 정책마저 가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족유형 자체가 차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 처한 여러 조건에 따라 아동 성장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은 어떠한 가족에서 태어나든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 가족의 다양화에 따라 아동 양육 특성

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양육자 수, 양육자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연령 등 다양한 조건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동 중에서도 특히 양육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인 영유아 아동에 집중해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알아보고 관련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양육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촘촘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했다.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고, 본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과 조성호 부연구위원, 그리고 정희선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김유경 명예연구위원, 대구대학교의 이진숙 교수와 연구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꼼꼼히 평가해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기관이나 가족 내에서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모든 분께 응원을 보내며,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 17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 25

제1절 가족 변화와 다양성 ····· 27

제2절 가족다양성과 아동 ····· 37

제3절 가족다양성과 영유아 양육 관련 기존 연구 검토 ····· 43

제4절 영유아 양육 관련 지원 정책 ····· 55

제3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환경 및 특성 ····· 67

제1절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현황 ····· 69

제2절 돌봄 방식 관련 특성 ····· 73

제3절 양육 비용 관련 특성 ····· 118

제4절 양육 시간 관련 특성 ····· 159

제5절 소결 ····· 182

제4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관련 욕구 ····· 195

제1절 돌봄 방식 관련 욕구 ····· 197

제2절 양육 비용 관련 욕구 ····· 221

제3절 양육 시간 관련 욕구 ····· 227

제4절 소결 ····· 239

제5장 가족다양성 관련 전문가 의견 ····· 243

제1절 조사 개요 및 가족다양성 고려 ····· 245

제2절 가족유형과 양육 지원 정책 ····· 249

제3절 가족 정책에서의 가족다양성 ····· 26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79

제1절 요약 및 결론 ····· 281

제2절 정책 제언 ····· 299

참고문헌 ····· 319

부록 ····· 329

표 목차

〈표 2-1〉 한부모가구 비율(2005~2018) ····· 31
〈표 2-2〉 한부모가구 구성(2015~2018) ····· 32
〈표 2-3〉 미혼모, 미혼부 연령별 분포(2015~2018) ····· 33
〈표 2-4〉 미혼모, 미혼부 자녀의 연령별 분포(2015~2018) ····· 34
〈표 2-5〉 맞벌이 가구와 비율(2011~2018) ····· 37
〈표 2-6〉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 (2020년 기준) ····· 56
〈표 2-7〉 유아학비 지원 대상 기준 연령 및 교육과정 지원 금액(2020년 기준) ····· 57
〈표 2-8〉 방과후 과정 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금액(2020년 기준) ····· 57
〈표 2-9〉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020년 기준) ····· 58
〈표 2-10〉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020년 기준) ····· 63
〈표 2-1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020년 기준) ····· 64
〈표 3-1〉 연령별 아동 수(2019년 만 0~만 6세) ····· 70
〈표 3-2〉 어린이집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70
〈표 3-3〉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 아동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 71
〈표 3-4〉 유치원 개소 수 및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2019년 4월 1일 기준) ····· 72
〈표 3-5〉 유치원 연령별 이용 아동 현황(2018년 4월 1일 기준) ····· 72
〈표 3-6〉 양육자 수에 따른 영유아 양육 가족의 주된 돌봄 ····· 75
〈표 3-7〉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 79
〈표 3-8〉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 82
〈표 3-9〉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 84
〈표 3-10〉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소득수준 기준 ····· 86
〈표 3-11〉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 88
〈표 3-12〉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경제활동 기준 ····· 90
〈표 3-13〉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 91
〈표 3-14〉 양육자 2인 가족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와 주된 아동 돌봄 방식 ····· 92
〈표 3-15〉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정도 ····· 93
〈표 3-16〉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 94

〈표 3-17〉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경제활동 기준 ····· 95
〈표 3-18〉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아동 연령 기준 ····· 96
〈표 3-19〉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돌봄 방식 기준 ····· 97
〈표 3-20〉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100
〈표 3-21〉 양육자 1인 가족과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 101
〈표 3-22〉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1순위 ····· 102
〈표 3-23〉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방식(1순위) ····· 104
〈표 3-24〉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방식(1순위): 아동 연령 기준 ····· 106
〈표 3-2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 107
〈표 3-2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 109
〈표 3-27〉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 110
〈표 3-28〉 양육자 1인 가족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른 주된 아동 돌봄 방식 ····· 110
〈표 3-2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정도 ····· 111
〈표 3-3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 112
〈표 3-3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아동 연령 기준 ····· 114
〈표 3-3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돌봄 방식 기준 ····· 115
〈표 3-33〉 양육자 1인 가족(미혼모)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 117
〈표 3-34〉 양육자 1인 가족이 아동을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 ····· 118
〈표 3-35〉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 120
〈표 3-36〉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 121
〈표 3-37〉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 121
〈표 3-38〉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중 아이 조부모 돌봄 비용 ····· 122
〈표 3-39〉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용돈 등) 비용 ····· 123
〈표 3-40〉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 123
〈표 3-41〉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 125

〈표 3-42〉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아동 연령 기준 ····· 127
〈표 3-4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소득수준 기준 ····· 128
〈표 3-4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 130
〈표 3-4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32
〈표 3-4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기준 ····· 133
〈표 3-4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 134
〈표 3-4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36
〈표 3-49〉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소득수준 기준 ····· 137
〈표 3-50〉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 138
〈표 3-51〉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40
〈표 3-52〉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소득수준 기준 ····· 141
〈표 3-5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 142
〈표 3-5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44
〈표 3-5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소득수준 기준 ····· 145
〈표 3-5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 146
〈표 3-5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48
〈표 3-5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소득수준 기준 ··· 149
〈표 3-5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 151
〈표 3-6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아동 연령 기준 ····· 152
〈표 3-6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 153

〈표 3-6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54
〈표 3-6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 155
〈표 3-6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56
〈표 3-6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 157
〈표 3-6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아동 연령 기준 ····· 159
〈표 3-67〉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 161
〈표 3-68〉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1 ····· 163
〈표 3-69〉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2 ····· 164
〈표 3-70〉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3 ····· 165
〈표 3-71〉 아동이 1명인 양육자 2인 가족 평일 양육 시간: 아동 연령 기준 ····· 166
〈표 3-72〉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 168
〈표 3-73〉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1 ····· 169
〈표 3-74〉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2 ····· 171
〈표 3-75〉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3 ····· 172
〈표 3-7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 여부 ····· 173
〈표 3-77〉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 여부: 아동 연령 기준 ····· 174
〈표 3-78〉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경험 ····· 175
〈표 3-79〉 양육자 1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 176
〈표 3-8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 178
〈표 3-8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 179
〈표 3-82〉 양육자 1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 180
〈표 3-8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 181
〈표 3-8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 182
〈표 4-1〉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과 경제활동 하는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어려움 ····· 199

〈표 4-2〉 아이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 200
〈표 4-3〉 양육자 수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중요도 ····· 201
〈표 4-4〉 양육자 2인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중요도 ····· 202
〈표 4-5〉 양육자 2인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03
〈표 4-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도움 정도 ····· 204
〈표 4-7〉 양육자 수에 따른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 204
〈표 4-8〉 양육자 2인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 205
〈표 4-9〉 양육자 2인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06
〈표 4-1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도움 정도 ····· 207
〈표 4-11〉 양육자 수에 따른 국공립 · 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 207
〈표 4-12〉 양육자 2인 가족의 국공립 · 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 208
〈표 4-13〉 양육자 2인 가족의 국공립 · 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09
〈표 4-14〉 양육자 1인 가족의 아이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유무 ·· 210
〈표 4-15〉 양육자 1인 가족의 아이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 211
〈표 4-16〉 양육자 수에 따른 희망하는 돌봄 방식 ····· 212
〈표 4-17〉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 214
〈표 4-18〉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 217
〈표 4-19〉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 218
〈표 4-2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 220
〈표 4-2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 221
〈표 4-22〉 양육자 수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 222
〈표 4-2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 223
〈표 4-2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25
〈표 4-2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도움 정도 ····· 226

〈표 4-2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아동수당 지원 도움 정도 ····· 227
〈표 4-27〉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 여성의 직장-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 229
〈표 4-28〉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 ····· 230
〈표 4-2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아동 양육 어려움 ····· 231
〈표 4-30〉 가장 중요한 양육 지원 정책 1순위 ····· 233
〈표 4-31〉 양육자 수에 따른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 234
〈표 4-32〉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 235
〈표 4-33〉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36
〈표 4-34〉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 237
〈표 4-35〉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 238
〈표 4-36〉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 239
〈표 5-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 247
〈표 5-2〉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반영도 ····· 248
〈표 5-3〉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고려 필요도 ····· 248
〈표 5-4〉 가족유형별 영유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중요도 ····· 250
〈표 5-5〉 가족 조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 251
〈표 5-6〉 영유아 양육 가족유형별 현금 지원의 중요도 ····· 258
〈표 5-7〉 가족 조건에 따른 현금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 258
〈표 5-8〉 영유아 양육 가족유형별 시간 지원의 중요도 ····· 263
〈표 5-9〉 가족 조건에 따른 시간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 264
〈표 6-1〉 조사별 아동 연령에 따른 주된 돌봄 방식 ····· 283
〈표 6-2〉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경제활동 ····· 284
〈표 6-3〉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에 대한 희망-실제 돌봄 방식: 경제활동-아동 연령 ····· 287
〈표 6-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실제 돌봄 방식: 경제활동-아동 연령 ····· 290

그림 목차

[그림 1-1] 가족 구분 및 주요 조건과 분석 영역 ····· 18
[그림 2-1]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19) ····· 28
[그림 2-2]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1970~2019) ····· 29
[그림 2-3]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의 변화(1975~2018) ····· 30
[그림 2-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008~2019) ····· 35
[그림 2-5]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08~2019) ····· 36
[그림 3-1]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1순위): 경제활동 기준 ····· 105
[그림 3-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 108
[그림 3-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경제활동 기준 ····· 113
[그림 3-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경제활동 기준 ····· 126
[그림 3-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31
[그림 3-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35
[그림 3-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경제활동-아동 연령 ····· 139
[그림 3-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42
[그림 3-9]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47
[그림 3-1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경제활동 기준 ····· 151
[그림 3-1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53
[그림 3-1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55
[그림 3-1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경제활동 기준 ····· 158

Abstract

Child-Rearing in Diverse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Soo-Jung Byoun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needs of families including infants and toddlers and to propose a development plan for the child rearing family policy.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main caregiver, cost of children, and parenting time, and identifies needs for the families. The biggest condition for classifying family types is the number of caregivers. A family of one caregiver and a family of two caregivers were examined separately, and in th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giver's economic activity, child age, and income level were us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families raising preschoolers. However, there are very large differences in parent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regivers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caregivers.

Based on the results, the necessity to expand care institutions that can be trusted and entrusted to infancy in the care-related area and a plan to expand autonomy in choosing a care

Co-Researchers: Hee-Sun Jung · Sun-Young Choi · Sung-Ho Cho

method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re proposed. Regarding the cost of childcare, it was found that the gap in the cost of childcare for infants was large, and accordingly, it was emphasized that efforts to bridge the gap in childcare spending were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support systems by reviewing the current economic support method of single caregivers and the level of supports reflects the reality. Regarding child-rearing time, we discuss compensation for time support for a single caregiver family and also introduce twice the period of parental leave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Finland, which was applied from 2021.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d the prevention of gaps and expansion of flexibility so that parental leave would not become a system for certain classes. Discussions were made regarding the larg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use of time for children. It concludes by proposing an integrated parenting support policy that carefully reflects the diversity of families raising children in Korea.

*Key words: families, diversity, child-rearing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아동 양육 가족이 가진 다양한 조건을 활용해 영유아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및 욕구를 파악하고 가족다양성 시대의 아동 양육 가족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각 영역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가족유형 구분에서 가장 큰 조건은 양육자 수이다. 그래서 양육자 1인 가족과 양육자 2인 가족을 구분해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아동 연령, 소득수준 등의 조건을 활용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돌봄 방식 측면

돌봄 방식은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2세 이상부터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 4세 이상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도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데,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아동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 더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도 나타났다. 즉, 돌봄 방식에 대해서는 2인 양육자와 1인 양육자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택한 돌봄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양육자가 2인(모/부)인 가족은 가족/개인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 2

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제보다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실제보다 희망하는 비율이 낮아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않는지의 조건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0~1세 아동에 대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은 실제로 현재 아동을 가족 및 개인이 돌보는 경우가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는데,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그러나 2~3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약간씩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특히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3세 아동은 가족 및 개인 방식으로 돌보고 싶은 경우가 있으나 2인 경제활동 가족은 그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아동 연령이 0~1세인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에서 더 많이 희망하였다. 2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와 아동 연령이 2~3세로 된 가족의 경우만 실제 가족 및 개인 돌봄의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는 기관 돌봄을 이용하고 싶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3세 아동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 및 개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아동이 4세 이상이 되면 취학 전임에도 사교육 및 과외 활동 등으로 여러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용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아동 성장 초기부터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한다.

희망과 실제 돌봄 방식을 비교해보면, 양육자 수와 관계없이 가장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국공립시설에서의 돌봄에 대한 욕구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4세 아동 경우에만 가장 근접하게 희망과 실제가 가까워져 있고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여전히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희망과 괴리가 더욱 벌어져 의사 표현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2~3세 아동에 대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양육 비용 측면

양육 비용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의 소득수준-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은 2인 양육자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족 중

양육자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가 아동에게 특별활동이나 기타 교육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는다거나 관련 정보를 통해 기대에 맞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무상보육에도 가족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보육 및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 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0~1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 이상 아동 그룹은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위한 비용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가족 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의 차이로 인해 아동 1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다. 어린 아동기부터 기회의 차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뚜렷했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아동 1명에 대해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와 4세 이상 아동 연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양육 비용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3세 이상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 돌봄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0~2세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아동 돌봄에 비용을 약 2배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1인 양육자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동이 어릴 때는 돌봄 비용이 많이 들고,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육 비용과 관련된 정책 욕구 중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양육자 2인 가족은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아동 연령이 0~1세일 때 이 지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움을 더 많이 느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도움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양육에 돌봄 비용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드는 가족은 현금 지원에 대한 도움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 양육 시간 측면

한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자 2인 가족 중 아동이 1명인 가족을 대상으로 평일 양육 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감소하며, 아동 연령 3세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이 2인 경제활동 가족과 비교해 약 2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세 이상 아동에게는 평균 약 1시간 이상 더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 육아시간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보다 길고 모두 2시간 미만 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양육자가 돌봐주는 시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남성 양육자가 양육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 차이를 보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남성 양육자의 시간 차이로 인해 아동 기준에서는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양육자와의 시간에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양육 시간이 매우 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보다 짧기는 하지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자 평일 양육 시간과 비교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의 양육 시간이 더 길다. 주말에도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의 양육 시간이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 평균보다 길었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주말에 남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양육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평일과 주말 사이 양육 시간 차이가 미혼모 1인 양육자보다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 여성의 양육 시간 남성보다 매우 길며, 양육자가 1인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시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 1인 가족은 주말이 되어도 다른 양육자로부터의 시간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일의 시간 부족에 대한 보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양육에 따른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간과 관련된 어려움에서 양육자 1인 가족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줄어든 만큼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더 증가한다. 즉, 양육자 1인 가족의 어려움은 줄지 않고 다른 어려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기 시간과 관련된 정책인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에서도 상용직에서의 집중적인 사용이 발견되어 특정 종사상 지위에 한정된 보편화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 육아휴직 중요도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용 경험률이 낮은 특징과 함께 생각해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의 여러 조건들을 활용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양육자 1인/2인 가족과 경제활동 1인/2인 가족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가족의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양육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양육자 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양육 특성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관련 정책에서는 영아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과 영유아 돌봄 방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영유아의 양육 비용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육비 지출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1인 양육자의 경제적 지원 방식이나 그 지원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양육자 1인 가족의 시간 지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면서 핀란드에서 2021년부터 적용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2배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이 일부 특정 계층만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격차 방지와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여전히 아동을 위한 시간 사용에서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여 개선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더욱 변화할 한국의 가족 정책에서 아동 양육 가족의 다양성을 세심하게 반영한 통합적인 양육 지원 정책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한다.

*주요 용어: 가족유형, 영유아 양육, 가족다양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가족(家族), 우리 사회에서 이 단어는 혼인한 부부와 그들의 생물학적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와 가정에서 돌봄과 살림을 책임지는 어머니가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이행하는 남성 단일부양자 모델의 핵가족이 전형적이면서 이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 변화에 반응하고 또 적응하는 체계이기 때문에(김성천, 2001) 산업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참여,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 구조, 가족 내 역할 변동은 물론 동거, 이혼, 재혼, 미·비혼 인구의 증가 등 결혼과 가족 형성 및 해체까지 변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가족은 구조적 측면, 가족원의 특성 측면, 생활양식 측면, 탈근대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화되었다(김승권 외, 2004).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의 특성이 더욱 세분화되거나 여러 측면이 혼재된 가족이 출현해 기존의 틀로 가족을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족유형의 다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탈 근대화 과정 중 하나로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면, 남성 가장 중심의 핵가족을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성을 남성에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상정한다(송다영, 2005). 이는 결혼을 무조건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남성생계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이 경제력을 갖는 등 결혼 상태나 가족생활

에서 여성의 선택과 위치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이 주 양육자의 역할에 충실하던 단일 형태의 가족이 아닌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족유형들로 변모했다. 이러한 가족의 다양화는 아동이 성장하는 가족 환경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의미로 여성이나 남성, 성인 삶의 변화뿐 아니라 아동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아동 양육에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의 심각성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할 정도로 아동 양육이 쉽지 않은 사회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터울 조절(29.1%)을 제외하고 보면,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때문에(15.9%)가 가장 높은 이유이고,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10.5%),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어서(10.7%) 등의 이유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소영 외, 2018)이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아동 양육이 비용이나 시간, 인프라 등의 여유가 필요하다 보니 가족이 가진 조건이나 유형 자체가 계층이 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이 어떠한 가족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아동의 성장 기회나 발달 격차가 발생한다면, 사회에서라도 아동의 성장에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등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상황과 유형에 의해 일어나는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동 양육 관련 지원 및 정책에서 가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관리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영유아기는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는 성인과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이 있는 가족도 생활이 쉽지 않은 시기이다. 만일 2세대 가족 내 성인 양육자 두 명이 돌봄과 생계를 각각 책임진다면 두 명 모두 일을 하는 가족의 경우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두 명 모두 일을 하면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

다. 또는 성인 양육자가 한 명인 경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돌봄이 해결될지 모르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일을 하면 돌봄의 영역은 다른 가족의 도움이나 가족 밖 서비스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게 된다. 물론, 같은 유형의 가족이라도 가족마다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시간적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가족유형이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돌봄과 생계 영역에서 역할을 다하는 가족 구성원의 공백이 있는 형태의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아동 양육기에 고려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모습에 대해 한국은 2015년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가족다양성 인정이나 개별 가족 정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된 측면은 있으나, 가족다양성 존중 및 포용보다는 위기가족이나 취약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제한적인 변화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아동 양육 정책이 발달한 측면이 있는데, 이때 정책이 양육자가 2인인 가족, 그중에서도 1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다른 1인은 돌봄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핵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 외의 다양한 조건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우선권 제공이나 개별 가족 정책 내에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양육 정책 내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나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인정하고 고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실제 생활의 변화가 현재 정책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인식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변

화가 가족 정책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을 전통적 가족 형태로 제한하면서 가족제도의 가치를 고수하는 정책 방향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양육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유형을 중심에 두고 양육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은 부족했다. 이제는 가족의 다양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가족 조건마다 양육 특성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유형이 차별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불평등 심화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을 명명하는 형식으로 유형을 나누어 비교하는 것보다, 한국 사회의 가족다양성을 조건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한부모와 양부모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 되긴 하지만, 양육자 1인과 양육자 2인 가족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모, 보호자, 양육자 중 아동 양육에 집중한 연구이기 때문에 양육자 수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 아동의 연령, 경제상황 등으로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양육 특성을 파악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양육자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지 알아보아 획일화된 정책이나 지원보다 각자 조건이 다른 가족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분석 기준

이 연구는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내용과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통계로 살펴보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모습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 다양화된 현상을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간략히 들여다본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가족다양성과 아동을 주제로 논의한다. 또한, 가족이 다양해진 사회에서 영유아 양육에 관한 최근 연구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며, 그 안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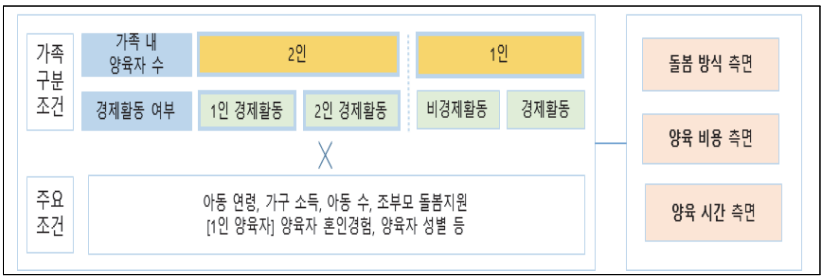
서론과 이론적 검토 이후에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다양한 가족과 양육 환경 및 특성을 파악한다. 영유아 양육의 중요한 축과 주요 정책이 돌봄 인프라, 경제, 시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양육 특성 파악에서는 이 분류방식을 기준으로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의 특성을 살펴본다.

돌봄 방식 특성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가장 대표적인 기관 이용과 비이용(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취학 전 아동 양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돌봄 방식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으로 양육 비용 관련 특성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측면에서는 가족 내 양육 분담 시간과 시간 관련 제도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양육 환경과 특성이 다양한 가족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로 양육자 수와 경제활동 여부로

크게 가족을 구분하고, 아동의 연령이나 수, 또는 가족 경제상황 및 기타 양육자 특성 등의 조건을 추가로 설정해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분석한다. 양육자 1인 가족은 데이터 활용에 따라 양육자의 혼인 경험을 고려해 1인 양육자 가족 또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이 함께 분석된다. 가족을 양육자 수로 구분한 다음에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아동의 연령 조건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면서 다른 조건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특성을 파악한다.

[그림 1-1] 가족 구분 및 주요 조건과 분석 영역



이 연구는 각 영역(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 대해 가장 크게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을 구분해 분석한다. 예를 들어, 돌봄 방식을 분석할 때 우선 전체 표를 제시하여 이 연구의 주요 조건인 가족 내 양육자 수를 활용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양육자 2인 가족, 양육자 1인 가족은 따로 구분해 상세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돌봄 방식에 대한 전체 표 제시 이후에는 양육자 2인 가족에 대한 돌봄 방식 상세 분석,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한 돌봄 방식 상세 분석의 순서로 이어진다.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 상세 분석에서는 여러 조건이 조합될 수 있어 하나의 내용을 분석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표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위의 [그림 1-1]에서 제시한 조건들

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복잡한 구성을 최소화하여 전체, 경제활동 기준, 아동 연령 기준 등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돌봄 방식 분석에서는 전체 표에서 경제활동, 아동 연령, 소득수준, 아동 수 등을 활용해 이 조건들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런 다음 동일한 돌봄 방식에 대해 '경제활동 기준' 분석표를 제시한다. 이 '경제활동 기준' 표는 경제활동 기준에 따라 1인 경제활동, 2인 경제활동을 구분한 후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아동 수에 따른 차이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전체 표 경제활동, 아동 연령 등 1단계 분석을 실시한 표라면, 그다음 이어지는 '경제활동 기준' 표는 경제활동-아동 연령과 같이 2단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양육자 수로 구분하고 나면, 이 연구의 주요 구분 조건이 경제활동 조건이기 때문에 전체 표 다음에는 '경제활동 기준' 표나 그림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그다음 '아동 연령 기준' 등을 제시한다. 양육자의 경제활동과 아동 연령은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양육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기준으로 한 세부 분석을 위주로 제시하며, 가족의 소득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면, 필요에 따라 '소득수준 기준'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양육 환경과 특성을 파악한 후에는 양육과 관련된 욕구를 알아본다. 가족의 조건에 따라 양육 환경과 특성을 파악한 것처럼 욕구 또한 여러 조건의 가족들마다 무엇이 다른지를 파악한다. 또한 가족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2세대 가족이라 하더라도 환경, 특성,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영유아 양육 가족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면서 마친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가족유형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가족 내 성인 양육자 수, 즉 흔히 말하는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이다. 이 양육자 수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의 다양성에서 가장 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2명인 가족유형인 양부모가족에서 아동 양육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교적 역할이 나뉘어 있기 쉬운 외벌이 가족과 성인 2명 모두 일과 돌봄을 공유해야 하는 맞벌이 가족의 양육 특성과 차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양육자 2인 가족 내에서의 가족유형을 나누어 살펴본다. 이때 성인 양육자와 아동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은 돌봄 유형에서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백은주, 한선아, 강민정, 2011) 양육자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비교를 위해 이 연구는 2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가족유형을 고전적으로 한부모, 양부모, 외벌이, 맞벌이 등으로 명명하지 않고 양육자 1인 가족과 양육자 2인 가족,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2인 경제활동 가족과 1인 경제활동 가족 등 양육자의 조건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족유형을 가족 내 양육자 수와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 등으로 구분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전통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았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양육자가 두 명인 가족 중에서 2인 경제활동 가족과 대비되는 1인 경제활동 가족에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만 포함되도록 구분한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한 연구 안에서 모든 내용과 범위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족, 그중에서도 양육자와 아동 2세대로 구성된 가족으로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의 환경과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족의 논의는 제외된다.

한국에서 다양한 가족이라 하면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이 흔히 논의된다. 이 연구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논의로 영유아 양육이 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거가족을 제외한 가족유형들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세대 가족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손가족이 제외된다고 앞서 밝혔다. 사실 조손가족을 논의하려 해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데이터가 부재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양육자의 수로 구분되는 한국 사회 아동 양육 가족의 다양성 특징 속에서 그 결이 매우 다른 가족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의 구분 속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러 가족유형을 한 연구에서 모두 다루며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시간이나 데이터 등의 제약으로 인해 모두 다루지 못하고 양육자 수와 그 안에서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른 다양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육자가 2인인 가족이 한국 사회의 표준이었던 모습에서 변화한 것에 초점을 두어 양육자 2인과 1인 가족유형으로 구분되는 다양성에 우선 집중하며, 또한 한국 가족의 전통 유형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변화한 점에 초점을 두어 2인 양육자 가족의 1인 경제활동/2인 경제활동에 따른 다양성에 집중한다.

3. 연구 방법과 활용 데이터

가족의 변화 및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통계를 활용해 변화의 흐

름을 파악하고, 가족다양성과 아동 양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따라 영유아 양육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2차 데이터를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돌봄 관련 조사 내용이 비교적 풍부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를 주로 활용한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8) 자료도 활용한다.

영유아 아동 양육 가족 중 양육자가 2인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조사마다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육자가 1인인 가족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에 대해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조사는 영유아 양육에 특화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와 함께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양육 관련 내용 자료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자료를 활용한다.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 한부모가족의 현상을 더욱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데이터가 가진 정보의 충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육에 대한 자원이 가장 부족할 수 있어 어려움 또한 클 수 있는 가족의 양육 특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와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의 양육 특성 및 경향성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이 연구 내용 구성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에서는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족 중 양육자 2인 가족과 양육자 1인 가족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양육자 2인 가족은 다시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을 2인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1인 경제활동 가족은 남성만 경제활동을 하는, 즉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가족을 의미한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 상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인 경우를 2인 경제활동 가족으로 구분하고, 남성은 '취업'이며 여성은 '실업'이거나 '비경제활동'인 경우는 1인 경제활동 가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동일 데이터에서 양육자 1인 가족은 여성 1인 양육자 가족으로, 그 양육자가 '취업'인 상태를 '경제활동 함'으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응답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안 함'으로 구분한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8) 데이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한 '취업, 휴직 중, 미취업' 응답을 활용해 '취업'과 '휴직 중'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고 '미취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와 동일한 1인/2인 경제활동 가족 분류를 따른다. 이 두 조사에서 2인 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이며,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의 1인 양육자는 어머니, 그리고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8) 의 1인 양육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데이터인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9) 두 조사는 모두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 1인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을 '경제활동 함'과 '경제활동 안 함'으로 구분한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의 양육자는 아동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며,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의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다양한 가족유형에서의 아동 양육뿐 아니라 가족다양성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 대면 방식의 회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의견을 설문 방식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나 FGI를 실시한다. 특히,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면 인터뷰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의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사례 수가 매우 적어 별도로 정리하는 데 무리가 있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마지막에 정책적 발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육 특성 및 욕구의 근거로 활용한다.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제1절 가족 변화와 다양성
제2절 가족다양성과 아동
제3절 가족다양성과 영유아 양육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제4절 영유아 양육 관련 지원 정책

제 2 장 이론적 검토 및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제1절 가족 변화와 다양성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변화한 현상은 이제 새롭지 않은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가족형태가 다양하다는 사실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성인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와 돌봄을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혼인 관계는 일방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는 가족에서 바뀌어갔다. 이러한 가족을 '전통 가족'이라 지칭한다면, 전통 가족은 여러 계기로 변화했다. 이 절에서는 혼인상태,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구성 변동 등과 관련된 통계들을 이용해 가족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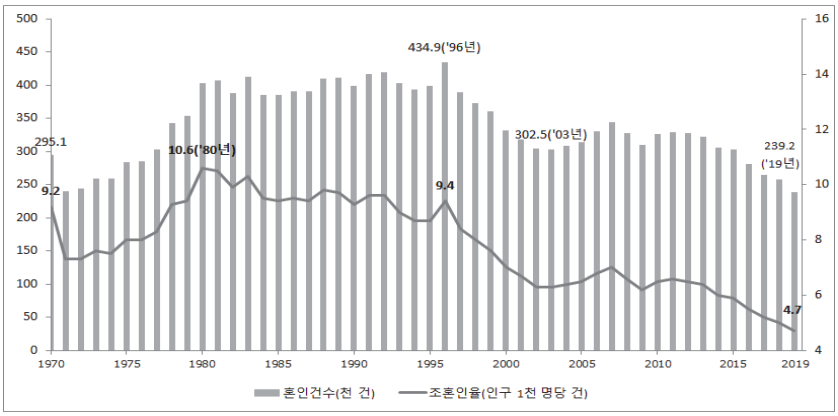
1. 혼인 변화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결혼을 기점으로 가족이 시작된다고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렇게 가족 형성의 기준이 되던 결혼은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현시대에는 선택사항으로 변화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약 40만 건 이상이던 혼인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1996년 약 43만 5,0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996년 이후 결혼 건수는 감소하고 2003년 약 30만 2,500건으로 7년 만에 약 13만 건 이상 대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 후 약간의 증감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2019년 현재 약 23만 9,000건으로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 매우 낮은 혼인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1996년 9.4건에서 2019년 4.7건으로 5건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2-1〕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19)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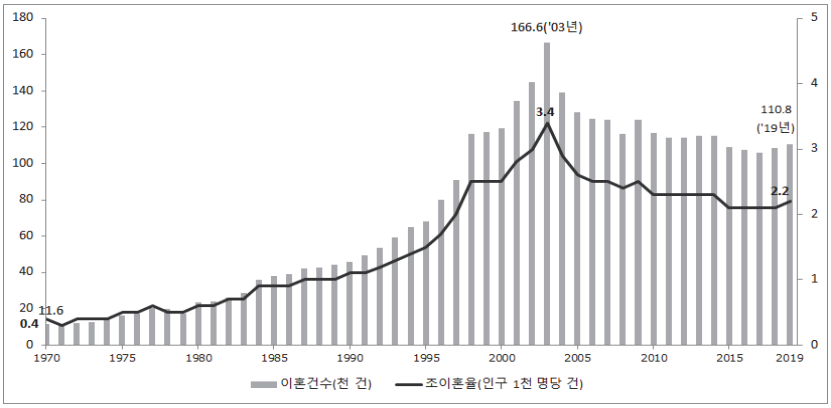


주: 1981년 이후 자료는 신고 기준(1970~1980년은 발생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20. 3. 19). 2019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p.34의 표를 참조로 저자가 직접 작성.

과거에 혼인은 필수였지만,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하는 것이 잘 용납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이혼은 1970년대 초반까지 한 해에 2,000건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중반을 지나면서 2000년도 초반까지 이혼 건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2003년에는 약 16만 6,600건으로 가장 많은 이혼 건수를 보였고, 그 이후 감소하여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9년 현재 약 11만 건 정도 이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00명당의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현재 2.2건으로 2003년 3.4건에서 줄어들어 2~3건 사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1970~2019)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주: 1981년 이후 자료는 신고 기준(1970~1980년은 발생 기준임).
자료: 통계청. (2019. 3. 19). 2019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p.34의 표를 참조로 저자가 직접 작성.

결혼의 속성 변화는 단순히 건수의 변화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 더욱 잘 드러난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부정적 반응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족의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와 유지는 혼인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해체 비율을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의 속성 변화로 인한 국제결혼 비율의 증가는 결국 가족의 다양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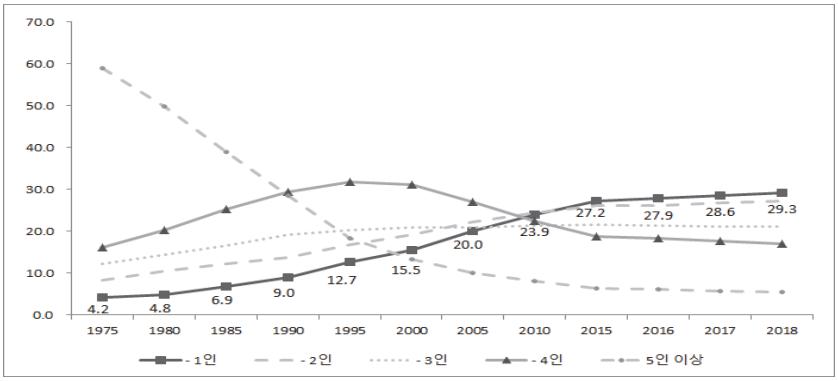
2. 가족 구조 변화

한국 사회에서는 근대화 이후 오랫동안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이 매우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어왔다.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 5인 이상 가족 감소와 4인 가족의 증가가 맞물려 일어나

면서 1990년대 4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가족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지속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소규모 가족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하지 않으면 아이를 잘 낳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혼인의 변화는 가족 수 및 구조의 변화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림 2-3]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의 변화(1975~2018)

(단위: %)



주: 2015년부터는 1년 주기로 발표(이전 자료는 5년 주기로 발표).
자료: 통계청. (2020e).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3에서 2020. 5. 25. 인출한 통계표를 참조로 저자가 직접 계산.

또한, 이혼율의 증가 및 유지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한부모가족은 2005년 137만 가구에서 현재 153만 9,000가구로 증가하였다. 한국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 10% 이상을 차지했으나, 그 이후 약간 감소해 2018년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한부모가구 비율(2005~2018)

(단위: 천 가구, %)

구분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2005	15,887	1,370	8.6
2006	16,289	1,426	8.8
2007	16,543	1,468	8.9
2008	16,791	1,509	9.0
2009	17,052	1,551	9.1
2010	17,339	1,594	9.2
2011	17,687	1,639	9.3
2012	18,119	1,796	9.9
2013	18,388	1,880	10.2
2014	18,705	1,970	10.5
2015	19,561	1,608	8.2
2016	19,838	1,540	7.8
2017	20,168	1,533	7.6
2018	20,500	1,539	7.5

자료: 통계청. (2020b).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에서 2020. 5. 25. 인출.

한부모가구 구성을 보면, 2018년 총 153만 9,000가구 중 여성과 미혼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이 96만 3,000가구로 가장 많다. 가장 어린 아동이 만18세 미만인 한부모가족은 40만 8,000가구이고, 이 중 21만 3,000가구가 여성 한부모가족임을 알 수 있다.

〈표 2-2〉 한부모가구 구성(2015~2018)

(단위: 천 가구)

세대 구성	가장 어린 아동 연령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소계	1,608	1,540	1,533	1,539
	18세 이하	505	446	425	408
	19세 이상	1,103	1,094	1,108	1,131
부+미혼자녀	소계	301	282	281	283
	18세 이하	109	94	89	85
	19세 이상	192	188	192	198
모+미혼자녀	소계	988	951	952	963
	18세 이하	260	230	219	213
	19세 이상	728	721	733	750
부+미혼자녀 +기타가구원	소계	121	114	111	108
	18세 이하	68	60	57	53
	19세 이상	52	54	54	55
모+미혼자녀 +기타 가구원	소계	198	193	189	185
	18세 이하	68	62	60	58
	19세 이상	130	131	129	127

자료: 통계청. (2019. 8. 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53.

한부모이지만, 혼인 경험 없이 한부모가 된 경우를 미혼모/부로 2015년부터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018년 약 2만 9,000명의 미혼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미혼모는 2만 1,254명, 미혼부는 7,768명으로 나타나 미혼모/부 중 70% 이상이 미혼모인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부의 자녀 수를 보면, 2018년 현재 약 3만 4,000여 명으로 그 중 약 2만 5,000명은 미혼모의 자녀이고 약 9,000명이 미혼부의 자녀로 나타났다. 미혼모는 아이 연령 0세부터 9세 이하에 더 집중되어 있고, 미혼부 아이는 0~4세보다는 더 높은 연령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미혼모, 미혼부 연령별 분포(2015~2018)

(단위: 명, %)

연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미혼모	미혼부	계	미혼모	미혼부	계	미혼모	미혼부	계	미혼모	미혼부
계	35,088	24,487	10,601	33,108	23,936	9,172	30,489	22,065	8,424	29,022	21,254	7,768
20세 미만	434	350	84	463	435	28	387	377	10	323	317	6
20~24세	2,343	1,929	414	2,334	1,979	355	2,008	1,724	284	1,776	1,579	197
25~29세	3,507	3,013	494	3,376	2,942	434	2,902	2,507	395	2,890	2,498	392
30~34세	5,297	4,078	1,219	4,863	3,960	903	4,005	3,286	719	3,669	3,047	622
35~39세	6,692	4,761	1,931	6,466	4,853	1,613	6,109	4,672	1,437	5,833	4,550	1,283
40~44세	6,852	4,454	2,398	6,167	4,126	2,041	5,823	4,010	1,813	5,605	3,969	1,636
45~49세	5,426	3,233	2,193	5,182	3,166	2,016	5,111	3,147	1,964	4,892	3,058	1,834
50세 이상	4,537	2,669	1,868	4,257	2,475	1,782	4,144	2,342	1,802	4,034	2,236	1,798

자료: 통계청. (2019.8. 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24.

〈표 2-4〉 미혼모, 미혼부 자녀의 연령별 분포(2015~2018)

(단위: 명, %)

연령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계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의 자녀
계	41,468	28,905	12,563	39,065	28,234	10,831	35,838	25,938	9,900	34,035	24,969	9,066
0~4세	12,851	9,934	2,917	11,908	9,767	2,141	9,478	7,981	1,497	8,437	7,342	1,095
5~9세	11,181	7,676	3,505	11,015	7,966	3,049	10,465	7,720	2,745	10,031	7,541	2,490
10~14세	9,554	5,974	3,580	8,996	5,735	3,261	9,098	5,803	3,295	9,090	5,908	3,182
15세 이상	7,882	5,321	2,561	7,146	4,766	2,380	6,797	4,434	2,363	6,477	4,178	2,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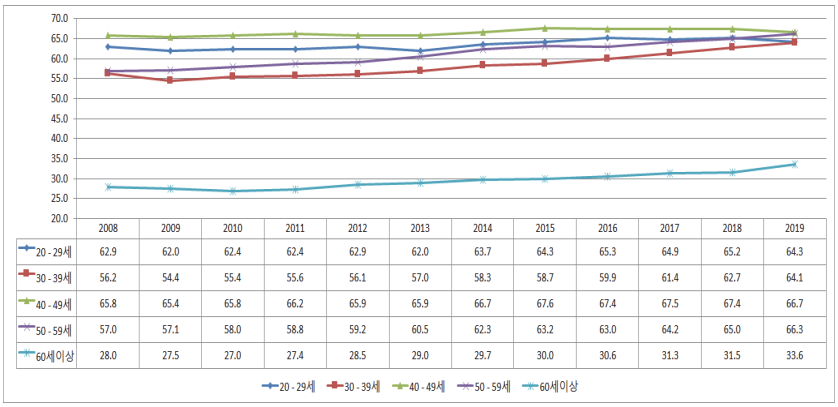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 8. 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25.

3.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

결혼의 변화, 가족 내 역할의 변화 등 가족을 둘러싼 여러 현상은 많은 부분 여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났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일 것이다. 특히, 여성이 영유아 양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시기로 볼 수 있는 30~40대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인하였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성의 첫째아 출산 연령이 2008년 29.61세에서 증가해 2019년 32.16세가 되었지만(통계청, 2020c), 여전히 3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양육 주요시기는 30대로 볼 수 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기준 64.1%로 60대를 제외하고 2008년에 가장 낮은 56.2%였던 것을 본다면, 다른 연령에 비해 그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008~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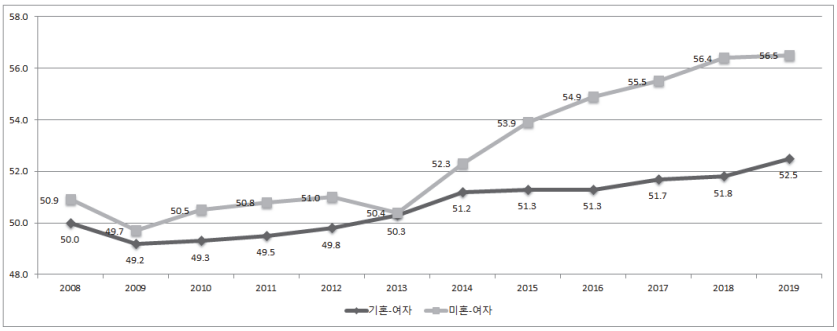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 - 29세	62.9	62.0	62.4	62.4	62.9	62.0	63.7	64.3	65.3	64.9	65.2	64.3
30 - 39세	56.2	54.4	55.4	55.6	56.1	57.0	58.3	58.7	59.9	61.4	62.7	64.1
40 - 49세	65.8	65.4	65.8	66.2	65.9	65.9	66.7	67.6	67.4	67.5	67.4	66.7
50 - 59세	57.0	57.1	58.0	58.8	59.2	60.5	62.3	63.2	63.0	64.2	65.0	66.3
60세이상	28.0	27.5	27.0	27.4	28.5	29.0	29.7	30.0	30.6	31.3	31.5	33.6

자료: 통계청. (2020c).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에서 2020. 12. 10. 인출.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경향을 보기 위해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참가율로 살펴보았다. [그림 2-5]에서 보듯, 2009년 이후 2013년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모두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 2019년 현재 미혼여성의 56.5%, 기혼여성의 52.5%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미혼여성에 비해 증가 폭은 작았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5]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08~2019)

(단위: %)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성 인지 통계 홈페이지.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성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EA0410R&conn_path=I3에서 2020. 6. 1. 인출.

여성의 경제활동은 혼인한 가족 중 맞벌이 가족의 증가를 가져왔다. 2018년 기준으로 혼인 가족 중 맞벌이 가족은 46.3%의 비율을 보인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남성 양육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 양육자가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이 아닌,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과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족 내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맞벌이 가구와 비율(2011~2018)

(단위: 천 가구, %)

구분	유배우	맞벌이	맞벌이 비율
2011	11,761	5,241	44.6
2012	11,822	5,201	44.0
2013	11,940	5,175	43.3
2014	12,049	5,331	44.2
2015	12,139	5,358	44.1
2016	12,190	5,545	45.5
2017	12,224	5,456	44.6
2018	12,245	5,675	46.3

자료: 통계청. (2020g).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9S&conn_path=I3에서 2020. 6. 1. 인출.

제2절 가족다양성과 아동

앞서 현황 통계 자료로 살펴보았듯이 두 명의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가족유형(family type)으로부터 벗어난 비전형적 가족유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비전 형성이 늘어나는 것은 성인남녀의 삶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비전형적 가족과 아동의 관계를 상당히 도덕주의적이거나 규범적 차원에서 관찰해왔다. 일례로 많은 사회조사 문항 중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해도 되는가'와 같이 이혼하는 부모의 동기와 아동의 복지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암시해왔다. 또한 '일하는 엄마도 아동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어머니가 유급노동에 종사하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비전형적 가족, 또는 다양한 가족이라 명명되는 현상은 특히 아동의 삶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큰 우려를 불러일으켜왔다(정영금, 2015; 서선희, 2017).

이와 반대로, 여성의 권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는 비전형적 가족의 해방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페미니즘 흐름 중 하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그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Barrett & McIntosh, 2019; Thorne & Yalom (eds.), 2003). 여성 억압적이거나 여성의 권리실현을 저해하는 가족유형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미화하고 그에 대한 도전을 비도덕적 일탈로 간주하는 것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 한다면, 페미니즘은 바로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도전함으로써 여성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족의 변화나 가족으로부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보면, 비전형적 가족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해방적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재경, 2004).

20세기 후반 이후 가족유형의 다양화는 이렇듯 위기와 해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특징으로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과 여성의 권리는 종종 충돌하거나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변화된 여성의 노동-가족 생활이 아동의 권리나 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아동들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Mclanahan, 2004). 다른 한편에서는 어머니-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곧 아동의 삶을 개선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동의 복지가 걱정한 것처럼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박옥임 외, 2013). 미성년아동의 최종적인 복지 공급자는 언제나 여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어머니의 권리 반대편에 놓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변화를 여성-아동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일에는 상당한 도덕적/정치적 긴장이 내포되어 있다. 아동의 시각에서 본 가족의 변화는 위기와 역기능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여성의 시각에서 본 가

족의 변화는 변화 자체를 옹호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거리를 두고, 그러한 경향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적 작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 자체는 가족 그 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통념과는 달리, 가족은 늘 형태와 내용이 서로 다른 복수의 가족들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수용해가면서 많은 가족 연구들은 가족을 확고한 신념체계가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시적인 실천 과정으로 정의한다(Coontz, 1992; Gerson, 2010; Morgan, 2012).

가족의 미시적 다양성을 가족의 본질적인 존재 양태로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족(또는 생활형태)의 거시적 다양화 추세와 그것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2] 달리 말해, 가족의 미시적 획일성에 대한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가족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는커녕 그 본질을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다양성의 불가피성을 초래한 거시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 생애의 시간적 조직양상의 변화가 가족다양성을 초래한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체 생애에서 개인들이 실로 다양한 가족유형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경제적 자립 또는 부모 됨)로의 이행은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이행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안선영, Cuervo, Wyn, 김지희, 2010;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2) 여기에서 미시적 다양성과 거시적 다양성은 가족의 경험적 변이(variants)와 그러한 변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정상가족(normal family)으로부터 벗어난 변이형 가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스칸조니(Scanzoni, 2001)의 연구와 문소정(2008)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노년기도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인 가구'라는 모순적 가족유형을 확산시키고 가족을 통해서만 충족된다고 믿었던 기능(부양과 돌봄)이 가족 외부의 사회적, 시장적 수단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다른 한편에서, 비전형적 가족유형은 더 이상 전통적 가족규범을 따를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출현하고 있다.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 지속되는 결혼을 이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는 규범과는 달리, 많은 결혼은 이혼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신념체계가 아닌 실천적 과정으로서 가족이라는 관념은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준다. 현대적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자발적 결합이다. 따라서 언제든 중단될 가능성이 모든 혼인관계에 내포되어 있다. 경제적 실패나 혼인 충실성의 위반 등과 같은 여러 사유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 가능성이 정상적인 가능성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경제적 실패에 따른 갈등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요인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혼은 1인 가구나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유형을 만들 수 있고 재혼이나 비혼동거 등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혼인관계 외부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혼 출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자녀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두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성인으로 자라난다는 믿음을 허물고 있다.

전형적 가족유형은 단지 가구 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는 가족 구성원의 이상적인 역할에 대한 규범을 포함해왔다. 아버지는 가족 외부의 직업 세계에 참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떠맡고, 어머니는 직업 세계로부터 물러나 있는 대신, 가정 내에서 가사, 양육, 돌봄, 가정관리 등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생계부양능력은 성인 남성 내부에서도 차별

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이러한 남성 단독 부양능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와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20세기 후반의 세계화와 자본 간 경쟁의 격화는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고용 전반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였다. 정보화·자동화 등 생산기술의 진보는 과거와 같이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은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가족을 위한 임금을 벌어들여 여성과 아동,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성인 남성 노동인구의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성인 '핵심' 남성 노동자의 위기는 가족구성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된다. 기혼여성들은 저임금/불안정노동의 일자리로 끌려 나왔으며, 그 자녀들도 인적 자본의 축적을 중단하고 일찍 노동시장에 나와 부족한 가구소득을 보충해야 할 압력을 받게 된다(최선영, 장경섭, 2012; 장경섭, 2018).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20세기 후반 이후 여성의 생애 구조가 크게 변화한 것이다. 논자에 따라 '2차 인구변천', '개인화', '젠더혁명' 등 각각 달리 이론화하고 있지만, 핵심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성인기 여성의 활동을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적으로 투여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이다(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1차 인구변천(소산소사)에 따라, 이미 여성의 생애에서 자녀 출산기간은 극단적으로 단축되었다. 대부분의 가족이 자녀 수를 2명 내외로 축소하는 소자녀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가족 내 여성 자녀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교육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고등교육에서의 남녀 차이가 사라지게 된 것은 경제활동을 둘러싼 젠더 불평등 구조와 무관하게, 여성의 삶, 특히 노동-가족에 대한 전망을 극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최선영, 2020).

이러한 변화, 즉 노동의 불안정화와 젠더혁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시기적 지연과 결혼/출산 그 자체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과 같은 파트너십의 변화, 어머니의 유급노동 참여 및 커리어 지향 등과 같은 부모의 경제활동 변화 등은 성인들이 겪는 가족, 생애, 젠더관계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아동에게도 '새로운 위험' 요인인 것이 사실이다(Mclanahan, 2004). 그러나 이러한 위험 또는 변화를 돌봄의 공백이나 아동 간의 불평등으로 만드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가족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가족다양성에 따른 상이한 정책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 사실 아동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족이 '정상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Gerson, 2010; 이재경, 2015). 다시 말해 비전형적 가족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긍정은 모두 가족을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둔 닫힌 체계로 간주하는 데 의존해왔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사회에 대해 열린 체계라는 점이다(이여봉, 2017). 이러한 점에서 가족유형의 차이가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애 가장 어린 시기이며 가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인 영유아기에 가족 환경이나 양육자의 조건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차이가 아동 성장에 차별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정책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3절 가족다양성과 영유아 양육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아동 양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양육에서 중요한 돌봄 방식 측면, 경제적 측면, 시간 측면의 특성으로 크게 나누어 그 안에서 가족의 조건별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정리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하기에 앞서, 영유아 양육 관련 특성을 살펴보는 영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1. 양육 영역 구분

다양한 가족들의 영유아 양육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이 연구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다루고자 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파악해야 할지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정책 분야를 기준으로 그 논의를 전개한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 영역에 대한 범위는 학자마다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 정책 단위로 세부 구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가족정책 학자인 Kamerman과 Kahn(1997)은 우선 가족 정책을 명시적(explicit) 정책과 묵시적(implicit) 정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명시적 가족 정책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일정 기준 이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적 수입 보장을 위한 정책, 일하는 부모를 위한 노동 관련 지원, 아동 돌봄과 건강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Kamerman & Kahn, 1997, p.6).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영역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등 인프라, 현금 지원, 시간 영역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주요 국가의 정책 지원 구분에

서 자주 이용하기도 하며, 국제 비교를 하는 기존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이승윤, 박고은, 김윤영, 2014). 한국의 영유아 양육은 돌봄 방법과 시설 및 서비스와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 등과 관련된 시간 정책의 구분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가족의 아동돌봄 특성은 이 정책 분야와 호응해 돌봄 방식 측면, 양육 비용 측면, 시간 측면으로 영유아 양육 가족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 체계는 이어지는 선행연구 검토에도 적용해 각 영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돌봄 방식 관련 선행연구

양육자가 두 명인 가족 중에서는 맞벌이 가족이 돌봄 방식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족 중 여성이 일 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 돌봄 방식은 연령별로 달랐다. 0~1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방식이 매우 높았고, 4세 이상이 되어서야 어린이집 이용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부모가 직접 돌보는 방식에 대한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유혜미, 배윤진, 김문정, 2014). 그러나 맞벌이 환경에서 실제로 아동 돌봄 방식은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가장 많고, 1세부터는 어린이집이 과반 이상으로 높아지고, 4~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보인다(유혜미 외, 2014). 즉,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적합한 돌봄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아기의 경우 애착 형성과 민감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알려져 가정 돌봄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아동이 0~2세 어린 시기에 양육자가 모두 일을 하면서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종일 이

용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조율해 돌봄 시설을 단시간 이용하는 가족이 있어서 주 돌봄자가 부모인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이정원, 도남희, 2014).

양육자가 2인인 맞벌이나 외벌이 가족 아동 모두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하는 이유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부산의 보육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를 보면, 맞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어린이집 이용 가족 중 5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외벌이 가족의 경우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라는 응답과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30.3%와 30.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옥경, 2015). 맞벌이 가족은 어린이집 이용이 선택이라기보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의 대처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보인다. 반면, 외벌이 가족의 경우는 양육자나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맞벌이와 외벌이 가족이 돌봄 인프라 이용의 시작부터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맞벌이 가족은 아동 돌봄을 어린이집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외벌이 가족보다 길고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시간과 관련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이옥경, 2015).

맞벌이와 외벌이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 가장 바라는 점은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으로 공통되게 나타나 돌봄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옥경, 2015). 또한, 맞벌이 가족은 아동 돌봄에서 시간 연장이 필요했고, 외벌이 가족은 시간제 보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이옥경, 2015) 서비스 이용 측면의 욕구에서 가족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도 하고 육아도 공유하게 되는

데, 이들의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 부부 이외의 사회적 자원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김선미, 2013).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및 문제를 부부의 부모님 지원을 활용해 해결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은 부모님 지원에 의존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원이 없는 경우 어린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족은 자원이 있는 경우보다 더욱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이나 서비스를 중요시함에 따라 가장 정성스럽게 아동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되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돌봄 방식보다 우선되어 조부모 돌봄을 택하게 된다.

가족 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성인이 2명이 아닌 1명인 경우에는 아동 양육과 함께 생계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가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더라도, 시간 부족 및 돌봄자원 부족으로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이기도 하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중 한부모가족의 미취학 자녀의 돌봄 실태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보육을 하는 경우가 86.1%인 반면, 한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9.1%,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3.7%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보육 실태조사」에서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49.0%, 한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41.9%인 결과(김은설 외, 2016)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서 공공 육아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29.9%,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14.2%인 결과(문은영, 2011)에 비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이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녀 돌봄에서 필요한 지원은 '야간보육 활성화'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 이외에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김은

지 외, 2018). 실제로 양육자가 1인 가족의 경우 갑작스러운 야근을 해야 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경우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장명선, 이영호, 2016).

3. 양육 비용 관련 선행연구

양육 비용은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저소득 가족이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대략 월평균 40~60만 원 이상의 양육 비용이 발생하며, 저소득 가족 내에서도 그 차이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발견해 저소득층의 아동 양육비는 충분하지 않은 생계비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님, 2010).

소비는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어느 가족에게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육비 관련 연구에서 양육비 부담은 한 가족에게서만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양육자 2인 가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돌봄의 질을 제외하고는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의 욕구가 달리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은 어린이집 위치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외벌이 가족은 기타 경비에 대한 부담 감소에 대한 욕구가 높아 차이를 보였다(이옥경, 2015). 양육자 2인 가족 내에서도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기타 경비를 낮추는 것에 대한 욕구는 외벌이 가족이 더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족보다는 비용과 관련된 욕구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족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 양육 비용 부담은 다르게 느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돌봄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 그만큼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유혜미 외, 2014). 취학 전 아동을 양육 중인 맞벌이 가족 중 시간제 근로가구보다 전일제 근로가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돌봄 지원인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 노동시간 증가는 양육 비용 부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가족 내 아동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비는 증가할 것이다. 양육비 중 교육보육비가 가장 많고 식비, 여가문화생활비 순으로 양육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 연구에서는(최효미, 2020) 가족 내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 비용 지출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이 2명, 3명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양육비가 2배, 3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내 아동 수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한 아동에게 돌아가는 양육비는 줄어드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최효미, 2020). 즉, 가족 내 아동 수와 양육비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은 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부모가구주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및 임시·일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현재의 생활 수준이 주변 사람들보다 낮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보였다. 또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생계비 지원, 양육 및 학비 보조를 뽑고 있다(문은영, 2011). 직접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소득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2.6%, 200~300만 원 미만은 27.0%로 평균 219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아동 연령별 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221만 6,000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223만 5,000원, 중학생 이상인 경

우 216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8).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가족은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아동 연령별 미혼모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0~18개월과 18~36개월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 가구의 소득은 50~1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00~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이미정, 2011). 그러므로 양육을 하는 미혼모 중 절반 정도는 기초생계비를 지원받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이미정, 2011). 이러한 상황은 2019년 조사에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125만 원 수준이었다.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는 약 105만 원, 3세 이상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는 약 135만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적 상황을 보인다(변수정 외, 2019). 따라서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 또한 대부분 경제적인 취약성에서 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양육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변수정 외, 2019) 미혼모가족은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양육 시간 관련 선행연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과 가족 관련 요인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별이나 연령, 취업 여부, 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개인의 요인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생활과 아동 양육 등 가족을 둘러싼 조건들이 시간 분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승미, 이현아, 2011). 특히 아동, 그중에서도 취학 전 아동의 존재는 가족 내 시간 배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뿐 아니라 아동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해 일에 할애하던 시간을 육아에 할애하는 일정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양육과 관련해 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 고찰에서는 일상에서의 시간 활용과 육아휴직제도 활용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양육과 시간에 대한 연구는 양육자 2인 가족 중 맞벌이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풍부하다. 부부가 동등하게 일을 할 때의 가족 내 역할과 시간 투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가족 내 시간 사용은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벌이 가족 내 시간 배분을 분석한 연구(석병훈, 유혜미, 2019)에서 맞벌이 부부 중 아내 임금은 남편의 주중 양육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임금이 높을수록 남편이 주중에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해 맞벌이 가족 내에서도 아내의 소득에 따라 육아 부담 배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 중 육아를 포함한 가사 시간 배분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가사노동 분담은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가사 분담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여성이 남성 배우자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라 해도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평등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든 일로 보여진다(엄규숙, 황석만, 2019).

아동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뿐 아니라 식사, 청소, 집안 관리 등 전반적인 가사노동에 맞벌이 부부가 할애하는 총 시간이 주당 약 30시간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약 90%를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시간 사용이 매우 불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채로, 이기영, 2004). 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본인과 상대 배우자의 노동시간이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본인의 노동시간과 부적 관계를, 배우자의 노동시간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허수연, 2008). 이러한 영향이 있

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 평일 노동시간은 여성이 5.68시간, 남성이 7.6시간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평일 가사노동에 2.34시간을 투입하는 반면, 남성은 평일 기준 40.4분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허수연, 2008)에서의 영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존재는 가사노동시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평일 시간 사용에서 취학 전 아동 유무가 여가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 모두 취학 전 아동의 존재가 부모의 여가시간 사용과는 부적 관계를 가사노동시간 사용에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이승미, 이현아, 2011).

육아가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서 기본적으로 남편은 육아나 가사활동에 부여하는 시간이 아내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아내의 임금이 상승하면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조성호, 2016). 또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양육뿐 아니라 가사 자체에도 취학 전 아동의 존재는 여성의 가정 내 시간 할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미, 이현아, 2011; 엄규숙, 황석만, 2019).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평등하게 자리 잡는 듯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평등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하는 경우 남성 혼자 일하는 경우보다 남성의 평일 가사 노동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그리

고 여성이 일을 할 경우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여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노동 투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여성의 소득 증가에 따른 남성의 가사노동 투입 시간은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호중, 2015). 결국 맞벌이화를 통해 경제적 부양은 가족 내 남녀가 함께 해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집안 일 분담에 있어서는 여성의 희생이나 헌신이 여전히 더 당연시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배은경 외, 2009).

일상에서의 시간 사용이 아닌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또한 아동 양육 가족의 시간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3]). 현행 기준이 되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오히려 돌봄이 많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로 대상 아동 연령이 확대된 결과이다. 하지만, 2014년 이전에는 육아휴직 대상이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을 만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4]) 취학 전 아동 양육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는 더욱 확연하다.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에서 중요한 요인은 가족이나 조부모 등 주변에 아동의 돌봄을 지원해줄 자원의 유무이다. 조부모로부터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이용 가능성이 낮았다(김진욱, 2008). 또한, 직장의 환경 자체도 제도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김진욱, 2008).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

3)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에서 2020. 6. 10. 인출.
4)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2587에서 2020. 6. 10. 인출.

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60%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승미, 김선미, 구혜령, 2014). 이는 여성들이 일하는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경우, 또는 있지만 알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휴직제도 사용이 거의 불가한 직장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에게 이 시간 사용 방법이 모두 허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은 자녀와 함께 있을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경제적인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의 정책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경제활동에 집중하기에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딜레마 상태에서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미취학 자녀 양육의 어려움 중 '자녀를 돌봄 시간의 부족'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21.8%, '대체로 그렇다'가 48.6%를 보였다(김은지 외, 2018). 이는 10명 중 6명은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부족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자가족은 9.6%인 반면, 부자가족은 24.0%를 보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시간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보수수준은 낮지만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을 선호하였다. 특히 빈곤한 한부모 여성 가구의 경우 불안정한 일자리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사무직, 출퇴근이 정확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쉬는 일"을 선호하였다(성미애, 진미정, 2009). 더 나아가 빈곤 여성 한부모의 경우 자활참여는 "복지의존을 통해 자녀를 지키고, 근로연계로 두려움과 무기력을 떨쳤다"고 표현하였다(정혜숙, 2015). 즉, 자활의 경우 시간제 근무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 연구의 구성과 매치되도록 아동 돌봄, 양육 비용, 양육 시간 관련된 기존의 아동 양육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아동 양육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가족유형과 관련해보면 한부모, 양부모(맞벌이, 외벌이) 등 특정 가족유형에 집중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양육 시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양부모가족 내에서 맞벌이가족과 외벌이 가족을 구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분석이 한 연구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양육자 수에 따른 다양성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 양육 가족은 크게 한부모와 양부모의 구분이 다양성을 대표한다.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가족의 양육 특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가족의 양육에 대해 각기 다른 시점에서 각 가족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파악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영유아 양육 가족을 하나의 큰 집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가족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합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제4절 영유아 양육 관련 지원 정책

이 절에서는 영유아기 아동 양육과 관련해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기관 이용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은 돌봄 방식에 따라 크게 나뉘는 지원으로 취학 전 아동은 대부분 둘 중 한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모두 현금 지원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보육료 지원은 지원받은 보육료를 기관 이용에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이 양육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으로 분류하지만 보육료 지원은 서비스 이용 지원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시간과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고, 한부모나 미혼부모 가족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

1.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에 속한 어린이집, 직장·가정·협동·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우선 만0~2세 반 영아의 경우는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보육료를 지원한다. 만3~5세 반 유아의 경우는 누리 공통과정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연장보육은 부모 모두 취업 중에 있거나, 부모가 구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 다자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부모 또는 아동의 입원이나 간병, 학업 등의 사유로 기본보육 이외에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연장보육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결재를 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보건복지부, 2020a, pp.340~349). 보육료의 지원 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2-6〉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및 지원 단가 (2020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기준일자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 반	2019. 1. 1. 이후 출생	470,000	470,000	705,000
1세 반	2018. 1. 1. ~ 2018. 12. 31.	414,000	414,000	621,000
2세 반	2017. 1. 1. ~ 2017. 12. 31.	343,000	343,000	514,500
3세 반	2016. 1. 1. ~ 2016. 12. 31.	240,000	240,000	360,000
4세 반	2015. 1. 1. ~ 2015. 12. 31.	240,000	240,000	360,000
5세 반	2014. 1. 1. ~ 2014. 12. 31. (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13.1.1. ~ 2013.12.31.)	240,000	240,000	36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p.341~342.

2. 유치원 이용(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는 만3세부터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유아학비의 지원 목적은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비 경감을 통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원대상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이며, 무상교육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방식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a[5]). 유아

학비 지원 대상 기준 연령과 교육과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표 2-7〉 유아학비 지원 대상 기준 연령 및 교육과정 지원 금액(2020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기준일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만 3세	2016. 1. 1. ~ 2016. 12. 31.	60,000 입학금, 수업료 면제	240,000원
만 4세	2015. 1. 1. ~ 2015. 12. 31.		
만 5세	2014. 1. 1. ~ 2014. 12. 31.		

자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a.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에서 2020.11.25. 인출.

지원금은 교육과정 지원금 이외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이 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에서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대상이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b[6]).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2-8〉 방과후 과정 지원금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금액(2020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50,000원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없음	100,000원

자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b.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에서 2020.11.25. 인출.

5)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에서 2020. 11. 25. 인출.
6)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에서 2020. 11. 25. 인출.

3.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에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돌보는 경우에 있는 전 계층 아동에게 월령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시·군·구가 결정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 보호자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농어촌에 거주한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보건복지부, 2020a, pp.364~367).

〈표 2-9〉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2020년 기준)

(단위: 월/인)

<table>
<tr><th>연령</th><th>양육수당</th><th>농어촌양육수당</th><th>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d>0~11개월</td><td>200천원</td><td>200천원</td><td rowspan="3">200천원</td></tr>
<tr><td>12~23개월</td><td>150천원</td><td>177천원</td></tr>
<tr><td>24~35개월</td><td>100천원</td><td>156천원</td></tr>
<tr><td>36~47개월</td><td rowspan="2">100천원</td><td>129천원</td><td rowspan="2">100천원</td></tr>
<tr><td>48~86개월</td><td>100천원</td></tr>
</table>

자료: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p.364.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은 0개월부터 83개월까지로, 아동의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7세 생일의 전달까지이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0b, pp.3~4).

5.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휴직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하한 70만 원~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인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한 70만 원~상한 120만 원)할 수 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중에서

25%는 피보험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7], 복지로 홈페이지a[8]).

육아휴직의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있다.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두 번째 사용자가 주로 아빠일 경우가 많으므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a).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을 1년간 미사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

7)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에서 2020. 8. 30. 인출.
8)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14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에서 2020. 8. 30. 인출.

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사용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최초 5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하한 50만 원~상한 200만 원)에서 5시간을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을 나눈 시간에 대한 값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하한 50만 원~상한 150만 원)에서 나머지 시간에 대한 값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9], 복지로 홈페이지a[10]).

7.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 돌보기를 위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여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사용일수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

9)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에서 2020. 8. 30. 인출.
10)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14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에서 2020. 8. 30. 인출.

간동안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통상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여야 하며, 최대 30시간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8.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p.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양육비 등 지원, 자립 지원, 시설 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의 현금과 현물지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현금 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야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현물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과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가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기능보강,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는 「한부모가족지원

법」 기준에 의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 p.11).

〈표 2-10〉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2020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한부모 및 조손가족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33,311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093,821
청소년 한부모가족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3.

한부모가족의 현금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만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손가구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모부모가족이면서 만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월 5만 원씩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만약 만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인 경우라면 아동양육비를 월 35만 원 지급한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아동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일 경우 자녀에게 연 5만 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 p.137).

〈표 2-1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020년 기준)

구분	연령 기준	지원금액	사업대상	수행기관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가구	가구당 월 5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1를 참조로 저자가 직접 작성.

9. 미혼모·부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가족 관계 증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으로 아동에 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 미혼모·부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pp.319~320).

미혼모·부 가족은 발생 초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적인 상담과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들의 정서적인 불안감과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상담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은 보장시설수급자인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3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에 대해 병원비, 양육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병원비는 모와 아이의 건강

을 위해 출산비 이외에도 자녀의 입원이나 예방접종비 등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하며, 양육용품으로는 분유, 기저귀,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가구당 연간 70만 원 이하로 지원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양육용품의 경우는 1회 1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만약 자녀가 12개월 이하인 경우는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나, 지자체 및 센터의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 가능하다. 그 밖에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친자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신·출산·자녀양육 등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 교육, 산전후 체조, 자녀와 놀이활동 등이다(여성가족부, 2020, pp.321~324).

제3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환경 및 특성

제1절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현황
제2절 돌봄 방식 관련 특성
제3절 양육 비용 관련 특성
제4절 양육 시간 관련 특성
제5절 소결

제 3 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환경 및 특성

이번 장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양육 환경과 그 특성을 파악한다. 먼저 주요 돌봄 방식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그 후 비용 측면에서의 특성 관련 내용과 시간 특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영유아 양육의 돌봄 방식, 비용, 시간 측면을 살펴봄에 있어 가족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 내 양육자 수, 경제활동 양육자 수, 아동 연령, 가족의 소득수준, 아동 수 등에 따라 구분해 살펴본다.

제1절 영유아 돌봄 기관 이용 현황

영유아의 돌봄 방식을 2차 데이터로 살펴보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영유아의 기관 이용 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초등학교에 취학해야 하는 연령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이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 즉, 초등학교 1학년에는 만 6세와 만 7세 아동이 있을 수 있다. 단, 한 살 먼저 또는 한 살 늦게 입학이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기준으로 취학 전 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만 6세까지 아동 수를 보면, 2019년 만 6세는 44만 1,362명, 만 2세는 36만 2,900명, 만 0세는 29만 5,132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연령별 아동 수(2019년 만 0~만 6세)

(단위: 명)

구분	계	여자	남자
계	2,726,967	1,328,705	1,398,262
만 0세	295,132	143,638	151,494
만 1세	330,970	161,155	169,815
만 2세	362,900	176,064	186,836
만 3세	412,018	201,206	210,812
만 4세	444,102	216,519	227,583
만 5세	440,483	214,851	225,632
만 6세	441,362	215,272	226,090

자료: 통계청. (2020f).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에서 2020. 8. 7. 인출.

전체 영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어린이집 개소 수부터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어린이집 총 개소 수는 3만 7,371개소이며,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1만 7,117개소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이 1만 2,568개소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4,324개소가 있다.

〈표 3-2〉 어린이집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37,371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자료: 보건복지부. (2020c). 2019년 보육통계. p.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135만 5,085명이다. 여러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 어린이집이 개소 수는 가장 많지만 규정된 이용 인원이 소규모인 특성으로 인해 이용하는 아동 수는 민간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66만 4,106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 이용 아동 수가 많은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각각 27만 3,399명과 23만 2,12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만 1~3세 아동의 숫자가 가장 많다. 전체적으로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연령별로 보아도 큰 차이가 없으나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 3세 아동은 가정 어린이집 이용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표 3-3〉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 아동 현황(2019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1,365,085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만 0세	126,216	10,437	3,054	1,201	38,021	70,941	135	2,427
만 1세	294,242	39,045	12,089	4,825	118,776	106,714	520	12,273
만 2세	376,041	55,437	20,294	8,201	181,612	94,096	931	15,470
만 3세	240,429	48,521	19,963	8,942	145,941	969	984	15,109
만 4세	173,715	40,932	15,392	7,530	97,141	341	825	11,554
만 5세	148,832	36,528	13,938	6,912	81,368	290	702	9,094
만6세이상	5,610	1,223	2,045	927	1,247	48	24	96

자료: 보건복지부. (2020c). 2019년 보육통계. p.100.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을 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63만 3,913명이며, 이 중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많다. 유치원 개소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더 많지만 이용 아동 수는 사립이 더 많다.

〈표 3-4〉 유치원 개소 수 및 유치원 이용 아동 현황(2019년 4월 1일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유치원 수	3	4,856	3,978	8,837
원아 수	275	177,055	456,583	633,913

자료: 통계청. (2020d).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교육기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conn_path=I2에서 2020. 8. 7. 인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별 현황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만4~5세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유치원 연령별 이용 아동 현황(2018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계	249	172,121	503,628	675,998
만 3세 이하	48	29,115	134,722	163,885
만 4세	86	56,116	175,642	231,844
만 5세	115	86,645	193,070	279,830
만 6세	-	244	192	436
만 7세 이상	-	1	2	3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교육통계연보. pp.44~45.

만 0~6세 아동 중 어느 정도가 시설을 이용한 돌봄 방식을 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 연도의 자료를 활용해 계산해보면, 2018년 만 0~6세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등록된 아동은 304만 4,577명이고, 2018년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1만 5,742명, 유치원 이용 아동은 67만 5,995명(만 7세 이상 3명 제외)으로 209만 1,737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등록에 등록된 0~6세 아동 중 약 68.7%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돌봄 방식 관련 특성

지금까지는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 아동의 기관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지만, 가족유형으로 구분해 돌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앞서 언급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사용 중인 돌봄 방법 1순위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현재 취학 전 아동 돌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방법은 어린이집 이용이다. 어린이집 중 가정 또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이 36.1%로 높고,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40.0%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다. 〈표 3-6〉의 ①~⑥을 더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인데, 전체적으로 70.0%로 나타나 행정자료에서 나타난 6세 이하 아동의 기관 이용 비율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자가 2인이면서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중에도 본인이나 남편이 돌본다는 비율이 13.4%로 생각보다 높았는데, 이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시간제 또는 직장의 여건상 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등 맞벌이 가족이라도 주 양육을 부모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이정원, 도남희, 2014).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각각 항목으로 보면 본인 또는 남편이 돌보는 경우가 36.1%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①~④까지 이용 비율을 더해 어린이집 이용 비율로 보면 43.1%로 가장 높아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어린이집 이용이 주요 돌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에서도 취학 전 아동 돌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양육자 2인 가족보다 돌봄 방식이 다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세부 분석에서 돌봄 방식은 모두 1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돌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보육 지원제도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어, 기관 이용과 가정양육 제도 이용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보면, 주로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보육료 지원)과 유치원 이용 시 지원(유아학비 지원) 같이 기관 이용 지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관의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이 되고, 그 외는 사설 기관을 다니더라도 가정 양육수당을 받게 되어 가정양육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이 정책 지원 기준을 활용해 가장 주된 돌봄 방식을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보육 및 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과 개인 및 가족, 기타 방식 이용으로 구분한다. 또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시설로 나눠 살펴본다. 표나 그림에 대한 분석 내용은 표 또는 그림에 앞서 기술한다.

〈표 3-6〉 양육자 수에 따른 영유아 양육 가족의 주된 돌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계	(명)
전체		8.8	36.1	1.4	2.9	5.0	15.8	1.2	0.1	25.6	1.6	0.5	0.1	0.2	0.4	0.0	0.2	100.0	(3,861)
양육자 2인	1인 경제활동	7.1	32.8	0.7	2.5	4.4	14.1	1.1	0.1	36.1	0.4	0.0	0.0	0.1	0.2	0.0	0.2	100.0	(2,064)
	2인 경제활동	10.6	40.0	2.2	3.3	5.7	17.9	1.4	0.1	13.4	3.2	1.1	0.2	0.3	0.5	0.0	0.2	100.0	(1,761)
양육자(여성) 1인		18.8	39.2	0.0	7.8	5.9	7.7	0.0	0.0	20.6	0.0	0.0	0.0	0.0	0.0	0.0	0.0	100.0	(36)

주: 1)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가정, 민간 어린이집, ③ 직장 어린이집, ④ 기타 어린이집, ⑤ 국공립 유치원, ⑥ 사립 유치원, ⑦ 반일제 이상 학원, ⑧ 기타 사설학원, ⑨ 본인 또는 남편, ⑩ 친정부모님, ⑪ 시부모님, ⑫ 기타 친인척, ⑬ 아이돌보미, ⑭ 출퇴근 베이비시터, ⑮ 입주 베이비시터, ⑯ 방문교육교사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전반적인 돌봄 방식을 살펴본 데 이어 지금부터는 가족의 조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방식을 알아본다. 우선,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1인 양육자와 2인 양육자 가족의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가족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양육자 가족 안에서의 다양성, 양육자 1인 가족 내에서의 다양성도 찾기 위해 양육자 수에 따라 섹션을 구분한다. 그리고 양육자 2인 가족, 양육자 1인 가족 내용에서 각각 돌봄 방식, 아동의 조부모 돌봄 지원 조건,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양육자 2인 가족

가.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지원은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즉 기관 이용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이용해 돌봄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 방식을 택한 곳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아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장 주된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의 명칭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비용이 그대로 아동 기관 이용에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이 하루 중 일정 시간 머무른다는 관점에서 양육 정책 중 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을 돌봄 방식 중

기관 및 서비스 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즉, 돌봄 방식을 기관 이용과 미이용으로 구분해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원 구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그 외는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기관을 이용하든 하지 않든 모두 쓸 수 있는 서비스로 가족 내에서 주된 돌봄 방식으로 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을 구분함에 있어 주된 돌봄이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인지, 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돌보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지(이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용으로 간주)로 구분해 살펴본다. 또한 최근에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설의 종류를 국공립과 민간시설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3-7〉에서 나타난 양육자 2인 가족의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 비율은 71.3%이고, 가족이 돌보거나 개인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8.7%로 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돌봄 및 양육에 있어 중요한 양육자의 조건은 경제활동 여부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족유형 구분 조건으로 양육자 수와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먼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을 살펴보았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이 가족/개인의 돌봄을 택한 비율은 2인 경제활동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여성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구조이기 쉬운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양육자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양육자의 조건 이외에 아동 돌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연령이다. 아동 연령은 사실 양육자의 조건보다 돌봄 방식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일 수 있다. 아동 연령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0~1세의 경우는 기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다. 가족이나 개인 돌봄의 형태로 구분되는 비율이 75.8%로 매우 높다. 0~1세는 매우 어린 연령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이 2~3세인 경우는 약 90% 정도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4세 이상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아동의 주된 돌봄이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돌봄의 또 다른 중요한 환경 중 하나는 아동이 어떠한 경제상태의 가족에서 생활하는가이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 특성 차이를 보기 위해 데이터의 가구수입 변수를 활용하였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데이터가 수집된 2018년도 한국의 전체 가구 소득 중앙값은 4,567만 원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 9,202원이다(통계청, 2020a[11]). 이 연구의 대상인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은 데이터 표본의 월평균 가구 소득의 중위값이 449만 원으로 전국 중위소득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 표본에 포함된 가족 수는 양육자 1인 또는 2인 중 2인이 다수이며, 양육 중인 총 아동 수가 1명 이상에서 5명까지 분포하지만, 1~2명이 가장 많이 분포해 가족 구성원 수가 3~4인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표본의 중위소득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소득수준 카테고리는 표본의 가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하위 30%와 소득 상위 30%를 구분한 후 나머지 그룹은 소득계층 중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

11) 통계청. (2020a).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에서 2020. 7. 22. 인출.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아동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양육자 2인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상대적으로 가족의 소득이 낮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양육자 1인은 가정돌봄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 영유아가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돌봄 방식의 차이를 보면, 2명 이상인 경우가 1명인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방식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 2명인 경우는 1명인 경우보다 아동끼리의 놀이시간 등으로 인해 '독박육아'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 1명이 아닌 가족은 오히려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할 수 있는 가족 내 돌봄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7〉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전체		15.1	56.2	28.7	100.0	(3,825)	
경제활동	1인	12.2	50.7	37.1	100.0	(2,064)	158.65**
	2인	18.5	62.7	18.9	100.0	(1,761)	
아동연령	0~1세	3.5	20.8	75.8	100.0	(1,262)	2116.69***
	2~3세	15.3	74.2	10.6	100.0	(1,238)	
	4세이상	25.9	73.4	0.7	100.0	(1,323)	
소득수준	상	17.1	57.7	25.2	100.0	(1,203)	24.83***
	중	14.6	57.7	27.7	100.0	(1,517)	
	하	13.5	52.7	33.8	100.0	(1,105)	
취학 전 아동 수	1명	16.7	60.4	22.9	100.0	(2,596)	134.82***
	2명이상	11.5	47.5	41.0	100.0	(1,23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지금부터는 위 표에서 활용한 조건, 즉 경제활동, 아동연령, 소득수준 및 아동 수 등을 이용해 조건을 조합해가면서 세부 분석을 한다.

먼저,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인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조건을 구분한 후 아이의 연령에 따라 가족 내 돌봄 방식 차이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 수가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 모두 막내 아이의 연령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표 3-8〉 참조).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아동 0~1세에 82.2%의 높은 비율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고, 2~3세에 15.3%, 4세 이상이 되면 0.8%로 급격히 하락한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0~1세에 64.4%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지만, 2~3세에 5.3%, 4세 이상은 0.6%로 매우 낮아진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은 아동 3세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2인 경제활동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4세 이상에서는 1인 및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낮은 특성을 보인다.

경제활동 조건을 구분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족 및 개인 서비스를 이용한 돌봄 방식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 1명의 양육자가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생각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대신 지원받는 것을 택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취학 전 아동이 가족 내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아동이 2명 이상이 때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내 돌봄을 담당할 양육자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영유아가 1명일 때보다 2명 이상이면

아동끼리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가 1대 1일 때보다 돌봄이 용이할 수 있다.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족에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가족 내 돌봄을 선택함으로써 기관 돌봄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취학 전 아동 분석에서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 중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을 보면,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보다 1명인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양육자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양육자 2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3명 이상이면 입소 우선순위에서 추가점수가 발생하는데(보건복지부, 2020a), 취학 전 아이 2명 이상에서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이 1명인 가족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 분석에서 사용한 문항이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현재 주된 돌봄 방식을 질문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국공립시설 특성상 가장 어린 아동까지 국공립시설에 입소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나,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가족/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양육자 1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입소 순위의 가산점이 덜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0a)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8〉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2.1	15.7	82.2	100.0	(804)	1208.92***
		2~3세	12.6	72.1	15.3	100.0	(653)	
		4세 이상	25.2	74.0	0.8	100.0	(608)	
	2인	0~1세	6.1	29.5	64.4	100.0	(461)	866.78***
		2~3세	18.2	76.5	5.3	100.0	(583)	
		4세 이상	26.7	72.8	0.6	100.0	(716)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12.3	60.0	27.0	100.0	(293)	17.72**
		중	13.2	48.4	38.4	100.0	(841)	
		하	11.3	49.6	39.1	100.0	(929)	
	2인	상	18.7	56.7	24.6	100.0	(910)	53.26***
		중	16.3	69.3	14.4	100.0	(675)	
		하	25.0	68.2	6.8	100.0	(176)	
경제활동 – 취학 전 아동 수	1인	1명	14.4	56.3	29.3	100.0	(1,334)	99.74***
		2명 이상	8.1	40.6	51.3	100.0	(729)	
	2인	1명	19.2	64.8	16.0	100.0	(1,261)	23.34***
		2명 이상	16.6	57.4	26.0	100.0	(50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 방식은 아동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보인다. 〈표 3-7〉에서 보듯이 돌봄 방식에 있어 아동 연령이 다른 조건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 기준에 이어 아동 연령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아동 연령과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0~1세와 2~3세 아동은 양육자의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주된 돌봄에 차이가 있었지만, 4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3세까지는 양육자 2인 경제

활동 가족의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낮아 차이를 보이지만, 4세 이상 아동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연령으로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표 3-9〉에 제시한 아동 연령과 소득수준 조건에 따른 돌봄 방식 차이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0~1세 아동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돌봄 방식이 달라지지만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돌봄 방식이 달라지는 않았다. 2~3세도 이러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4세 이상은 아동 연령과 양육자 경제활동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령으로, 4세 이상 아동의 경우 대부분 기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해도 기관 서비스의 집중도가 높아 통계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빈도로 보면 약 99%가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차이가 없다.

앞서 〈표 3-7〉에서 확인되듯, 소득수준만으로 돌봄 방식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이 중간이나 높은 그룹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 연령으로 그룹을 나눈 후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각 연령 그룹 안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돌봄 유형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돌봄 유형 차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돌봄 유형에 있어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실제로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활동이나 소득수준보다 매우 크며, 또 소득수준보다는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3-9〉에서 아동 돌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합된 아동 연령-경제활동 기준에서는 아동 0~1세와 2~3세 그룹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4세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동 연령-소득수준은

아동 연령의 영향이 소득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0〉에서 소득수준-아동 연령 조합에서 소득 그룹별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돌봄 방식에 있어 아동 연령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2.1	15.7	82.2	100.0	(803)	52.04***
		2인	6.1	29.5	64.4	100.0	(461)	
	2~3세	1인	12.6	72.1	15.3	100.0	(653)	36.30***
		2인	18.2	76.5	5.3	100.0	(584)	
	4세이상	1인	25.2	74.0	0.8	100.0	(608)	0.70
		2인	26.7	72.8	0.6	100.0	(716)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5.8	19.6	74.6	100.0	(362)	9.02
		중	3.4	20.8	75.8	100.0	(476)	
		하	1.9	21.6	76.5	100.0	(426)	
	2~3세	상	17.2	74.3	8.5	100.0	(366)	6.94
		중	15.7	74.1	10.2	100.0	(521)	
		하	12.5	74.1	13.4	100.0	(351)	
	4세이상	상	25.8	73.8	0.4	100.0	(477)	-
		중	23.7	75.1	1.2	100.0	(519)	
		하	29.6	69.8	0.6	100.0	(328)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으로 나눈 후 경제활동과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과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의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은 기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비율이

양육자 1인 경제활동이나 2인 경제활동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그룹과 낮은 그룹의 경우에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 즉 가족이나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 중 경제활동을 남성 혼자 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개인 돌봄을 하는 비율이 39.1%로 높았다. 반면,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아동은 6.8%만이 가족 및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양육자 모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가족의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예체능 학원 등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니는 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러한 형태의 사설 기관에 아동이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며 개인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다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다른 소득수준의 경제활동 2인 가족보다 아동이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것을 생각된다.

가족의 소득수준을 구분한 후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소득수준 그룹에서 0~1세 아동에 대한 가족 및 개인 돌봄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4세 이상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돌봄 방식에 있어 아동 연령의 큰 영향으로 인해 소득수준 자체만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영향이 있지만, 아동 연령-소득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소득수준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소득수준-경제활동	상	1인	12.3	60.8	27.0	100.0	(293)	6.41*
		2인	18.7	56.7	24.6	100.0	(910)	
	중	1인	13.2	48.4	38.4	100.0	(841)	109.00***
		2인	16.3	69.3	14.4	100.0	(675)	
	하	1인	11.3	49.6	39.1	100.0	(929)	75.65***
		2인	25.0	68.2	6.8	100.0	(176)	
소득수준-아동연령	상	0~1세	5.8	19.6	74.6	100.0	(362)	685.58***
		2~3세	17.2	74.3	8.5	100.0	(366)	
		4세 이상	25.8	73.7	0.4	100.0	(476)	
	중	0~1세	3.4	20.8	75.8	100.0	(476)	823.03***
		2~3세	15.7	74.1	10.2	100.0	(521)	
		4세 이상	23.7	75.1	1.2	100.0	(519)	
	하	0~1세	1.9	21.6	76.5	100.0	(426)	611.61***
		2~3세	12.5	74.1	13.4	100.0	(351)	
		4세 이상	29.6	69.8	0.6	100.0	(328)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나.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조건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 이유로 아이 조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 연구가 2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부모가 포함된 3세대 가족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 돌봄은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이기 때문에 조부모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족의 아동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양육자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게는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조부모의 돌봄이 있는 경우의 특성을 알아본다. 조부모 돌봄은 주된 돌봄이라고 응답한 경우일 수도 있고, 주된 돌봄 방법은 아니지만 2순위, 3순위 돌봄 방식이라고 응답한 경우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족이 조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10.3%이고, 89.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조부모보 돌봄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양육자 2인 경제활동의 가족의 경우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22.2%로, 1인 경제활동 가족의 7.4%보다 높아 차이가 나타난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은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약 3배 이상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 여부를 알아보면,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부모 돌봄 지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0~1세 아동의 경우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19.3%인데 반해, 4세 이상이 되면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8.3%로 줄어들어 아동 연령에 따른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조부모 돌봄 지원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은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22.5%인데 반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그룹은 8.0%로 차이를 보인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은 2인 경제활동 가족이 많기 때문에 조부모 돌봄이 더 필요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1〉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조부모 돌봄 지원		계	(명)	x^2
		없음	있음			
전체		89.7	10.3	100.0	(3,825)	
경제활동	1인	92.6	7.4	100.0	(2,065)	171.78***
	2인	77.8	22.2	100.0	(1,761)	
아동연령	0~1세	80.7	19.3	100.0	(1,262)	65.45***
	2~3세	84.7	15.3	100.0	(1,238)	
	4세 이상	91.7	8.3	100.0	(1,324)	
소득수준	상	77.5	22.5	100.0	(1,203)	109.10***
	중	87.9	12.1	100.0	(1,517)	
	하	92.0	8.0	100.0	(1,105)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먼저 알아보면, 〈표 3-12〉와 같다.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막내 아이 연령이 0~1세 일 때 조부모 돌봄 지원이 가장 많고 아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연령에 따라 조부모의 지원 여부에 차이가 있다. 특히 양육자 2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막내 아이가 0~1세인 경우에는 30% 이상이 조부모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게 조부모 돌봄은 매우 중요한 돌봄 지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1인 경제활동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 내 돌봄 자원이 있는 경우는 조부모의 돌봄을 대부분 받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수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족 내 돌봄 자원이 없는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차이가 나타난

다. 이는 조부모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인 경제활동으로 아동을 돌볼 주체가 필요할 때 조부모가 돌봐 줄 여건이 되면 가장 안전한 돌봄 주체로 생각되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대 간 경제수준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경제수준이 낮은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조부모의 여건이 돌봄을 지원할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또는 기관 서비스 이용이 돌봄 비용이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라도 돌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수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조부모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경향을 보였다.

〈표 3-12〉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구분			조부모 돌봄 지원		계	(명)	x^2
			없음	있음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87.4	12.6	100.0	(803)	55.113***
		2~3세	94.8	5.2	100.0	(654)	
		4세 이상	97.2	2.8	100.0	(608)	
	2인	0~1세	69.1	30.9	100.0	(460)	61.942***
		2~3세	73.3	26.7	100.0	(585)	
		4세 이상	87.0	13.0	100.0	(716)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94.2	5.8	100.0	(293)	1.22
		중	92.4	7.6	100.0	(842)	
		하	92.4	7.6	100.0	(929)	
	2인	상	72.0	28.0	100.0	(910)	41.44***
		중	82.2	17.8	100.0	(675)	
		하	90.3	7.9	100.0	(176)	
경제활동 – 취학 전 아동 수	1인	1명	93.6	6.4	100.0	(1,335)	5.47*
		2명 이상	90.8	9.2	100.0	(730)	
	2인	1명	79.1	20.9	100.0	(1,261)	4.13*
		2명 이상	74.6	25.4	100.0	(50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아동 연령을 구분한 뒤 각 조건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동 연령-경제활동 분석 결과, 모든 연령 그룹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조부모 돌봄 지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0~1세나 4세 이상의 연령그룹보다 2~3세 아동 양육 가족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조부모 돌봄 지원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아동 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 돌봄 지원에 대한 여부를 보면, 각 아동 연령 그룹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2~3세 그룹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과 낮은 그룹의 가족 사이에 조부모 돌봄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다른 연령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3-13〉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조부모 돌봄 지원		계	(명)	x^2
			없음	있음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87.4	12.6	100.0	(803)	62.98***
		2인	69.1	30.9	100.0	(461)	
	2~3세	1인	94.8	5.2	100.0	(653)	109.61***
		2인	73.3	26.7	100.0	(584)	
	4세 이상	1인	97.2	2.8	100.0	(608)	44.84***
		2인	87.0	13.0	100.0	(716)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72.9	27.1	100.0	(362)	22.13***
		중	82.1	17.9	100.0	(475)	
		하	85.9	14.1	100.0	(426)	
	2~3세	상	71.6	28.4	100.0	(366)	76.90***
		중	87.5	12.5	100.0	(521)	
		하	94.3	5.7	100.0	(351)	
	4세 이상	상	85.3	14.7	100.0	(476)	43.75***
		중	93.5	6.5	100.0	(520)	
		하	91.6	8.4	100.0	(328)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가족의 여러 조건에 따라 조부모의 돌봄 지원 여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조부모의 돌봄 여부는 가족의 아동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 구분 내에서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라 돌봄 방식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에게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는 아동 돌봄 방식에 차이를 가져왔다. 예상할 수 있듯이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가 가족이나 개인의 돌봄 방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는 가족 및 개인의 돌봄 방식 비율이 높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으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62.5%로 매우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조부모 돌봄이 있어도 시설 돌봄의 비율이 높은 2인 경제활동 가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가족이나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은 경향과 더해 조부모 돌봄이 있으면, 가족 돌봄을 한다 해도 흔히 말하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돌봄을 나누어 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그 비율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3-14〉 양육자 2인 가족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와 주된 아동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1인 경제 활동	조부모 돌봄 없음	12.6	52.4	35.0	100.0	(1,912)	45.51***
	조부모 돌봄 있음	7.2	30.3	62.5	100.0	(152)	
2인 경제 활동	조부모 돌봄 없음	19.6	65.5	15.0	100.0	(1,370)	61.23***
	조부모 돌봄 있음	14.6	52.9	32.5	100.0	(391)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다.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을 살펴보았는데, 가족 상황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들은 얼마나 현재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체로 만족에 대한 평가가 61.8%로 가장 많으며, 매우 불만족을 0점,

매우 만족을 4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 약 2.9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5	5.4	16.7	61.8	15.5	100.0	(3,825)	2.86	0.75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 만족도 평균을 활용해 돌봄 방식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돌봄 방식이 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민간시설 이용 방식이 2.83점,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은 2.86점으로 민간시설 돌봄을 이용하는 그룹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 경제활동과 2인 경제활동 그룹의 평균은 각각 2.87과 2.86으로 매우 비슷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의 돌봄 만족도를 알아보아도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연령 그룹 모두 2.85점 이상으로 평균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3-16〉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t
경제활동		1인	2.87	0.74	(2,064)	0.15
		2인	2.86	0.77	(1,761)	
아동 연령		0~1세	2.86	0.80	(1,262)	0.65
		2~3세	2.85	0.72	(1,238)	
		4세 이상	2.88	0.73	(1,324)	
돌봄 방식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3.00	0.75	(577)	11.38***
		민간시설	2.83	0.72	(2,151)	
	가족/개인 및 기타		2.86	0.81	(1,097)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먼저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으로 그룹을 나누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돌봄 방식 만족도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1인 경제활동 가족은 4세 이상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도가 높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은 0~1세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도가 약간씩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과 돌봄 방식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만족 점수가 민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경제활동의 경우는 국공립시설과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이용하는 가족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가족보다 돌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인 경제활동의 경우에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인 경

제활동 가족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형 사이에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3-17〉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2.82	0.82	(802)	2.52
		2~3세		2.87	0.67	(654)	
		4세 이상		2.91	0.70	(608)	
	2인	0~1세		2.93	0.77	(460)	2.53
		2~3세		2.82	0.78	(585)	
		4세 이상		2.85	0.75	(716)	
경제활동 – 돌봄방식	1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3.03	0.70	(252)	11.20***
			민간시설	2.87	0.68	(1,047)	
		가족/개인 및 기타		2.81	0.82	(765)	
	2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2.98	0.79	(325)	8.01***
			민간시설	2.80	0.75	(1,104)	
		가족/개인 및 기타		2.97	0.79	(332)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으로 나누면 아동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아동의 연령을 우선 기준으로 두고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그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아동이 0~1세인 가족의 경우에만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돌봄 만족도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아동 연령 그룹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연령과 돌봄 방식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확인해보면, 모든 연령 그

룹에서 국공립시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4세 이상 그룹은 국공립시설과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그룹으로 아동 연령 4세 이상에는 가족이나 개인의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아동 연령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2.82	0.82	(803)	4.81*
		2인		2.93	0.77	(460)	
	2~3세	1인		2.87	0.67	(653)	1.57
		2인		2.82	0.78	(585)	
	4세 이상	1인		2.91	0.70	(608)	2.16
		2인		2.85	0.75	(716)	
아동연령 - 돌봄방식	0-1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2.94	0.69	(44)	0.64
			민간시설	2.82	0.79	(262)	
		가족/개인 및 기타		2.87	0.81	(956)	
	2-3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2.95	0.77	(189)	2.28
			민간시설	2.83	0.70	(918)	
		가족/개인 및 기타		2.81	0.82	(131)	
	4세 이상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3.03	0.75	(343)	10.48***
			민간시설	2.83	0.72	(971)	
		가족/개인 및 기타		2.58	1.00	(9)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현재 어떠한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는 돌봄 만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봄 방식으로 먼저 구분한 후 분석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방식 기준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으로 분류해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기관 서비스 이용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의 경우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외의 민간시설 이용이나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한 가족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만족도 평균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및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현재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 평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돌봄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서의 만족 차이와 반대되는 경향임을 볼 수 있다.

〈표 3-19〉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돌봄 방식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돌봄방식 – 경제활동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 시설	1인	3.03	0.70	(252)	0.81
			2인	2.98	0.79	(325)	
		민간 시설	1인	2.87	0.68	(1,047)	2.29*
			2인	2.80	0.75	(1,104)	
	가족/개인 및 기타		1인	2.81	0.82	(756)	-3.04**
			2인	2.97	0.79	(332)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기관 돌봄 시간이 짧아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3%,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는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양육자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나누어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응답은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응답에 과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응답에서는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와 기관 돌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기관 돌봄 시간이 짧아서 응답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즉, 양육자 2인이 모두 일하는 가족의 경우 아이의 하원 시간과 양육자의 퇴근 시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도부터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실시해 온 맞춤형 돌봄을 폐지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시간 구분을 바꾸어 사업을 진행 중(보건복지부, 2020a)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족에 대한 차이가 변화하는지 이후 조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아동 연령별로 검토해보면, 0~1세 영유아는 양육자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라는 응답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의 돌봄 시간이 짧아서 불만인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4세 이상 그룹에서는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의 돌봄시간이 짧아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3세 아동 가족의 경우는 0~1세와 마찬가지로 양육자 돌봄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많기는 했지만, 0~1세보다는 그 비율이 낮았다. 또한, 2~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은 4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의 돌봄 불만족 이유와 비슷하게 시설의 돌봄 시간이 짧아

서라는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4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만족의 이유를 돌봄 방식에 따라 구분해보았다.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앞서 확인했듯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577명 중 26명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기관의 돌봄 시간이 짧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국공립시설을 이용 중인 가족 중 불만족 이유를 응답한 사례 수가 적어 비율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은 다른 돌봄 방식을 택한 가족보다 불만족의 이유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5.2%로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17.6%, 기관 돌봄 시간이 짧아서가 16.8%, 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는 14.3%,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는 13.4%,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은 12.6%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은 약 80%가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했고, 그 외에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는 10.1% 등으로 나타나 돌봄 방식에 따라 불만족 이유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0〉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설(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설(기관)의 돌봄 시간이 짧아서	(명)	x^2
전체		8.0	10.7	12.9	10.7	43.3	14.3	(224)	
경제 활동	1인	6.0	10.3	11.2	7.8	58.6	6.0	(116)	27.83 ***
	2인	9.3	11.2	15.0	14.0	27.1	23.4	(107)	
아동 연령	0~1세	1.2	10.6	9.4	5.9	72.9	0.0	(85)	67.46 ***
	2~3세	7.5	10.4	13.4	10.4	34.3	23.9	(67)	
	4세 이상	16.7	11.1	16.7	16.7	16.7	22.2	(72)	
돌봄 방식	보육·교육 기관 국공립	3.8	3.8	26.9	3.8	15.4	46.2	(26)	-
	보육·교육 기관 민간	14.3	12.6	13.4	17.6	25.2	16.8	(119)	
	가족/개인 및 기타	0.0	10.1	7.6	2.5	79.7	0.0	(79)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 양육자 1인 가족

좀 더 근본적인 가족유형에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성인 양육자가 1명인 가족과 2명인 가족유형의 돌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차 자료의 한계로 이 두 가족유형을 세부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차 자료에서 어느 정도 사례 수가 확보되어 비교가 가능한 경우는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이 여성 양육자의 가족인 경우와 양육자가 2명인 가족의 비교이다. 실제로 양육자가 1명인 가족 중 여성 양육자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2인인 가족과 비교해보면, 여성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 양육자의 사례 수가 적어 비율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3-21〉 양육자 1인 가족과 2인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전체	15.2	56.2	28.6	100.0	(3,861)
양육자(여성) 1인	25.0	55.6	19.4	100.0	(36)
양육자 2인	15.1	56.2	28.7	100.0	(3,82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가 2인인 경우와 1인인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를 활용했지만, 양육자가 1인인 경우에 대한 세부 파악은 사례 수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가 1명인 가족 내의 세부 조건을 고려한 돌봄 방식 파악이 가능한 정도의 사례 수가 확보된 자료가 필요하다. 앞서 활용 데이터에서 설명했듯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자료를 활용해 살펴본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에서 기관 이용 방식은 국공립과 민간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시설로 묶고 그 외 가족, 개인 서비스, 학원 등 가족/개인으로 묶어 돌봄 방식을 알아본다.

가.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취학 전 아동 돌봄 방식 1순위를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주된 돌봄이 조부모인 경우는 0.9%로 낮았다. 하지만 남성과 아이로 구성된 한부모의 경우는 조

부모 돌봄이 2.9%로 더 높다. 반면, 엄마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는 조부모가 주된 돌봄 방식인 경우가 0.5%로 낮아 남성 양육자 1인 가족은 주된 돌봄 방식으로 조부모를 비교적 많이 택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을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돌봄 방식 중 본인 돌봄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양육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외에는 본인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자가 일을 하는 경우 본인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양육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를 보면, 남성 양육자 가족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것이 주된 돌봄 방식인 경우가 전혀 없지만, 여성 양육자 가족은 9.7%에 이르러 양육자가 한 명인 가족의 양육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1순위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학습지/방문과외	본인 직접 돌봄	계	(명)
전체		66.2	23.4	0.9	0.9	0.4	0.0	8.2	100.0	(231)
양육자 경제활동	안함	62.0	11.3	0.0	0.0	0.0	0.0	26.8	100.0	(71)
	함	68.3	29.2	1.2	0.6	0.6	0.0	0.0	100.0	(161)
양육자 성별	여성	66.8	21.9	1.0	0.5	0.0	0.0	9.7	100.0	(196)
	남성	62.9	31.4	0.0	2.9	2.9	0.0	0.0	100.0	(35)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기관 돌봄 방식과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으로 그룹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특성상 양육자 2인 가족과 같이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에 대해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을 구분할 수는 없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로 묶고,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가족/개인 및 기타 돌봄 방식 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90%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양육자가 1인인 가족 양육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인 양육자가 일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된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다. 취업하지 않은 양육자 가족의 경우는 본인이 돌보는 경우가 많아 시설이용이 약 73%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낮아 취업한 양육자 가족과 아동 돌봄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남성 양육자 가족의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가족이나 개인 방식의 돌봄을 택한 경우가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에 따른 돌봄 방식을 보기 위해 연령을 구분해야 했는데,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연령을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 분석에서와 같이 0~1세, 2~3세, 4세 이상으로 구분할 경우 각 셀의 사례 수가 적어 0~3세와 4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아동 연령에 따른 돌봄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세 이상의 경우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93.5%로 0~3세의 80.6%보다 높았다.

〈표 3-23〉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방식(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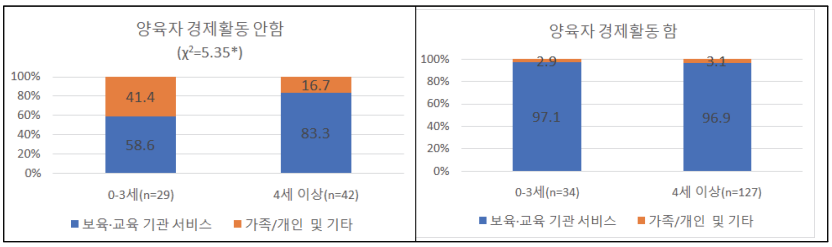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전체		89.7	10.3	100.0	(232)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72.9	27.1	100.0	(71)	30.28***
	함	96.9	3.1	100.0	(161)	
아동 연령	0~3세	80.6	19.4	100.0	(62)	8.35**
	4세 이상	93.5	6.5	100.0	(169)	
양육자 성별	여성	88.8	11.2	100.0	(197)	-
	남성	94.3	5.7	100.0	(35)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 가족의 영유아 돌봄 방식을 양육자 경제활동으로 나누어 아동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례 수로 인해 아동의 연령 기준은 0~3세와 4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 1인 가족은 아동 연령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3세까지도 기관 이용이 과반이기는 하지만, 40% 이상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4세 이상이 되면서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해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 1인 가족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에 사례 수가 매우 작아 차이 분석값 제시에 무리가 있으며, 빈도로 보더라도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림 3-1〕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1순위):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반대로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아동 연령 기준으로 그룹을 나눈 후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돌봄 방식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0~3세 아동의 경우는 가족이나 개인이 돌봄을 맡는 비율이 20.6%이지만 4세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이 현저히 줄어 6.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0~3세 아동의 경우는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 연령이 0~3세이면서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97.1%가 돌봄 방식으로 시설을 택하고 있어 어린 연령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0~3세 아동 중 1인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려 41.1%나 가족 및 개인 위주의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4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돌봄 방식이 차이가 크지 않고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4〉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방식(1순위):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아동연령 – 경제활동	0~3세	안 함	58.6	41.4	100.0	(29)	14.12***
		함	97.1	2.9	100.0	(34)	
	4세 이상	안 함	83.3	16.7	100.0	(42)	-
		함	96.9	3.1	100.0	(127)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 가족 중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모가족의 경우를 따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자 1인 가족 중에서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아동 양육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미혼모가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 양육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은 집단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자료를 혼합·활용하여 분석을 이어나간다.

양육자 1인 가족 중 미혼모가족의 특성을 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3분의 1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41.8%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영아기인 0~1세의 경우 양육자 2인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 내 양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비율은 4세 이상이 되면 10% 이하로 낮아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전체		23.0	49.3	29.6	100.0	(985)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16.5	41.7	41.8	100.0	(552)	94.98***
	함	31.4	54.5	14.4	100.0	(433)	
아동 연령	0~1세	10.5	33.2	56.3	100.0	(334)	202.53***
	2~3세	22.1	56.7	21.2	100.0	(349)	
	4세 이상	38.1	52.0	9.9	100.0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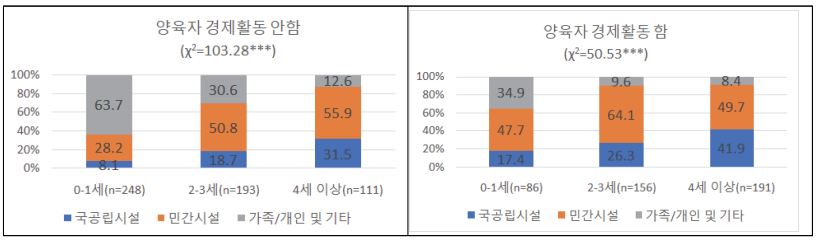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과 하지 않는 가족 모두 아동 연령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모든 연령에서 높았고, 특히 0~1세 연령 그룹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서는 민간시설 이용 비율이 높았고, 특히 2~3세 아동의 민간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과 하지 않는 가족 모두 아동 2~3세에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비율이 0~1세보다 확연히 감소하지만,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그 비율이 4세 이상 아동의 가족 및 개인 돌봄 비율만큼 크게 감소하여 양육자 경제활동 가족은 사실상 2세부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표 3-26〉에서는 양육자가 1인인 가족 중 미혼모 가족이 택한 실제 돌봄 방식을 아동 연령 기준으로도 살펴보았다. 0~1세와 2~3세 그룹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돌봄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4세 이상이 되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의 연령이 4세 이상이 되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대다수가 시설 돌봄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자 2인 가족의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0~1세와 2~3세 그룹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인지 2인 경제활동 가족인지에 따라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아동의 연령이 4세 이상이 되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양육자 2인 가족과 그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로 비교해보면 양육자 2인 가족과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차이를 보인다. 양육자가 2인인 가족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아동 연령 0~1세일 때 75.8%로 가장 높고 2~3세에는 10.6%, 4세 이상에는 0.7%로 급격히 낮아진다(〈표 3-7〉 참조). 하지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은 아동 연령 0~1세에는 56.3%, 2~3세에는 21.2%, 4세 이상에는 9.9%로 0~1세 그룹을 제외하고는 2인 양육자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하는 비율이

높다(〈표 3-25〉 참조). 아동 연령 4세 이상에는 대부분 시설 돌봄을 이용하는 2인 양육자 가족과 달리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 4세 이상 아동 중 시설 돌봄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약 10% 가까이 남아 있어 차이를 보인다.

〈표 3-2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안 함	8.1	28.2	63.7	100.0	(248)	22.05***
		함	17.4	47.7	34.9	100.0	(86)	
	2~3세	안 함	18.7	50.8	30.6	100.0	(193)	22.84***
		함	26.3	64.1	9.6	100.0	(156)	
	4세 이상	안 함	31.5	55.9	12.6	100.0	(111)	3.75
		함	41.9	49.7	8.4	100.0	(191)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나.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조건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돌봄 여부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부모 돌봄이 있는 비율은 16.8%로 나타났고,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조부모 돌봄 지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2.8%만이 조부모 돌봄을 받고 있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23.6%가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의 차이는 양육자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인 양육자 가족보다는 남성 1인 양육자 가족이 조부모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조부모 돌봄 지원		계	(명)	x^2
		없음	있음			
전체		83.2	16.8	100.0	(232)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97.2	2.8	100.0	(71)	14.92***
	함	76.4	23.6	100.0	(161)	
아동 연령	0~3세	82.3	17.7	100.0	(62)	0.05
	4세 이상	83.4	16.6	100.0	(169)	
양육자 성별	여성	85.8	14.2	100.0	(197)	6.298*
	남성	68.6	31.4	100.0	(35)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라 돌봄 시설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한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비율로만 보면, 조부모 돌봄 지원이 없는 그룹보다 있는 그룹의 기관 돌봄 이용 비율이 높아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조부모 돌봄이 없는 경우 기관 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표 3-14〉 참조)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표 3-28〉 양육자 1인 가족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른 주된 아동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조부모 돌봄 지원 없음	89.1	10.9	100.0	(192)
조부모 돌봄 지원 있음	94.9	5.1	100.0	(39)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다.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현재 택하고 있는 돌봄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 최선을 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이 돌봄 방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와 불만족에 대한 이유 등을 알아본다. 한부모가족 조사 자료와 미혼모가족 조사 자료 중 논의 내용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특성을 파악한다.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정도를 보면, 보통에 46.5%가 집중되어 있고, 29.4%는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은 14.5%, 매우 만족은 6.3%이며, 매우 불만족은 3.2%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82.2%로 나타났다.

〈표 3-2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명)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	14.5	46.5	29.4	6.3	100.0	(985)	1.79	0.88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 방식 만족 정도를 평균으로 보기 위해 매우 불만족을 0점으로 하고 매주 만족을 4점으로 코딩해 점수화하여 계산하였다.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경제활동으로 구분해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돌봄 방식에서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그룹의 평균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아동 연령 중에서는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

이 다른 연령대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4세 이상은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영아보다는 돌봄에 있어 주된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돌봄 방식에 적응하거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등의 이유로 인해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을 수 있다.

〈표 3-3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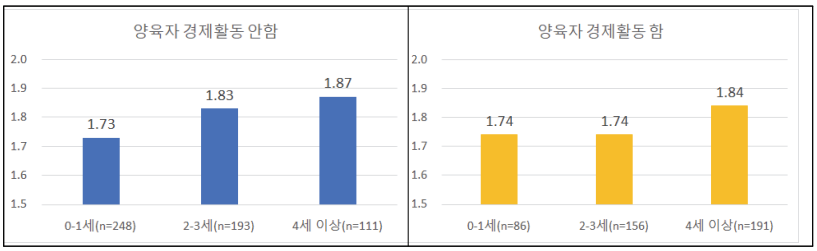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경제활동	안 함		1.79	0.89	(552)	0.01
	함		1.79	0.89	(433)	
아동 연령	0~1세		1.73	0.93	(334)	1.56
	2~3세		1.79	0.87	(349)	
	4세 이상		1.85	0.84	(302)	
돌봄 방식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1.75	0.81	(227)	0.78
		민간시설	1.78	0.89	(466)	
	가족/개인 및 기타		1.84	0.93	(292)	

주: 1)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돌봄 방식 중 양육자의 경제활동과 아동 연령 조건으로 만족도를 보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가족은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서는 아동 연령 3세까지는 만족도가 1.74점으로 같았으나, 4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3-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주: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를 아동 연령으로 구분한 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면, 각 연령별로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은 아동 돌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다.

아동 연령과 돌봄 방식을 조합해 살펴보아도 각 아동 연령 그룹에서 돌봄 방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족이나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한 경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4세 이상이 되었을 때 국공립시설 이용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혼자 양육하는 경우는 3세 이하까지의 아동은 개인이나 가족이 주로 돌보는 방식에 대해 만족하며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대한 만족 차이도 거의 없었다.

여성 혼자 양육하는 가족은 어린아이 돌봄을 혼자 완전히 담당하는 상황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고, 일을 하면 어린아이 돌봄 관리가 어렵게 되는 점 등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만족도 또한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아동 연령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안 함		1.73	0.91	(248)	-0.16
		함		1.74	1.00	(86)	
	2~3세	안 함		1.83	0.89	(193)	0.91
		함		1.74	0.84	(156)	
	4세 이상	안 함		1.87	0.82	(111)	0.31
		함		1.84	0.84	(191)	
아동연령 - 돌봄방식	0~1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1.63	0.81	(35)	0.57
			민간시설	1.69	1.03	(111)	
		가족/개인 및 기타		1.78	0.90	(188)	
	2~3세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1.68	0.80	(77)	2.68
			민간시설	1.76	0.84	(198)	
		가족/개인 및 기타		2.00	0.99	(74)	
	4세 이상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시설	1.83	0.82	(115)	0.11
			민간시설	1.73	0.83	(157)	
		가족/개인 및 기타		1.87	0.87	(530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돌봄 방식과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조합해 살펴보아도 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가족 중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3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 돌봄 방식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돌봄방식 - 경제활동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국공립 시설	안 함	1.68	0.76	(91)	0.92
			함	1.79	0.85	(136)	
		민간 시설	안 함	1.78	0.90	(230)	0.00
			함	1.78	0.87	(236)	
	가족/개인 및 기타		안 함	1.84	0.92	(231)	0.03
			함	1.82	0.96	(61)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만약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지 알아보면,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가 22.9%로 가장 많았다(〈표 3-33〉 참조). 그다음은 개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18.9%, 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는 12.0%로 나타났다. 즉, 비용 부담 측면으로 본다면 30.9%로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기관 돌봄 시간이 짧다는 이유도 8.0%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인이 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와 함께 시간 측면으로 본다면 30.9%로, 비용 부담 측면과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사이에서 어떤 것도 쉽게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는 전체에서 가장 높았던 응답 비율을 보인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가 31.3%로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그룹의 경우는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27.8%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두 번째로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다는 응답이 15.2%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엄마 스스로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문제이고, 가족 돌봄 자원이 부족한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가장 돌봄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동 연령에 따라 미혼모가족이 현재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0~3세까지는 미혼모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에 응답 비율이 높고, 4세 이상에서는 개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방식에 따라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다. 반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돌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가 높았으나 가족이나 개인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결국 돌봄 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1인 양육자(미혼모) 가족의 돌봄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서 경제활동 여부로 알아본 결과와 아동 연령별로 알아본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아동의 영아기에는 본인 혼자 24시간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돌봄 시간이 긴 것이 불만족의 이유이고, 아동의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4세 이상에는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만큼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3〉 양육자 1인 가족(미혼모)의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기관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 때문에	원하는 서비스를 구할 수 없어서	이용중인 서비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관의 돌봄 시간이 짧아서	기타	(명)/x^2	
전체		12.0	18.9	16.0	6.9	22.9	8.0	15.4	(175)	
경제 활동	안 함	11.5	11.5	16.7	5.2	31.3	5.2	18.8	(96)	x^2= 17.27 **
	함	12.7	27.8	15.2	8.9	12.7	11.4	11.4	(79)	
아동 연령	0~1세	7.7	17.3	19.2	5.8	28.8	7.7	13.5	(52)	
	2~3세	11.5	11.5	9.8	8.2	29.5	9.8	19.7	(61)	
	4세 이상	16.1	27.4	19.4	6.5	11.3	6.5	12.9	(62)	
돌봄 방식	보육·교육 기관 국공립	12.5	25.0	12.5	12.5	9.4	9.4	18.8	(32)	
	보육·교육 기관 민간	15.9	25.0	20.5	8.0	13.6	10.2	6.8	(88)	
	가족/개인 및 기타	5.5	5.5	10.9	1.8	45.5	3.6	27.3	(55)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직접적으로 불만족을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양육자가 1명인 가족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이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남성 양육자 가족은 이 응답에 1사례만 포함되어 있어 거의 여성 양육자 가족이었다. 양육자의 취업 여부로 나누어 보기에는 그 사례 수가 매우 작아 분석에 무리가 있다. 다만, 시설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비용이 부담이라는 응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없어서라는 이유의 선택지를 고른 경우는 없었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어 보육료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활동비나 통학버스 이용 등과 같이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양육자 가족의 사례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재 이 응답에 대해서는 여성 1인 양육자 가족의 응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표 3-34〉 양육자 1인 가족이 아동을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설/기관 이용 필요성 못 느낌	비용 부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아이를 하나하나 돌보아 주지 않아서	계	(명)
전체		66.7	28.6	0.0	4.8	100.0	(21)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64.7	29.4	0.0	5.9	100.0	(17)
	함	75.0	25.0	0.0	0.0	100.0	(4)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남성 양육자 가족은 1사례(시설/기관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낌에 응답)로 성별 구분을 하지 않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양육 비용 관련 특성

이 절에서는 취학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의 특성을 알아본다. 기관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드는 비용과 그 외 학원 등에 지출하는 사교육비, 그리고 돌봄을 도와주는 주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지출 및 그 외 양육에 드는 비용 등 주요 양육비에 대해 개별 항목으로 알아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유아 한 명에 드는 총 양육 비용을 살펴본다,

양육자 2인 가족 양육비 분석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양육 중인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각각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한 명에 대한 양육비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한 양육비는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데이터를 활용해 알아본다. 이 조사의 양육비 관련 데이터 설명은 양육자 1인 가족의 양육비 분석에서 소개한다.

양육자 2인과 1인 가족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기 전에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자료를 활용해 양육비 사용에 대한 경향을 파악한다. 사례 수의 한계로 양육자 2인 가족과 1인 가족의 양육비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는 분석한다. 단, 양육자 2인 가족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의 대상인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족 모두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한다. 즉, 해당 항목의 지출이 없는 가족도 분석에 포함한 결과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을 사용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전체 가족에 대한 양육비 분석 이후 이어지는 세부 분석에서 다룬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가족 대다수가 지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기본적인 이용료는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주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취학 전 가장 어린 아동 1인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수업비나 특별활동비로 사용되는 이용료를 보면, 3개월 평균으로 보았을 때 약 8만 원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지불하는 금액이 높았는데, 이 분석이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이용액은 아래 이어지는 양육자 2인 가족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에서 알아본다. 양육 비용은 3개월 월 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표 3-35〉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7.95	11.48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9.15	12.21	(1,761)	5.80***
	1인 경제활동	6.97	10.79	(2,064)	
양육자(여성) 1인		4.72	5.77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이외에 학원, 학습지나 과외비 등 사교육비에서는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약 6만 원으로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자 1인 가족은 매월 약 4만 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양육자 1인 가족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사교육비보다는 높은 4만 5,0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5.00	14.84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6.09	17.20	(1,761)	4.09***
	1인 경제활동	4.07	12.50	(2,064)	
양육자(여성) 1인		4.50	8.74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이의 돌봄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전체 평균이 약 6만 원이었고, 양육자 2인 가족 중 양육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11만 5,100원, 1인 경제활동 가족은 1만 1,5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은 돌봄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인 경제활동 가족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자가 1인인 가족은 평균 4만 6,300원의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5.91	23.20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11.51	31.14	(1,761)	13.23***
	1인 경제활동	1.15	11.28	(2,064)	
양육자(여성) 1인		4.63	13.32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이의 돌봄 비용 중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돌봄 비용만 들여다보면, 전체 평균이 약 4만 원이었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양육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8만 1,200원인 반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3,9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한 명만 하는 가족은 조부모로부터 아이 돌봄 지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부모에 대한 돌봄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38〉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중 아이 조부모 돌봄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3.95	17.01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8.12	24.07	(1,761)	13.31***
	1인 경제활동	0.39	4.07	(2,064)	
양육자(여성) 1인		4.37	13.31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옷이나 장난감, 분유나 기저귀 등 육아용품이나 용돈과 같은 기타 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우는 약 18만 원으로 다른 가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양육자 2인 가족 중에서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31만 2,100원, 1인 경제활동 가족은 29만 8,400원으로 기타 비용 사용에 있어서 가족별 차이를 보였다.

〈표 3-39〉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용돈 등)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30.35	18.27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31.21	19.62	(1,761)	2.29*
	1인 경제활동	29.84	17.04	(2,064)	
양육자(여성) 1인		18.03	10.38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양육비를 더해 취학 전 아동 1인에 대한 총 양육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 49만 2,400원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약 58만 원 정도를 사용해 가장 많은 비용을 취학 전 아동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은 40만 원대의 총 양육비를 사용하는 반면,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우는 약 32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형에 따라 가장 어린 아동에게 사용되는 총 양육 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40〉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49.24	37.66	(3,861)	
양육자 2인	2인 경제활동	57.96	46.01	(1,761)	12.80***
	1인 경제활동	42.04	26.73	(2,064)	
양육자(여성) 1인		31.88	21.47	(36)	

주: 1) *** p〈.001, ** p〈.01, * p〈.05
2) t값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과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차이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1. 양육자 2인 가족

앞서 언급하였듯이, 양육자 수나 가족 환경에 따른 분석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양육 비용은 3개월 평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정부의 아동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지원에 의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추가로 지불하는 특별활동비나 그 외 과외활동 등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일 것이다. 가장 어린 아동의 3개월 평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액 평균을 살펴보면, 13만 5,300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평균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평균 금액 차이를 보면, 0~1에는 5만 3,800원, 2~3세는 10만 900원, 4세 이상은 17만 6,600원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에 드는 비용도 높아졌다. 0~1세는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고 아동의 특별활동 등이 거의 없는 연령대인 만큼 이용 금액이 5만원 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나, 4세 이상이 되면 교육이나 예능 활동 등을 위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로 평균 금액도 높아져 약 18만원을 지출하여 차이를 볼 수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평균 16만 1,700원을 사용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경우는 10만 7,000원을 이용해 평균 약 6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1〉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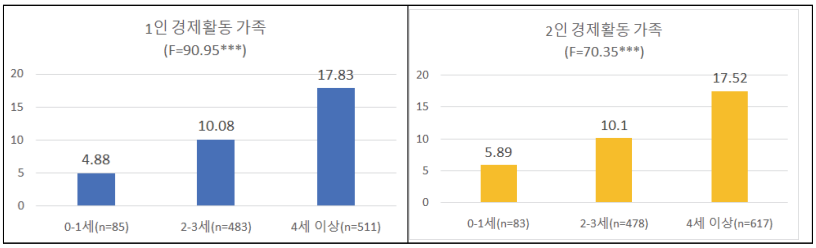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13.53	12.24	(2,255)	
경제활동	1인	13.35	11.75	(1,078)	0.67
	2인	13.69	12.68	(1,177)	
아동연령	0~1세	5.38	4.99	(167)	158.85***
	2~3세	10.09	9.17	(960)	
	4세 이상	17.66	13.69	(1,128)	
소득수준	상	16.17	16.07	(735)	37.14***
	중	13.26	10.46	(919)	
	하	10.70	7.93	(62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과 아동의 연령을 동시에 조건으로 넣어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각각에서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0~1세 아동은 특별활동 등과 같은 돌봄 이외의 활동이나 교육이 불가한 연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지출도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0~1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2~3세 아동에 대한 비용보다 낮고,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서 4~6세의 경우 그 비용도 더 증가하여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이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의 연령 기준 안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0~1세 아동의 경우 이용료 평균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은 4만 8,800원,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은 5만 8,900원으로 다른 연령대와 달리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를 만 원 정도 더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보면, 0~1세의 경우는 차이가 없었으나, 2~3세와 4세 이상은 차이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아동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용의 평균도 낮아지는 경향은 모든 아동 연령에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4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평균 20만 원 정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약 14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어 월평균 6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2〉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4.88	4.32	(85)	1.32
		2인	5.89	5.58	(83)	
	2~3세	1인	10.08	9.60	(483)	0.04
		2인	10.10	8.73	(478)	
	4세 이상	1인	17.83	12.62	(617)	-0.38
		2인	17.82	14.53	(511)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6.05	6.81	(42)	0.72
		중	5.42	3.40	(67)	
		하	4.84	5.01	(58)	
	2~3세	상	12.14	12.95	(285)	8.85***
		중	9.58	7.58	(410)	
		하	8.67	5.43	(265)	
	4세 이상	상	20.00	17.53	(407)	23.30***
		중	17.87	11.39	(442)	
		하	13.85	9.04	(279)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양육 비용은 가족의 소득수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경우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족의 경우는 1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19만 600원을 지불하고 2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15만 2,9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수준

이 중간인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1인 경제활동 가족이 14만 300원으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12만 5,600원보다 약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비용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많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경우에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많아 반대의 경향임을 볼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좋은 가족에서는 양육자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양육자가 아동의 양육이나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아동에게 특별활동이나 기타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킨다거나 그러한 활동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을 다니게 할 수 있는 정보나 시간 등을 확보해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4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19.06	17.89	(172)	2.49*
		2인	15.29	15.39	(563)	
	중	1인	14.03	11.21	(439)	2.12*
		2인	12.56	9.69	(480)	
	하	1인	10.61	7.98	(468)	-0.53
		2인	11.02	7.76	(134)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나.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사교육비가 드는지 알아보았다. 양육자가 2인인 가족에서 교육을 하는 가족은 취학 전 아동 1명에게 평균 15만 8,6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해보면,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사교육비 평균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에 따라 살펴본 사교육 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1세에는 사교육을 하는 비율이 많지 않을 시기로 평균 6만 3,700원을 사용하는 데 반해, 2~3세에는 11만 5,400원까지 상승하고 4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19만 2,700원으로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표준편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연령에 가까울수록 가족 사이의 사교육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1인당 드는 사교육비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아동 1명당 평균 21만 4,800원을 사용해 10만 원대를 사용하는 그 외의 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표 3-4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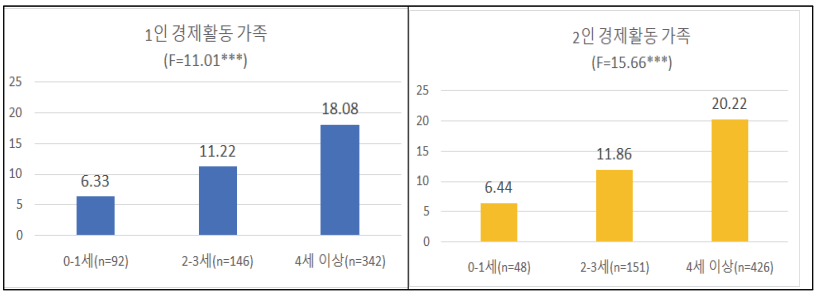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15.86	23.03	(1,206)	
경제활동	1인	14.49	20.14	(580)	2.00*
	2인	17.14	25.38	(626)	
아동연령	0~1세	6.37	5.84	(140)	26.58***
	2~3세	11.54	12.49	(297)	
	4세 이상	19.27	27.04	(768)	
소득수준	상	21.48	32.71	(491)	29.40***
	중	12.92	12.72	(470)	
	하	10.22	7.05	(244)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 그룹으로 나눈 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각 경제활동 그룹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아동이 4세 이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사교육비 차이가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이의 연령으로 구분하고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아이 연령 그룹 내에서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4세 이상 아동이면서 양육자 2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아동에게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과 소득수준은 아동 사교육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요인들이다. 이 둘을 조합해보면, 아동 연령 0~1세 그룹에서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별로 월 만 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아동이 2~3세부터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2~3세 아동은 14만 5,600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반면, 중간이나 낮은 소득수준인 가족의 2~3세 아동은 10만 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사용해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4세 이상 아동에서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취학 전 아동은 월평균 26만 1,700원의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4세 이상 아동은 11만 9,3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 아동 중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가족의

아동 다음으로 가족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2~3세 아동이 사교육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6.33	6.21	(92)	-0.10
		2인	6.44	5.11	(48)	
	2~3세	1인	11.22	14.41	(146)	0.44
		2인	11.86	10.34	(151)	
	4세 이상	1인	18.08	23.55	(342)	1.09
		2인	20.22	29.54	(426)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7.69	8.13	(46)	1.96
		중	6.01	4.30	(59)	
		하	5.25	4.06	(35)	
	2~3세	상	14.56	16.73	(125)	6.70**
		중	9.70	7.83	(117)	
		하	8.60	6.55	(55)	
	4세 이상	상	26.17	38.17	(320)	19.72***
		중	15.60	14.51	(293)	
		하	11.93	7.11	(155)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수준과 양육자 경제활동 상황을 함께 보면, 소득수준 자체에서는 앞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의 소득수준 그룹 내에서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25.35	36.31	(132)	-1.49
		2인	20.06	31.21	(358)	
	중	1인	12.03	11.02	(254)	1.64
		2인	13.96	14.43	(216)	
	하	1인	10.24	7.42	(193)	-0.08
		2인	10.15	5.50	(5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다. 돌봄 비용

아동 돌봄을 위해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평균 59만 9,300원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봄에 드는 비용을 양육자 경제활동으로 나누어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돌봄 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0~1세에는 67만 6,400원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4세 이상 평균은 42만 9,000원으로 낮아져 연령별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돌봄 비용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돌봄 비용으로 월평균 67만 2,400원을 사용하는 반면, 중간 그룹은 36만 300원, 낮은 그룹은 28만 100원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59.93	48.04	(398)	
경제활동	1인	50.79	56.08	(47)	0.81
	2인	57.75	46.89	(351)	
아동연령	0~1세	67.64	54.96	(149)	7.96***
	2~3세	54.83	43.39	(158)	
	4세 이상	42.90	39.08	(90)	
소득수준	상	67.24	52.71	(272)	36.69***
	중	36.03	24.37	(106)	
	하	28.01	22.4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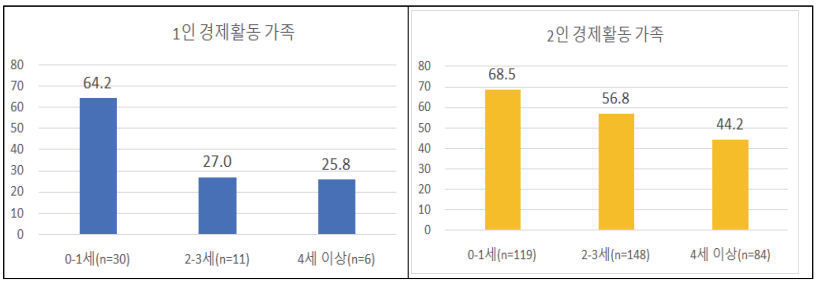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외에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가족은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 분석하기에는 그 사례 수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 분석에서는 셀별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빈도만 제시하고 차이검증 값은 제시하지 않는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으로 나눈 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돌봄 비용을 보면, 경제활동 1인 가족과 경제활동 2인 가족 모두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용을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은 0~1세와 2~3세 사이에 차이가 크고 2~3세와 4세 이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은 각 연령 그룹마다 점차 돌봄 비용이 감소하며, 4세 이상 그룹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만큼 0~1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아동 연령에 따라 양육자 경제활동별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동연령-경제활동 순으로 조건을 두어 돌봄 비용을 확인해보았다.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2~3세 아동의 경우에는 0~1세 아동의 경우보다는 차이가 있었는데, 양육자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서는 56만 8,100원을 사용하고 1인 가족에서는 27만 원을 사용했다. 4세 이상 아동 그룹에서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가 역시 더 많은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세부터 1인 경제활동 가족 사례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 연령으로 구분한 후 그 안에서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모든 연령 그룹에서 중간 그룹이나 낮은 그룹보다 눈에 띄게 높은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아동이 0~1세인 경우에서는 소득수준이 중간인 가족과 낮은 가족의 돌봄 비용이 차이를 보였지만, 2~3세와 4세 이상 아동 그룹에서는 그 차이가 0~1세 아동 그룹만큼 크지 않았다.

〈표 3-4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64.21	63.49	(30)
		2인	68.51	52.84	(119)
	2~3세	1인	27.00	27.97	(11)
		2인	56.81	43.67	(148)
	4세 이상	1인	25.80	27.85	(6)
		2인	44.15	39.62	(84)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84.66	61.42	(92)
		중	44.09	25.67	(46)
		하	25.14	16.98	(11)
	2~3세	상	65.68	45.83	(108)
		중	30.88	24.25	(43)
		하	34.80	31.72	(7)
	4세 이상	상	47.23	42.47	(71)
		중	26.97	11.92	(17)
		하	21.47	17.73	(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을 조합해 돌봄 비용을 알아보면, 소득수준이 중간인 가족과 낮은 가족은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보다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돌봄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양육자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월평균 돌봄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 중 경제활동을 1인만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제적 여유가 많은 가족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아이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구매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49〉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88.02	71.75	(19)
		2인	65.69	50.86	(253)
	중	1인	29.65	19.45	(17)
		2인	37.20	25.09	(90)
	하	1인	19.92	13.32	(11)
		2인	38.95	28.08	(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다-1. 돌봄 비용: 아이 조부모

아이 돌봄 비용 중 아이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따로 알아보았다. 아이 조부모에게 돌봄 비용을 주는 경우 월평균 48만 5,000원을 사용하고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2인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아이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경제활동 가족에 대해서는 사례 수가 적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은 평균 28만 6,200원을 아이 조부모에게 드리며, 2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50만 4,900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어린 아동을 돌봐줄수록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이 0~1세의 경우 53만 2,300원을 드리고, 4세 이상의 경우는 약 38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높은 그룹이 중간 그룹이나 낮은 그룹보다 조부모에게 돌봄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0〉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48.50	37.53	(312)	
경제활동	1인	28.62	20.29	(28)	4.93***
	2인	50.49	38.29	(283)	
아동연령	0~1세	53.23	38.53	(109)	3.59*
	2~3세	49.76	37.70	(137)	
	4세 이상	37.94	33.82	(65)	
소득수준	상	55.71	41.53	(201)	15.51***
	중	36.32	24.16	(93)	
	하	30.23	22.6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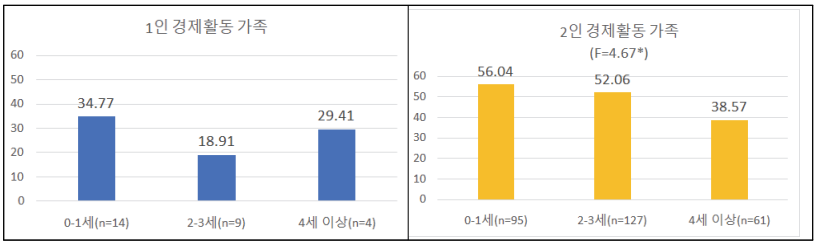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조부모 돌봄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 아동 연령당 해당 사례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 연령에 따른 조부모 돌봄 비용은 차이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1인 경제활동과 2인 경제활동은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경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전반적으로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비용 자체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2~3세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이 가장 낮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조부모 돌봄 비용이 점차 감소하며, 아동 연령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1인 경제활동과 2인 경제활동의 경향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 3-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경제활동-아동 연령

(단위: 만 원,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돌봄 비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체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1인 경제활동 가족은 그 사례 수가 매우 작았다. 하지만, 1인 경제활동과 2인 경제활동 가족이 아동 연령 그룹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기 위해 표로 확인해보았다. 차이 검증은 하지 않고 빈도만 제시하였다.

아동 연령과 경제활동 조건으로 보면, 모든 그룹에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비용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았다. 0~1세나 2~3세 아동이 있고 양육자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50만 원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모두 빈도가 낮아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을 중심으로 보면, 0~1세와 2~3세 아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돌봄 비용이 많았다. 0~1세 아동 돌봄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조부모에게 평균 61만 8,100원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2~3세 아동 역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59만 4,100원을 조부모에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34.77	19.31	(14)
		2인	56.04	39.98	(95)
	2~3세	1인	18.91	12.04	(9)
		2인	52.06	37.96	(127)
	4세 이상	1인	29.41	32.11	(4)
		2인	38.57	34.11	(61)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61.81	44.45	(63)
		중	44.88	25.23	(37)
		하	28.10	16.93	(9)
	2~3세	상	59.41	39.73	(89)
		중	31.49	24.54	(41)
		하	33.14	32.26	(7)
	4세 이상	상	41.17	38.09	(49)
		중	28.13	11.90	(15)
		하	30.00	0.00	(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고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그룹보다 조부모에게 아이 돌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그룹은 빈도가 낮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3-52〉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조부모 돌봄 비용: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32.37	27.15	(194)
		2인	56.56	41.76	(7)
	중	1인	30.39	21.08	(81)
		2인	37.24	24.60	(13)
	하	1인	23.08	12.76	(8)
		2인	37.64	28.78	(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라. 기타 비용

앞서 알아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 사교육비, 돌봄 비용을 제외하고 아이 옷이나 장난감, 분유, 기저귀 등 육아용품이나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이 기타 비용은 취학 전 아동 한 명에게 30만 5,2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보면,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기타 비용 평균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았다.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기타 비용으로 31만 2,800원을 지출하지만,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29만 8,700원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 보면, 0~1세 아동에게 37만 1,400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2~3세와 4세 이상은 각각 29만 300원, 25만 6,100원으로 0~1세 아동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기타 비용으로 35만 5,800원을 월평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인 그룹은 29만 2,600원,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은 26만 7,6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과 다른 가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3-5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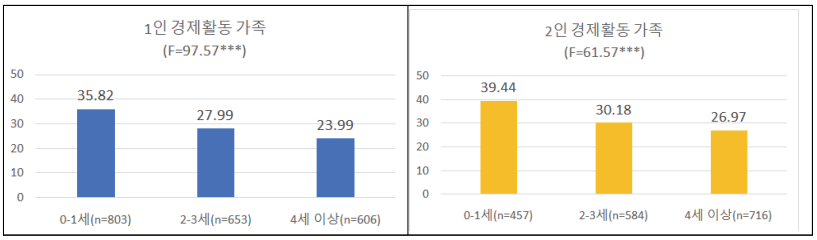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0.52	18.26	(3,819)	
경제활동	1인	29.87	17.03	(2,062)	12.82***
	2인	31.28	19.59	(1,757)	
아동연령	0~1세	37.14	18.15	(1,260)	140.90***
	2~3세	29.03	17.28	(1,237)	
	4세 이상	25.61	17.39	(1,322)	
소득수준	상	35.58	22.02	(1,201)	65.57***
	중	29.26	16.52	(1,514)	
	하	26.76	14.43	(1,103)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 1명당 기타 비용은 전반적으로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아동 연령마다 약간씩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 연령에 따른 비용 차이가 나타났고,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타 비용은 낮아지는 경향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반대로 아동 연령 그룹으로 나누고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면, 모든 아동 연령 그룹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기타 비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연령인 0~1세는 양육자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39만 4,400원이 들고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35만 8,2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 아동 그룹에서는 양육자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30만 1,800원의 기타 비용이 발생하고, 1인인 경우는 27만 9,900원으로 3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4세 이상의 경우 역시 경제활동을 2인 모두 하는 경우 약 3만 원 정도를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사용해 차이를 보인다.

아동 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을 조합해 기타 비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 그룹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령인 0~1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43만 1,000원을 사용해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 그룹 내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기타 비용도 낮아지는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그룹과 낮은 그룹 사이의 차이도 물론 있었지만,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중간이나 낮은 그룹보다 사용하는 기타 비용이 더 높은 경향도 일정하게 나타났다.

〈표 3-5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35.82	17.38	(803)	3.42**
		2인	39.44	19.23	(457)	
	2~3세	1인	27.99	15.16	(653)	2.20*
		2인	30.18	19.33	(584)	
	4세 이상	1인	24.00	15.95	(605)	3.11**
		2인	26.97	18.42	(716)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43.10	22.73	(359)	23.49***
		중	35.91	15.47	(475)	
		하	33.47	15.11	(425)	
	2~3세	상	34.56	22.32	(366)	26.51***
		중	27.93	14.96	(521)	
		하	24.86	12.35	(350)	
	4세 이상	상	30.67	19.63	(475)	46.24***
		중	24.48	17.00	(518)	
		하	20.07	11.63	(328)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고려해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타 비용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중간인 경우, 경제활동 2인 가족은 28만 600원의 기타 비용을 사용하고 경제활동 1인 가족은 30만 2,100원의 기타 비용을 사용하여 약 2만 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2인 하는 가족은 23만 200원, 경제활동 1인 가족은 27만 4,600원으로 약 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을 경제활동으로만 나누어보았을 때나 아동 연령과 경제활동으로 나누어보았을 때는 경제활동을 1인이 하는 가족보다 2인이 하는 가족이 더 많은 기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가족의 소득수준과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조합해보면 소득수준 중간인 그룹과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며 각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활동을 1인이 하는 가족이 2인이 하는 가족보다 더 많은 기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5〉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36.56	24.34	(293)	0.88
		2인	35.26	21.23	(908)	
	중	1인	30.21	15.59	(840)	2.52*
		2인	28.06	17.55	(675)	
	하	1인	27.46	14.76	(929)	4.35***
		2인	23.02	11.82	(174)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마. 총 양육비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을 모두 더해 아동당 총 양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아동 한 명에게 한 달에 49만 3,8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58만 원이 들고, 1인 경제활동 가족인 경우는 42만 400원의 양육비가 들어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총 양육비를 보면, 0~1세와 2~3세는 46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4세 이상은 54만 7,200원으로 높아져 아동 연령에 따른 총 양육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약 7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사용하며, 중간 그룹은 약 44만 원, 낮은 그룹은 약 35만 원을 사용해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가족과 낮은 가족 사이의 차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이 두 그룹의 가족과 보이는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3-56〉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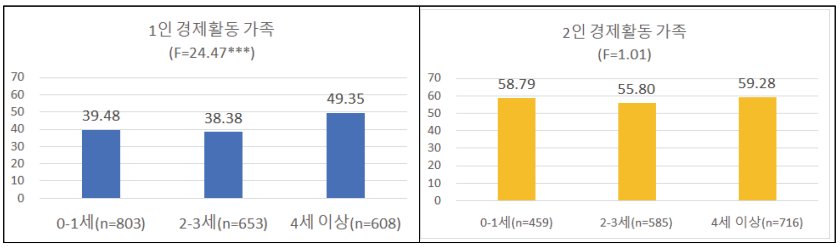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49.38	37.72	(3,824)	
경제활동	1인	42.04	26.72	(2,064)	12.83***
	2인	58.00	46.06	(1,760)	
아동연령	0~1세	46.50	35.39	(1,262)	18.83***
	2~3세	46.61	35.84	(1,238)	
	4세 이상	54.72	40.89	(1,324)	
소득수준	상	69.33	54.15	(1,204)	234.86***
	중	43.78	23.57	(1,516)	
	하	35.33	17.19	(1,104)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총 양육비를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 아동 연령 사이 차이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0~1세와 2~3세의 비용은 비슷하나 4세 이상에서 비용이 높아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2~3세 아동에게 가장 낮은 양육 비용이 들고 4세 이상 아동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으로 먼저 구분한 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총 양육비 차이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아동 연령 그룹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0~1세 아동을 양육 중이며 경제활동을 2인이 하는 가족은 58만 7,900원을 사용하고 1인 경제활동 가족은 39만 4,800원을 사용해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2인 경제활동 가족이 5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으로 1인 경제활동 가족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은 모든 아동 연령에서 나타났다.

아동 연령과 가족 소득수준 조건을 고려해보면, 모든 아동 연령 그룹에서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 차이에서 보았듯이, 모든 연령 그룹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중간 그룹이나 낮은 그룹과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으로 더 많은 양육비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4세 이상 그룹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경우 월평균 72만 4,800원의 양육비를 사용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은 37만 6,200원을 사용해 동일 연령 아동이라 해도 어떠한 소득수준의 가족에서 양육되고 있는지에 따라 어린 연령부터 투자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7〉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39.48	26.13	(803)	8.43***
		2인	58.79	44.90	(459)	
	2~3세	1인	38.38	21.62	(653)	8.50***
		2인	55.80	45.15	(585)	
	4세 이상	1인	49.35	30.79	(608)	4.59***
		2인	59.28	47.36	(716)	
아동연령 - 소득수준	0~1세	상	66.07	53.60	(361)	61.26***
		중	41.72	22.00	(475)	
		하	35.22	16.18	(425)	
	2~3세	상	68.44	52.59	(366)	77.82***
		중	40.23	20.82	(521)	
		하	33.34	16.66	(351)	
	4세 이상	상	72.48	55.72	(475)	89.95***
		중	49.22	26.43	(520)	
		하	37.62	18.74	(328)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수준과 양육자 경제활동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은 가족의 경우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양육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중간인 가족은 양육자가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총 양육비가 1인 경제활동보다 높아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경우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총 양육비가 7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58〉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총 양육 비용: 소득수준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소득수준 - 경제활동	상	1인	64.79	48.41	(293)	1.65
		2인	70.79	55.82	(910)	
	중	1인	41.67	19.93	(842)	3.78***
		2인	46.41	27.23	(675)	
	하	1인	35.18	16.72	(929)	0.69
		2인	36.16	19.56	(175)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 양육자 1인 가족

양육자 2인 가족의 취학 전 아동 양육비에 이어서 양육자 1인 가족의 양육비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항목과 유사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의 데이터를 활용해 알아본다. 양육자 2인 가족 양육비 분석에서 활용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의 데이터에서는 조사 설계가 아동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이 연구에서는 아동 한 명에 대한 양육비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양육자 1인 가족 분석에 사용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데이터는 아동 각각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미혼모가족이 각 항목에 쓰는 전체 비용을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아동이 2명인 경우는 2명에 대한 비용을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앞서 양육자 2인 가족은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양육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미혼모가

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응답 중 아동이 1명인 경우만을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해 양육자 2인 가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아동 1명에 대한 양육비를 분석한다. 또한, 미혼모가족의 전체 생활비 파악을 위해 구성된 여러 조사 항목 중 양육비와 관련된 항목 추출해 이용하기 때문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데이터를 이용한 양육자 2인 가족의 양육비 분석과 항목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조건별 상세 분석에서 사례 수가 적은 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차이 분석을 제외하였다. 또한, 세부 조건별 분석에서 아동 연령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면 사례 수가 낮아지는 그룹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 수 확보를 위해 아동 연령을 3세 미만과 3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만 분석하였다.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로 사용하는 금액은 월평균 12만 9,300원이다. 1인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경우가 13.83만 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의 11만 7,600원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별로 보면 0~1세가 가장 높은 금액인 15만 1,100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은 4~5세가 13만 7,800원 2~3세는 11만 4,100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아동이 다른 연령 아동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5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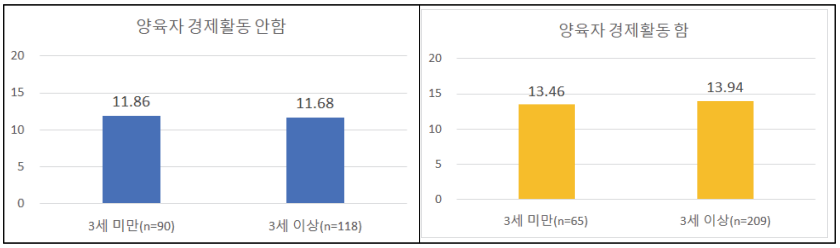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t
전체		12.93	10.83	(482)	
경제활동	안 함	11.76	10.74	(208)	-2.09*
	함	13.83	10.82	(274)	
아동 연령	0~1세	15.11	13.96	(57)	3.59*
	2~3세	11.41	10.61	(204)	
	4세 이상	13.78	9.94	(22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과 아동 연령 두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아동 연령 구분을 3세 미만과 3세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나누고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두 그룹 모두에서 아동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으로 구분한 후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알아보았다. 아동 3세 미만인 그룹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비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3세 이상 그룹에서는 여성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13만 9,400원을 사용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은 11만 6,800원을 사용해 차이를 보였다.

〈표 3-6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아동연령 – 경제활동	3세 미만	안 함	11.86	12.71	(90)	-0.81
		함	13.46	11.61	(65)	
	3세 이상	안 함	11.68	9.02	(118)	-2.05*
		함	13.94	10.60	(209)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나. 사교육비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취학 전 아동 1인에 대한 사교육비는 평균 13만 5,6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교육비는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3세 이하 아동은 사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율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3-6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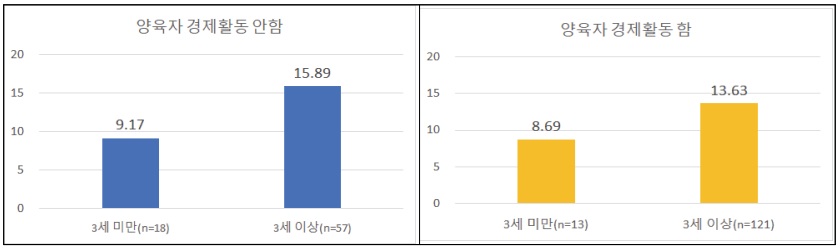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t
전체		13.56	13.11	(209)	
경제활동	안 함	14.28	15.33	(75)	0.60
	함	13.15	11.73	(134)	
아동 연령	0~1세	8.83	13.60	(12)	-
	2~3세	11.35	11.63	(57)	
	4세 이상	14.86	13.51	(140)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사교육비 사용을 경제활동 그룹으로 나눈 후 아동 연령에 따라 확인해보면, 3세 미만의 아동 그룹의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과 하지 않는 가족 모두 3세 이상 아동에게 3세 미만 아동보다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1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 기준으로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를 보면, 0~2세 그룹은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가족이 많지 않아 빈도만 제시하였다. 3세 이상 아동 그룹에 대해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경제활동을 안 하는 그룹이 하는 그룹보다 사교육비를 약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아동 사교육비에 대한 차이가 양육자 2인 가족에서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사교육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아동연령 – 경제활동	3세 미만	안 함	9.17	11.39	(18)	-
		함	8.69	6.24	(13)	
	3세 이상	안 함	15.90	16.13	(57)	1.05
		함	13.63	12.09	(12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다. 돌봄 비용

아동 돌봄에 사용되는 비용은 평균 19만 8,500원이었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아동을 누군가 대신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평균 돌봄 비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보다 높아 22만 6,400원으로 나타나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2~3세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이 22만 6,300원으로 다른 연령의 돌봄 비용보다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3-6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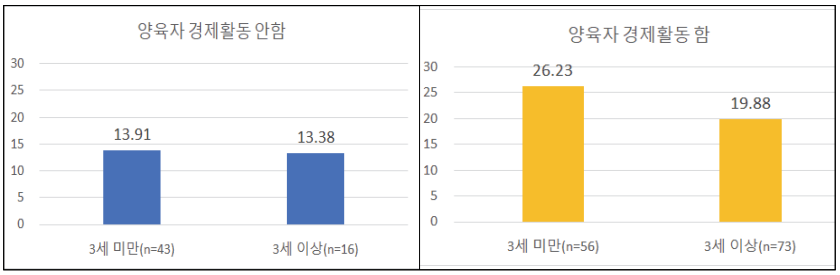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t
전체		19.85	19.85	(188)	
경제활동	안 함	13.76	17.28	(59)	-2.90**
	함	22.64	20.38	(129)	
아동 연령	0~1세	17.98	17.35	(55)	1.03
	2~3세	22.63	23.60	(67)	
	4세 이상	18.59	17.46	(66)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돌봄 비용을 경제활동-아동 연령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하지 않는 가족보다 모든 연령대에 대해 돌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은 돌봄 비용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다. 특히 3세 이상은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2]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으로 그룹을 먼저 나눈 후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아동이 0~2세인 경우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돌봄 비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0~2세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 1인 가족은 돌봄 비용으로 26만 2,300원을 사용하는 반면, 동일한 아동 연령대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13만 9,100원의 돌봄 비용이 발생해 0~2세 아동을 둔 양육자 1인 가족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돌봄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3~6세 아동 그룹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이 더 발생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6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아동연령 – 경제활동	3세 미만	안 함	13.91	15.68	(43)	-3.09**
		함	26.23	24.69	(56)	
	3세 이상	안 함	13.38	23.47	(16)	-1.35
		함	19.88	15.96	(73)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라. 기타 생활비

여성 1인 양육자 가족의 양육비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데이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기타 비용을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기타 생활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분유, 기저귀, 육아용품, 아이 옷, 장난감, 식료품비, 상담비, 병원비, 아이 용돈, 교통비, 통신비 등이다. 식료품비나 교통·통신비가 포함되어 있어 온전히 아동에 대

한 비용이라 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아동 1명을 양육 중이며 여성 양육자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기타 비용에 대한 대리 지표로 사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생활비는 전체 평균 47만 2,700원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별로는 여성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3만 800원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이 42만 700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3세와 4세 이상 그룹은 약 49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0~1세의 경우 약 44만 원으로 아동 연령 2세 이상인 그룹보다는 약간 낮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표 3-6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t
전체		47.27	32.83	(793)	
경제활동	안 함	42.07	27.00	(418)	-4.70***
	함	53.08	37.48	(375)	
아동 연령	0~1세	44.09	30.49	(245)	1.67
	2~3세	48.64	33.26	(292)	
	4세 이상	48.75	34.36	(256)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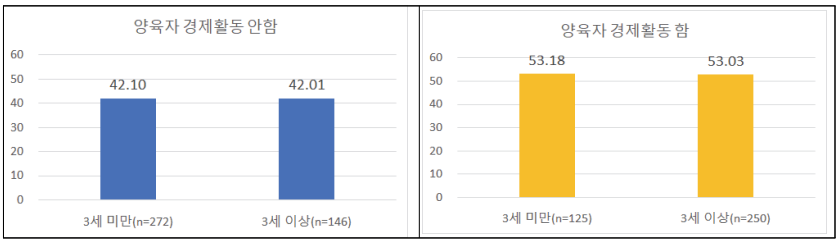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기타 생활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자인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그룹 모두 아동 연령에 따른 비용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하지 않는 가족보다 기타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기타 생활비는 아동 연령 그룹이 달라도 경

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은 모두 42만 원 정도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약 53만 원으로 기타 생활비용은 아동의 연령보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사용 비용 결정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경제활동 기준

(단위: 만 원,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아동 연령 조건에서 기타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연령-경제활동 순서의 조건을 활용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 연령으로 나눈 두 그룹 모두에서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0~2세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족보다 기타 생활비를 많이 사용하여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3~6세 아동의 가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은 아동 연령보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표 3-6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기타 생활 비용: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만 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아동연령 – 경제활동	3세 미만	안 함	42.10	28.65	(272)	-3.04**
		함	53.18	35.80	(125)	
	3세 이상	안 함	42.01	23.73	(146)	-3.53***
		함	53.03	38.36	(250)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양육 시간 관련 특성

이 절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족의 양육 시간 특성과 시간에 관련된 제도인 육아 휴직 관련 특성을 파악해본다. 앞서 돌봄 방식 및 서비스 관련 특성이나 양육 비용 관련 특성은 아동 한 명에 대한 돌봄 방식, 즉 가족의 아동 한 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아동 한 명에 대한 양육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가장 먼저 살펴보기는 했지만, 양육자 조건이나 가족 조건, 아동 조건 순서를 자유롭게 혼합해가며 분석했다.

돌봄 방식 및 서비스나 양육비 특성과 달리 이 절의 주제인 시간 특성은 아동 한 명에 대해 양육자가 사용하는 시간을 계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에 시간을 사용하는 주체인 양육자 중심의 시간 특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가정 내 양육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성별과 경제활동 여부를 중심에 두고 분석한다. 다만, 취학 전 아동 수나 가족에서 가장 어린

아동 연령 등을 활용해 가족마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양육자 2인 가족

가. 평일 양육 시간

취학 전 아동이 있는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은 여성의 경우 약 5.9시간으로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 평균은 약 6.9시간으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 평균인 약 4.7시간보다 길어 평일 양육 시간 평균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이 0~1세인 경우 약 8.4시간으로 양육 시간이 가장 길었다. 2~3세 아동인 경우는 약 5.2시간으로 줄어들고 4세 이상이 되면 약 4.2시간으로 감소해,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의 양육 시간이 2세 이상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경우는 여성의 양육 시간이 약 5.5시간으로 나타난 반면, 2명 이상인 가족은 약 6.6시간으로 취학 전 아동이 많은 가족의 양육 시간이 더 길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높은 그룹과 중간 그룹보다 낮은 그룹의 양육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남성의 평일 평균 양육 시간은 약 1.4시간으로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이나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양육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1인 경제활동: 약 1.3시간, 2인 경제활동: 약 1.4시간) 나타났다. 가장 어린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0~1세 아동이 있는 경우 약 1.7시간으로 가장 긴 양육 시간을 보였다. 남성 역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양육 시간이 1명인 경우보다 길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은 경제활동, 가장 어린 아동 연령, 취학 전 아동 수,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일 양육 시간에 차이가 있었고, 남성도 소득수준을 제외한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3-67〉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여성	전체		351.59	186.26	(3,801)	
	경제활동	1인	412.03	185.68	(2,051)	23.40***
		2인	280.76	160.19	(1,750)	
	아동 연령	0~1세	501.40	199.87	(1,244)	775.29***
		2~3세	309.11	137.78	(1,236)	
		4세 이상	250.21	106.59	(1,320)	
	취학 전 아동 수	1명	330.94	180.49	(2,578)	-9.86***
		2명 이상	395.16	190.74	(1,222)	
	경제 수준	상	315.16	180.62	(1,195)	48.02***
		중	351.72	182.02	(1,510)	
		하	391.25	190.19	(1,094)	
남성	전체		81.91	69.27	(3,820)	
	경제활동	1인	78.98	68.21	(2,062)	-2.84**
		2인	85.36	70.35	(1,758)	
	아동 연령	0~1세	99.77	78.14	(1,263)	71.17***
		2~3세	79.60	64.84	(1,237)	
		4세 이상	67.00	59.82	(1,320)	
	취학 전 아동 수	1명	78.47	66.45	(2,592)	-4.31***
		2명 이상	89.19	74.39	(1,227)	
	경제 수준	상	84.61	71.38	(1,202)	1.29
		중	80.76	69.28	(1,514)	
		하	80.57	66.88	(1,103)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경제활동과 가족 내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일 양육 시간을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이 가장 긴 양육 시간(약 9.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이지만 2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평균 6시간 이하의 양육 시간으로 1인 경제활동 가족 내에서 아동 연령에 따라 여성의 평일 양육 시간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2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보다 0~1세 아동이 있는 경우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은 2인 경제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의 남성은 약 1.6시간의 양육 시간을 보이며, 그 외 연령에서는 1시간 내외의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 가장 많은 양육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2인 경제활동 가족 중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인 경우로 평일 평균 양육 시간은 약 1.8시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보다 양육 시간이 긴 경향은 성별이나 경제활동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차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며 남성은 모두 2시간 미만의 양육 시간을 보였다.

〈표 3-68〉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1

(단위: 명,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여성	1인	0~1세	547.87	179.04	(792)	571.40***
			2~3세	364.47	137.91	(653)	
			4세 이상	285.83	109.00	(606)	
		2인	0~1세	420.11	208.45	(452)	184.53***
			2~3세	247.06	108.06	(583)	
			4세 이상	220.02	94.60	(715)	
	남성	1인	0~1세	96.06	76.96	(803)	44.07***
			2~3세	73.19	60.39	(653)	
			4세 이상	62.58	58.12	(606)	
		2인	0~1세	106.24	79.84	(460)	34.66***
			2~3세	86.76	68.84	(584)	
			4세 이상	70.75	61.01	(714)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가족의 취학 전 아동 수 조건으로 평일 양육 시간을 알아보면, 여성의 경우 1인 경제활동인 경우와 2인 경제활동인 경우 모두에서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가족과 2명 이상인 가족의 차이를 볼 수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이면서 가족 내 취학 전 아동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족의 여성이 약 7.6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양육 시간을 보였다. 동일하게 1인 경제활동 가족이지만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가족의 여성은 약 6.5시간으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족보다는 짧은 양육 시간이지만,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족보다 더 긴 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2인 가족의 경우에서도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족의 여성이 1명인 가족의 여성보다 더 긴 시간(약 5.1시간)을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 취학 전 아동 수에 따라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가족의 양육 시간이 약 1.2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2인 경제활동을 하며 취학 전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족의 남성이 가장 긴 양육 시간(약 1.6시간)을 보였다.

〈표 3-69〉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2

(단위: 명,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경제활동 - 취학 전 아동 수	여성	1인	1명	388.76	181.97	(1,326)	-7.79***
			2명 이상	454.34	184.96	(724)	
		2인	1명	269.69	157.28	(1,252)	-4.61***
			2명 이상	308.61	164.19	(498)	
	남성	1인	1명	74.82	64.22	(1,334)	-3.60***
			2명 이상	86.59	74.43	(728)	
		2인	1명	82.33	68.55	(1,259)	-2.87**
			2명 이상	93.00	74.23	(499)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과 가족의 소득수준으로 구분해 여성과 남성의 평일 양육 시간을 보면, 여성 중에서는 1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이 약 7.0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1인 경제활동 가족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여성은 약 6.4시간을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경제활동 조건에서도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여성의 양육 시간은 차이를 보였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에도 여성의 양육 시간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인 경제

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의 여성은 약 4.9시간의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약 4.3시간을 사용해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2인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의 여성 양육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반면,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 가장 짧은 양육 시간을 보인 그룹은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으로 평일 평균 양육 시간이 약 1.2시간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긴 양육 시간을 보인 그룹은 2인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약 1.5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차이만큼 크지 않았다.

〈표 3-70〉 양육자 2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3

(단위: 명,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소득수준	여성	1인	상	382.63	171.97	(293)	4.87**
			중	416.68	184.39	(839)	
			하	417.27	190.37	(918)	
		2인	상	293.29	178.01	(903)	7.36**
			중	270.52	142.14	(671)	
			하	255.59	118.15	(176)	
	남성	1인	상	69.80	65.89	(293)	3.24*
			중	79.61	70.35	(842)	
			하	81.32	66.82	(927)	
		2인	상	89.38	72.45	(909)	3.53*
			중	82.21	67.96	(673)	
			하	76.60	67.27	(176)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 시간은 양육자가 활용하는 시간으로 양육자 중심의 분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양육자가 아동을 위해 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동이 양육자에게 받는 양육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의 측면에서 양육 시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이 1명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분석해보았다.

여성 양육자의 경우는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자의 양육 시간이 감소하며, 3세 아동까지는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이 약 2시간을 더 할애하고, 4세 이상 아동에게는 약 1시간 이상 더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양육자의 경우에도 아동 연령 상승에 따라 양육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은 여성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가 남성의 양육 시간이 더 길었다. 하지만 모두 1~2시간 사이의 시간 양에서의 차이였다.

〈표 3-71〉 아동이 1명인 양육자 2인 가족 평일 양육 시간: 아동 연령 기준

(단위: 명, 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아동연령 – 경제활동	여성	0~1세	1인	561.77	172.97	(329)	7.25***
			2인	436.64	217.34	(228)	
		2~3세	1인	384.26	144.15	(244)	11.58***
			2인	249.28	110.53	(241)	
		4세 이상	1인	305.29	111.64	(168)	6.89***
			2인	232.48	96.74	(223)	
	남성	0~1세	1인	96.06	76.96	(803)	-2.23*
			2인	106.24	79.84	(460)	
		2~3세	1인	73.19	60.39	(653)	-3.67***
			2인	86.76	68.84	(584)	
		4세 이상	1인	62.58	58.12	(606)	-2.49*
			2인	70.75	61.01	(714)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나. 주말 양육 시간

주말 양육 시간 중 토요일 양육 시간은 여성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각각 약 7.4시간으로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여성의 주말 양육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은 8시간에 가까운 양육 시간을 주말에 사용하며,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은 7시간에 가까운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 내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의 양육 시간이 토요일은 약 8.7, 일요일은 약 8.6시간으로 다른 연령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보다 길었다. 2~3세는 약 7.3시간, 4세 이상은 약 6.3시간으로 주말 양육 시간이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이 1명일 때보다는 2명일 때 양육 시간이 길며,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토요일 평균 약 3.9시간, 일요일 평균 약 4.3시간으로 나타나 남성은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양육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보다 주말 양육 시간이 더 길었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여성 경향과 비슷하게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다. 취학 전 아동 수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1명보다는 2명 이상일 때 남성의 주말 양육 시간이 길었으며, 경제 수준은 여성과 반대로 경제 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짧아졌다.

〈표 3-72〉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편차	(명)	t/F	평균	표준편차	(명)	t/F
여성	전체		445.70	190.93	(3,805)		445.00	190.01	(3,804)	
	경제활동	1인	472.67	187.99	(2,054)	-9.55***	468.00	187.96	(2,053)	-8.15***
		2인	414.07	189.54	(1,751)		418.03	188.89	(1,751)	
	아동연령	0~1세	523.54	180.64	(1,248)	214.15***	518.18	182.50	(1,247)	189.42***
		2~3세	440.47	184.66	(1,236)		440.61	184.56	(1,236)	
		4세 이상	377.01	178.45	(1,320)		379.97	177.18	(1,320)	
	취학 전 아동 수	1명	435.53	196.01	(2,592)	-5.81***	433.51	191.95	(2,584)	-5.54***
		2명 이상	473.72	186.55	(1,226)		469.33	183.53	(1,220)	
	경제수준	상	430.42	184.33	(1,195)	7.21**	430.83	182.47	(1,195)	6.19**
		중	446.87	190.74	(1,511)		446.26	190.29	(1,511)	
		하	460.50	197.00	(1,098)		458.48	196.58	(1,097)	
남성	전체		234.76	169.02	(3,817)		255.00	173.66	(3,818)	
	경제활동	1인	225.61	166.43	(2,061)	3.63***	246.94	171.98	(2,061)	3.11**
		2인	245.49	171.44	(1,757)		264.45	175.19	(1,758)	
	아동연령	0~1세	264.15	176.87	(1,260)	36.54***	283.18	178.59	(1,261)	34.97***
		2~3세	234.17	164.84	(1,237)		256.55	172.30	(1,237)	
		4세 이상	207.26	160.46	(1,320)		226.63	165.59	(1,320)	
	취학 전 아동 수	1명	230.19	170.16	(2,591)	-2.43*	248.98	172.80	(2,592)	-3.12**
		2명 이상	244.43	166.26	(1,226)		267.73	174.86	(1,226)	
	경제수준	상	254.84	173.69	(1,200)	18.63***	276.04	178.00	(1,201)	19.31***
		중	235.37	167.58	(1,514)		255.47	171.60	(1,514)	
		하	212.01	163.11	(1,102)		231.25	168.71	(1,102)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을 경제활동과 가족 내 가장 어린 아동 연령을 조건으로 살펴보면, 각 조건의 그룹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 모든 구분에서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만큼 아동의 연령이 양육 시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이면서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인 가족의 여성이 주말에 약 9.0시간으로 가장 긴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1인 가족의 여성이 경제활동 2인 가족의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1인 경제활동 그룹보다 2인 경제활동 그룹의 주말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가장 긴 양육 시간을 보인 그룹은 2인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중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인 그룹이 약 5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1

(단위: 명, 분)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 편차	(명)	F	평균	표준 편차	(명)	F
경제활동-아동연령	여성	1인	0~1세	539.42	176.09	(795)	111.31***	531.05	178.66	(794)	104.66***
			2~3세	461.76	184.65	(653)		460.16	184.58	(653)	
			4세 이상	396.82	175.35	(606)		393.80	174.59	(606)	
		2인	0~1세	495.71	185.30	(453)	77.09***	495.65	187.12	(453)	67.90***
			2~3세	416.60	181.88	(583)		418.70	182.21	(583)	
			4세이상	360.21	179.46	(715)		368.24	178.63	(715)	
	남성	1인	0~1세	251.16	176.48	(802)	21.12***	271.19	176.16	(802)	21.11***
			2~3세	223.17	162.77	(653)		246.21	173.34	(653)	
			4세이상	194.41	150.59	(606)		215.62	159.62	(606)	
		2인	0~1세	286.86	175.46	(458)	22.98***	304.11	181.05	(459)	21.83***
			2~3세	246.47	166.41	(584)		268.11	170.54	(584)	
			4세이상	218.16	167.70	(715)		235.97	170.04	(715)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주말 양육 시간을 양육자의 경제활동과 취학 전 아동 수 조건으로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의 모든 그룹에서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가족보다는 2명 이상인 가족의 양육 시간이 긴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수가 1명인 가족의 여성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평균 약 7.6시간을 육아에 사용하며, 취학 전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가족의 여성은 토요일 약 8.4시간과 일요일 약 8.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의 주말 양육 시간은 아동이 2명 이상 있을 때가 1명 있을 때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취학 전 아동 수가 1명인 경우 토요일 약 3.6시간, 일요일 약 4.0시간을 사용하며, 취학 전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토요일 약 4.0시간, 일요일 약 4.4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은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남성의 육아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고 모두 4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에서는 2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일요일 육아시간이 약 4.6시간으로 길었다.

〈표 3-74〉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2

(단위: 명, 분)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 편차	(명)	t	평균	표준 편차	(명)	t
경제활동-취학전 아동 수	여성	1인	1명	457.24	190.36	(1,331)	-5.16***	453.98	189.83	(1,331)	-4.61***
			2명 이상	501.05	180.28	(723)		493.83	181.79	(722)	
		2인	1명	408.27	192.76	(1,253)	-2.09*	411.77	191.88	(1,253)	-2.20*
			2명 이상	428.68	180.53	(498)		433.79	180.38	(498)	
	남성	1인	1명	218.01	165.58	(1,334)	-2.81**	238.47	169.14	(1,334)	-3.03**
			2명 이상	239.54	167.19	(727)		262.47	176.12	(727)	
		2인	1명	243.10	174.01	(1,258)	-0.93	260.12	175.97	(1,259)	-1.65
			2명 이상	251.54	164.80	(499)		275.39	172.90	(499)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활동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을 보면, 여성의 경우는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이 중간 그룹이나 낮은 그룹보다 주말 양육 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여성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양육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여성의 토요일 양육 시간에서만 나타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에서는 약 7.1시간, 낮은 가족에서는 약 6.4시간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양육 시간이 모두 차이를 보였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은 소득수준이 중간인 경우 토요일 양육 시간이 약 4.0시간, 일요일 양육 시간이 약 4.3시간으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낮은 그룹보다 길었다. 그러나 2인 경

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남성의 양육 시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75〉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3

(단위: 명, 분)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 편차	(명)	F	평균	표준 편차	(명)	F
경제활동 – 소득수준	여성	1인	상	452.72	178.29	(293)	2.14	446.81	176.94	(293)	2.37
			중	477.28	182.33	(839)		471.07	183.66	(839)	
			하	474.55	195.65	(922)		471.69	194.80	(921)	
		2인	상	423.20	185.77	(903)	3.10*	425.65	184.03	(903)	2.82
			중	408.92	194.30	(672)		415.28	193.98	(672)	
			하	386.97	187.98	(176)		389.46	191.83	(176)	
	남성	1인	상	216.41	165.31	(293)	6.26**	248.75	177.13	(293)	5.71**
			중	241.13	171.11	(841)		260.97	174.27	(841)	
			하	214.28	161.52	(926)		233.39	167.23	(926)	
		2인	상	267.16	174.62	(907)	17.17***	284.83	177.48	(908)	14.80***
			중	228.17	162.90	(673)		248.60	168.09	(673)	
			하	200.06	171.25	(176)		219.97	176.34	(176)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다. 육아휴직

1) 여성 육아휴직

양육 시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로 육아휴직이 있다. 이 제도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육아휴직은 양육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도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출산 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당시에는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 가족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일 수도 있다.

가족 내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해 여성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체로 보면 여성이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0.5%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여성 육아휴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로 구분해 실제 사용 대상인 경우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육아휴직 사용 당시 종사상 지위로 구분해보면, 자영업자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는 사용한 비율이 68.7%이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사용한 비율이 11.3%로 차이를 보였다. 여성 중에서도 상용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이 집중되어 있어 임시직이나 일용직 여성의 경우 출산 후에도 바로 일을 하거나 양육 과정에서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76〉 종사상 지위에 따른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사용	미사용	계	(명)	x^2
전체		60.5	39.5	100.0	(1,182)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0.0	100.0	100.0	(97)	73.86***
	상용근로자	68.7	31.3	100.0	(1,032)	
	임시·일용근로자	11.3	88.7	100.0	(53)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x^2값은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 간의 분석값임.
4) '사용'은 사용했음과 사용 중, '미사용'은 사용하지 않음과 해당 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 직장근로자 아님)을 포함.
5) 출산 후까지 일을 하고 있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이어서 아동 연령과 소득수준으로 구분한 여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알아본다. 가족이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아동의 현재 연령별로 보면, 0~1세 아동인 경우 그 아동에 대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은 73.1%, 2~3세인 경우는 67.8%, 4세 이상인 경우는 56.8%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태어난 아동일수록 여성 양육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현재의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의 정보 부재로 분석하지 않는다.

〈표 3-77〉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사용 여부: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사용	미사용	계	(명)	x^2
전체		65.8	34.2	100.0	(1,085)	
아동 연령	0~1세	73.1	26.9	100.0	(364)	22.47***
	2~3세	67.8	32.2	100.0	(354)	
	4세 이상	56.8	43.2	100.0	(368)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사용'은 사용했음과 사용 중, '미사용'은 사용하지 않음과 해당 없음(회사에서 미제공, 자격요건 미충족, 직장근로자 아님)을 포함.
4) 출산 후까지 일을 하고 있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는 제외,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 남성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질문은 특정 아동에 대해 사용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을 기준으로 경험을 분석한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2.3%로 매우 낮은 수준

을 보였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대상 아동의 연령 대신 가족 내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인 경우 사용한 비율이 3.2%로 다른 연령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동 연령 그룹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것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이를 낳은 가족일수록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은 상승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에 취학 전 아동 수가 몇 명인지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 수가 1명보다는 2명 이상일 때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 경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표 3-78〉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x^2
전체		2.3	97.7	100.0	(3,724)	
경제 활동	1인	1.8	98.2	100.0	(1,998)	4.92*
	2인	2.9	97.1	100.0	(1,726)	
아동 연령	0~1세	3.2	96.8	100.0	(1,229)	7.02*
	2~3세	1.7	98.3	100.0	(1,208)	
	4세 이상	1.9	98.1	100.0	(1,285)	
취학 전 아동 수	1명	1.8	98.2	100.0	(2,522)	7.39**
	2명 이상	3.2	96.8	100.0	(1,201)	
경제 수준	상	3.2	96.8	100.0	(1,193)	9.44**
	중	2.3	97.7	100.0	(1,482)	
	하	1.2	98.8	100.0	(1,047)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 양육자 1인 가족

가. 평일 양육 시간

양육자 1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을 우선 한부모가족 조사 데이터로 살펴보면, 평일 약 4.2시간의 양육 시간을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1인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는 약 6.9시간의 양육 시간을 보이지만,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약 3시간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는 약 4.4시간, 남성인 경우는 약 2.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여성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남성보다 여성의 양육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79〉 양육자 1인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4.17	2.78	(231)	
경제활동	안 함	6.89	2.97	(70)	10.42***
	함	2.98	1.61	(161)	
성별	여성	4.41	2.89	(197)	5.06***
	남성	2.82	1.39	(35)	

주: *** p〈.001, ** p〈.01, * p〈.05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 가족 중 미혼모가족 자료를 활용해 가족 특성에 따른 평일 양육 시간을 알아보았다. 미혼모 1인 양육자는 자신의 양육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하루에 몇 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체감 24시간으로 응답한 경우들이다. 아동의 수면시간이나

본인의 수면시간 등을 고려해 한국 평균 수면시간인 약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 미만으로 양육 시간을 제한하였다. 16시간 이상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실제로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4시간 응답자가 많아 양육 시간이 과대추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수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양육 시간을 최대범위 16시간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은 평일에 평균 약 7.6시간 양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양육 시간이 약 8.5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약 6.9시간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 평일 양육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일하지 않는 양육자보다 양육 시간이 짧게 나타났지만, 일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육 시간이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 중인 아동 중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으로 구분해보면, 0~1세인 경우의 양육 시간이 약 8.9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2~3세의 경우는 약 7.9시간, 그리고 4세 이상이 되면 6.5시간 정도로 나타나 0~1세 아동을 둔 경우 다른 연령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과 비교해 매우 긴 양육 시간을 볼 수 있다.

양육 시간은 아동 한 명에 대한 양육 시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내 아동 수에 따른 차이를 함께 알아보았다. 취학 전 아동이 양육자의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여성이 많은 시간 양육에 할애하기는 하지만 남성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학한 아동에 대한 돌봄은 분산될 수 있는 등의 가능성으로 취학 전 아동의 수가 양육 시간을 살펴보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 수 조건을 활용했다. 하지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 대부분 아동이 1명인 경우가 많아 사례 수로 인해 취학 전 아동 수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내 전체 아동 수로 구분해보았다. 또한, 양육자 2인 가족과 달리 미혼모 1인 양육

자 가족은 모든 아동을 혼자 돌봐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취학 전 아동 수가 아니라 가족 내 아동 수 조건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1명인 미혼모 1인 가족은 약 7.6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사용하며,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가족은 약 7.8시간으로 나타나 아동 수에 따른 차이가 매우 적었다.

〈표 3-8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457.26	233.02	(683)	
경제활동	안 함	512.42	234.09	(308)	5.74***
	함	411.97	222.42	(375)	
아동 연령	0~1세	536.87	244.60	(164)	22.00***
	2~3세	474.48	227.67	(256)	
	4세 이상	390.86	212.11	(263)	
아동 수	1명	456.25	234.30	(612)	-0.33
	2명 이상	466.01	223.12	(7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은 경제활동, 아동 연령, 아동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다른 조건들에 따른 차이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과 아동 연령이 0~1세인 그룹의 양육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하였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이 0~1세인 미혼모 1인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약 9.4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아동 연령 중 가장 짧은 양육 시간을 보이는 4세 이상이 되어도 양육 시간이 약 7시간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는 아동이 2세 이상 되면서부터는 6~7시간 정도

의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아동 수에 따라 양육 시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아동 수 조건으로 함께 구분해본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8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평일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안 함	0~1세	563.20	251.58	(102)	13.26***
		2~3세	536.55	232.46	(121)	
		4세 이상	417.12	183.87	(85)	
	함	0~1세	493.57	228.04	(62)	6.46**
		2~3세	418.84	208.92	(135)	
		4세 이상	378.33	223.74	(178)	
경제활동 – 아동 수	안 함	1명	514.95	237.83	(268)	0.54
		2명 이상	495.43	209.20	(40)	
	함	1명	410.52	221.28	(344)	-0.42
		2명 이상	428.07	237.94	(3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나. 주말 양육 시간

양육자 1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을 한부모가족 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보면, 토요일은 약 6.2시간, 일요일은 약 6.8시간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로 보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양육 시간은 주말 8시간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길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 시간이 평균적으로 길었으나 일요일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82〉 양육자 1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편차	(명)	t	평균	표준편차	(명)	t
전체		6.17	3.23	(231)		6.79	2.92	(231)	
경제활동	안 함	8.18	2.73	(70)	6.84***	8.07	2.70	(70)	4.60***
	함	5.30	3.03	(161)		6.22	2.84	(161)	
성별	여성	6.50	3.18	(197)	4.01***	6.93	2.95	(197)	1.81
	남성	4.34	2.88	(35)		5.96	2.65	(35)	

주: *** p〈.001, ** p〈.01, * p〈.05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토요일 양육 시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약 11.4시간)가 하는 경우(약 10.3시간)보다 더 길어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수에 따라서는 1명인 경우 약 10.7시간이며 2명 이상인 가족에서는 약 12.2시간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일요일 양육 시간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는데, 0~1세 아동보다 2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아동은 약 10.6시간, 2~3세 아동은 11.8시간, 4세 이상은 11.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3-83〉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편차	(명)	t/F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650.32	219.13	(371)		681.80	208.99	(336)	
경제활동	안 함	684.29	222.67	(179)	2.91**	691.77	220.57	(179)	0.93
	함	618.65	211.47	(192)		670.43	195.02	(157)	
아동 연령	0~1세	618.69	248.44	(104)	1.78	637.04	245.23	(95)	3.17*
	2~3세	673.27	184.62	(135)		710.91	170.41	(126)	
	4세 이상	651.77	225.58	(132)		686.88	210.44	(115)	
아동 수	1명	641.48	221.64	(335)	-2.87**	678.09	211.18	(300)	-0.94
	2명 이상	732.56	176.37	(36)		712.72	189.57	(36)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아동 연령 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말 양육 시간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전반적으로 0~1세는 약 10시간, 2세 이상은 약 12시간으로 0~1세보다 2세 이상 아동이 있는 경우 양육 시간이 더 긴 특징을 보인다.

경제활동 기준에 아동 수에 따른 주말 양육 시간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 모두에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가 1명인 경우보다 양육 시간이 길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토요일 양육 시간이 약 12.7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 경제활동 기준

(단위: 분, 명)

구분			토요일				일요일			
			평균	표준 편차	(명)	F	평균	표준 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안 함	0~1세	614.21	262.96	(70)	5.12**	616.90	261.59	(68)	5.82**
		2~3세	727.08	176.84	(62)		729.14	179.88	(65)	
		4세 이상	732.21	185.39	(47)		749.65	175.03	(46)	
	함	0~1세	627.91	218.94	(34)	0.21	687.78	193.25	(27)	1.00
		2~3세	627.56	179.80	(73)		691.49	158.87	(61)	
		4세 이상	607.28	234.33	(85)		645.03	222.55	(69)	
경제활동 - 아동 수	안 함	1명	678.07	227.92	(153)	-	686.61	225.94	(154)	-
		2명 이상	720.92	188.51	(26)		723.56	184.87	(25)	
	함	1명	610.73	212.00	(182)	-	669.10	194.78	(146)	-
		2명 이상	762.80	144.37	(10)		688.09	206.88	(11)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소결

1. 돌봄 방식

돌봄 방식은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을 돌보는 주된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가족유형을 구분할 때 가장 큰 조건은 양육자 수이다. 따라서, 양육자 1인 가족과 양육자 2인 가족을 구분해 따로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소득수준, 아동 연령 등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돌봄 방식은 아동의 기준에서 보고자 아동 연령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양육자의 조건이나 가족의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양육자 2인 가족에서 보면, 아동이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주로 이

용하지만, 아동 연령-양육자 경제활동으로 구분해보면, 4세 이상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 이용으로 집중되어 있어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2~3세도 많은 아동이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0~1세 아동은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이 더 우세했는데, 1인 경제활동 가족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인 경제활동 가족도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0~1세 아동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으로 돌보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경제활동에 따른 아동 돌봄 방식은 소득수준의 각 그룹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방식의 돌봄을 더 많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이 차이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1인 경제활동 가족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높아지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은 반대로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인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선택 비율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는 3세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득수준-경제활동에서도 돌봄 방식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아동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아동의 연령 중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가 돌봄 방식 차이에 가장 중요 조건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

용 또한 유아학비로 기관 서비스 이용이 지원되고 있어 아동 각 연령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아동이 0~1세가 지나면 대부분 기관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2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양육 특성을 보고 있어서 아동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부모는 현대 사회에 일하는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돌봄 지원군이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따로 살펴보았다. 아동 연령이 0~3세일 때, 2인 경제활동 가족일 때 조부모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아동이 0~1세일 때 양육자 2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을 가장 많이 받고, 소득수준-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2인 경제활동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이 조부모 돌봄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인 경우가 조부모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돌봄 방식 만족도는 기관 서비스 이용 가족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양육자였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른 분석에서 0~1세 연령 그룹 내에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모두 있어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연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가 가장 높고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가장 낮았다.

양육자 1인 가족 또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돌봄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3세 이하 아동보다 4세 이상 아동이 기관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으며,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 서비스 이용이 더 많다. 남성 양육자 가족보다는 여성 양육자 가족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이 3세 이하일 때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의 차이가 이었다. 아동 연령이 3세 이하이면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도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 서비스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양육자 2인 가족의 결과에서와 같이 아동이 0~1세, 2~3세인 경우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돌봄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4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기관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양육자 2인 가족의 10%보다 약간 높은 약 17%였는데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양육 가족이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 2인 경제활동 가족에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던 것과 같이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양육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1인 양육자 가족이 아동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여성 양육자 가족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조부모 돌봄 지원이 없는 가족보다 있는 가족의 기관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부모 돌봄이 없는 가족의 기관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자 2인 가족과 다른 경향이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은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아동 연령이나 돌봄 방식,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 4세 이상 아동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아동이 성장해 4세 이상이 되면 3세 이하 영아보다는 주된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2~3세를 거치면서 현재 돌봄 방식에 적응하거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등의 과정을 거친 연령으로 더 어린 연령대의 아동을 돌보는 방식보다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이 약간 높아 보이기는 했으나,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만족은 가족의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혼자 아동을 돌보는 가족,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돌봄을 혼자 완전히 담당하며 육아의 어려움을 모두 감당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 어린아이 돌봄 및 관리가 어렵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양육자 2인 가족보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이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에 대한 이유가 양분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양육자 1인이 자신의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확보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아동의 영아기에는 본인 혼자 '독박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돌

봄 시간이 긴 것이 불만족의 이유이고, 아동의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4세 이상에는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신이 경제활동 하는 시간만큼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육 비용

양육 비용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가족의 총 소비가 아닌 아동 1명에 대해 사용하는 비용 위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해당 비용 항목을 사용하는 가족과 사용하지 않는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총 비용을 본 결과에서는 대부분 양육자 1인 가족보다는 양육자 2인 가족이 아동 1명당 사용하는 비용이 항목별로 높고 결과적으로 총 양육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자 2인 가족 내에서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비용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1인 양육자 가족 순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이 적게 나타났는데, 돌봄 비용에서는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1인 양육자 가족의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양육자 2인 가족의 1인 경제활동과 여성 양육자 1인 가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양육비를 사용하는 가족으로 한정해 양육자 2인 가족 내의 여러 조건에 따른 양육 비용을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을 소득수준-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보면,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비용이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족은 양육자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가 아동 돌봄, 교육 등 아동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과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아동에게 특별활동이나 기타 교육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주거나 관련 정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러한 활동이 만족스러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이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비나 특별활동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 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보면, 0~1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2~3세와 4세 이상 아동 그룹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비용이 많아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위한 비용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가족 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의 차이로 인해 아동 1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반드시 활동이나 교육의 다양성이나 질 등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투입 비용은 아동이 접하는 활동 및 교육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의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는 매우 어린 아동기부터 기회의 차이를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한 시점에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약 2세부터 나타나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4세 이상부터, 또는 그 이후로,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도록 미루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어쩌면 이러한 차이가 0~1세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가족만 대상으로 알아본 사교육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뚜렷했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아동 1명에 대해 많은 사교육비를 사용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 0~1세에는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연령대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2~3세와 4세 이상 아동 연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돌봄에 사용하는 비용은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타 아동에게 드는 양육비는 아동 연령이 낮고,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과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양육 비용을 더한 총 양육비에서는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아동 1명에 대해 드는 양육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각 연령대별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에 사는 아동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양육 비용의 차이를 보여 각각의 항목에서 조금씩 벌어지는 차이는 총 양육비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양육 비용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3세 이상이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더 높

게 나타났고, 아동 연령 0~2세이면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아동 돌봄 비용을 약 2배 더 사용했다. 정리하면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동이 어릴 때는 돌봄 비용이 많이 들고,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3. 양육 시간

양육 시간은 아동 1명에 대한 시간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없어 양육자의 시간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평일을 기준으로 양육자 2인 가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육 시간을 보여 여전히 가정 내 시간 중 아동 양육은 여성 양육자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양육 시간은 경제활동 여부, 가장 어린 아동 연령, 취학 전 아동 수,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양육 시간은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 가장 어린 아동 연령, 취학 전 아동 수에 따라 양육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양육자가 일하는 경우, 아동 연령이 어린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다른 양상이 보이기도 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주말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되지 않는 시간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 차이가 평일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여러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주말에도 경제활동 2인 가족의 남성이 경제활동 1인 가족의

남성보다 더 많은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에서 양육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이 1명인 가족을 대상으로 평일 양육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 연령과 경제활동에 따른 양육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향은 비슷했다.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감소하는데, 아동 연령 3세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이 2인 경제활동 가족과 비교해 약 2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세 이상 아동에게는 평균 약 1시간 이상 더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 육아 시간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보다 길고 모두 2시간 미만 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양육자가 돌봐주는 시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남성 양육자가 양육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 차이를 보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남성 양육자의 시간 차이이다. 그러므로 아동 입장에서는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양육자와의 시간에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육아기 시간과 관련된 정책인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성의 휴직 사용보다 보편화된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 양육 중인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더 어린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의 사용 경험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양상이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

률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여성과 같이 최근에 아이를 낳은 가족일수록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연령이 낮을수록, 2인 양육자 가족일수록, 아동 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 경험자가 많지 않아 세부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육 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남성 양육자보다 여성 양육자의 경우에 양육 시간이 더 길었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양육 시간이 매우 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미혼모 1인 양육자는 평균 약 7.6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이 6.9시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인 8.5시간보다 짧기는 하지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자 평일 양육 시간이 약 5.9시간인 점과 비교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이 약 2.7시간 더 길다.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약 4.7시간(미혼모 1인 양육자: 6.9시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약 6.9시간(미혼모 1인 양육자: 8.5시간)인 점을 생각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이 약 1.5시간 이상 더 긴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은 평균 7.4시간이었으나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은 토요일 약 10.8시간, 일요일 약 11.4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주말에 남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양육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평일과 주말 사이 양육 시간 차이가 미혼모 1인 양육자보다 크지 않다.

시간 측면에서는 여성에게 양육 시간 쏠림이 지속되고 있고, 여성 1인 양육자의 경우에는 1~2시간조차 도움을 규칙적으로 줄 수 있는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간 부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시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 1인 가족은 주말이 되어도 다른 양육자로부터 시간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일의 시간 부족에 대한 보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양육에 따른 소진이 일어날 수 있고, 양육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은 영유아에게는 매우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제4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관련 욕구

제1절 돌봄 방식 관련 욕구
제2절 양육 비용 관련 욕구
제3절 양육 시간 관련 욕구
제4절 소결

제4장 가족유형과 영유아 양육 관련 욕구

이 장에서는 여러 가족의 양육에 있어 어려움과 정책 중요도나 필요도에 대한 생각을 통해 욕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어려움이나 욕구 역시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시간과 같이 양육자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욕구이기 때문에 양육자의 조건인 경제활동 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단, 가장 어린 아동 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이 양육과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욕구 파악에서도 조건으로 활용한다. 제4장은 제3장과 마찬가지로 돌봄 방식 관련, 비용 관련, 시간 관련 양육의 어려움과 욕구 순으로 파악한다.

제1절 돌봄 방식 관련 욕구

돌봄 방식에 관련된 욕구에서는 먼저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가족의 어려움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파악해본다. 그리고 앞서 제3장에서 알아본 현재 돌봄 방식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돌봄 관련 어려움

돌봄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우는 그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어

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따라서 양육자 2인 가족뿐 아니라 양육자 1인 가족에서 양육자가 모두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 돌봄에 대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른 출근으로 아침 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렵다(약간 어려움+매우 어려움)는 응답이 양육자 2인 가족(50.8%)보다는 양육자 1인 가족(56.2%) 응답에서 더 많았다. 그러나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양육자 2인 가족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늦은 퇴근으로 저녁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주말이나 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양육자 1인 가족의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에서도 2인 양육자 가족보다 1인 양육자 가족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모두 일하는 2인 가족과 양육자가 1명이면서 그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제시된 상황에 양육하는 아동을 맡기는 것에 대해 모두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특히 양육자 1인 가족은 대부분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으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대부분 높아 어려운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과 경제활동 하는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어려움

(단위: %,)

구분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이른 출근으로 아침 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양육자 2인	12.6	20.2	16.3	27.0	23.8	100.0
	양육자 1인	12.3	13.8	17.8	36.7	19.5	100.0
늦은 퇴근(야간근무 등)으로 저녁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	양육자 2인	12.0	20.3	20.0	23.3	24.4	100.0
	양육자 1인	11.3	14.4	17.4	29.5	27.4	100.0
토요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근무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어려움	양육자 2인	19.6	25.3	22.3	16.1	16.6	100.0
	양육자 1인	19.2	21.2	16.9	13.6	29.1	100.0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	양육자 2인	13.7	18.2	17.9	23.5	26.6	100.0
	양육자 1인	12.1	8.5	29.2	17.1	33.1	100.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양육자 2인 가족은 2인 모두 경제활동 하는 사례 수 1,046명, 양육자 1인 가족은 경제활동하는 양육자 사례 수 48명임.
자료: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가 1명인 경우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어렵다는 응답(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은 74.3%, 양육자가 일을 하는 경우는 83.2%로 일을 하는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제활동을 하는 1인 양육자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과 돌봄자 확보 간의 선후 문제가 존재하기도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취업한 경우 돌볼 사람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아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1인 양육자 가족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아이를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χ^2
전체		5.2	14.3	51.9	28.6	100.0	(231)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11.4	14.3	42.9	31.4	100.0	(70)	9.398*
	함	2.5	14.3	55.9	27.3	100.0	(161)	
양육자 성별	여성	6.1	15.2	50.3	28.4	100.0	(197)	-
	남성	0.0	8.8	61.8	29.4	100.0	(34)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2. 돌봄 관련 정책 중요도

현재 정부의 돌봄 관련 정책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해당 정책으로는 돌봄 기관 이용 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지원)과 국공립 · 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설치의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돌봄 기관 이용 지원은 사실상 비용 지원으로 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관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금이 가족에게 전달되는 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지원과 유치원 이용 지원은 비용 지원이 아닌 돌봄 지원으로 살펴본다.

가. 어린이집 이용 지원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보면, 전체 4점 만점 중 중요도가 3.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분

을 해보아도 비슷한 평균 점수를 보인다.

〈표 4-3〉 양육자 수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80	0.48	(3,850)
양육자 2인	3.80	0.48	(3,814)
양육자(여성) 1인	3.83	0.48	(36)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세부 분석을 해보면, 가족에서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아동 연령과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장 어린 아동이 2~3세인 경우 3.91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고 4세 이상 그룹에서는 3.7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3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4세 이상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동이 4세 이상인 가족은 추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져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4-4〉 양육자 2인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80	0.48	(3.814)	
경제활동	1인	3.81	0.48	(2,055)	0.90
	2인	3.80	0.48	(1,759)	
아동 연령	0~1세	3.84	0.45	(1,253)	6.06**
	2~3세	3.91	0.45	(1,237)	
	4세 이상	3.77	0.53	(1,324)	
소득수준	상	3.77	0.51	(1,201)	5.60**
	중	3.80	0.49	(1,516)	
	하	3.84	0.43	(1,097)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 모두에서 가장 어린 아동이 4세 이상인 가족이 보육료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인 아동은 유치원을 다닐 가능성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지원보다 유치원 이용 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다음은 어린이집 이용 지원(보육료 지원)의 중요도에 대해 양육자 경제활동 기준으로 가족의 소득수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만 소득수준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양육자 2인 모두 하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는 2인 경제활동 가족 중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표 4-5〉 양육자 2인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84	0.45	(795)	3.36*
		2~3세	3.80	0.46	(652)	
		4세 이상	3.78	0.54	(608)	
	2인	0~1세	3.82	0.46	(458)	3.21*
		2~3세	3.82	0.44	(585)	
		4세 이상	3.76	0.52	(716)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76	0.58	(293)	1.60
		중	3.79	0.50	(842)	
		하	3.84	0.42	(921)	
	2인	상	3.78	0.49	(908)	3.80*
		중	3.82	0.47	(675)	
		하	3.82	0.46	(176)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도움 정도로 어린이집 이용 지원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가 더 도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지원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52	0.74	(652)	
경제활동	안 함	3.44	0.80	(309)	-2.58**
	함	3.60	0.68	(343)	
아동 연령	0~1세	3.52	0.07	(121)	1.14
	2~3세	3.57	0.04	(266)	
	4세 이상	3.48	0.05	(265)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4점 매우 도움됨
3) 지원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나. 유치원 이용 지원

어린이집의 지원과 같이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는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78점의 중요도를 보였다. 양육자 1인인 가족의 평균은 3.81점으로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표 4-7〉 양육자 수에 따른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78	0.50	(3,749)
양육자 2인	3.78	0.50	(3,714)
양육자(여성) 1인	3.81	0.50	(35)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에서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서는 유치원 이용 지원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 중인 아동 중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 기준으로 보면, 0~1세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연령대를 양육하는 경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도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4-8〉 양육자 2인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78	0.50	(3,714)	
경제활동	1인	3.78	0.50	(1,993)	1.81
	2인	3.77	0.50	(1,721)	
아동 연령	0~1세	3.82	0.45	(1,191)	8.46***
	2~3세	3.77	0.49	(1,211)	
	4세 이상	3.74	0.54	(1,311)	
소득수준	상	3.75	0.55	(1,170)	4.11*
	중	3.79	0.49	(1,483)	
	하	3.81	0.45	(1,060)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가족의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으로 나누어 아동 연령을 구분해보아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1인과 2인 가족 모두에서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교육비 지원 중요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소득수준 조건을 양육자 경제활동과 조합해보면, 2인 경제

활동 가족에서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은 중요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9〉 양육자 2인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83	0.45	(756)	5.28**
		2~3세	3.76	0.50	(635)	
		4세 이상	3.75	0.55	(602)	
	2인	0~1세	3.82	0.46	(435)	3.71*
		2~3세	3.79	0.48	(577)	
		4세 이상	3.74	0.54	(709)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75	0.58	(284)	2.25
		중	3.77	0.52	(820)	
		하	3.81	0.45	(888)	
	2인	상	3.74	0.54	(886)	3.26*
		중	3.81	0.46	(662)	
		하	3.80	0.47	(173)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 도움 정도를 알아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에 대한 도움은 양육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해 받은 지원 경험은 아니다. 따라서 0~1세 아동이 유치원 이용 지원을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없고, 현재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아동이 0~1세인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표 4-1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유치원 이용 지원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36	0.85	(117)	
경제활동	안 함	3.16	0.92	(69)	-2.57*
	함	3.49	0.78	(108)	
아동 연령	0~1세	2.84	1.17	(19)	2.21
	2~3세	3.42	0.70	(43)	
	4세 이상	3.43	0.82	(115)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4점 매우 도움됨
3) 지원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다.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 어린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았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등 양육자가 어린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고 양육자 수에 따른 가족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11〉 양육자 수에 따른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76	0.57	(3,691)
양육자 2인	3.78	0.57	(3,658)
양육자(여성) 1인	3.70	0.57	(33)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에서 양육 중인 가장 어린 아동 연령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중요도를 보면,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중요도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도 평균이 높아져 차이를 보였다. 자신의 의사전달 능력이 덜 발달한 어린 아동일수록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양육자의 불안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연령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양육자 2인 가족의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76	0.57	(3,658)	
경제활동	1인	3.77	0.55	(1,967)	1.75
	2인	3.74	0.58	(1,691)	
아동 연령	0~1세	3.82	0.47	(1,180)	14.34***
	2~3세	3.77	0.54	(1,193)	
	4세 이상	3.69	0.65	(1,285)	
소득수준	상	3.74	0.58	(1,159)	2.25
	중	3.75	0.58	(1,457)	
	하	3.79	0.53	(1,041)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중요도는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이 중요했는데, 양육자의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보아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일수록 이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앞서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중요도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나눈 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아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아동 연령에 따른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욕구는 모든 가족이 평균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13〉 양육자 2인 가족의 국공립·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82	0.47	(747)	6.82**
		2~3세	3.79	0.51	(632)	
		4세 이상	3.70	0.67	(588)	
	2인	0~1세	3.81	0.48	(433)	6.80**
		2~3세	3.74	0.58	(561)	
		4세 이상	3.69	0.64	(697)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73	0.61	(278)	1.23
		중	3.77	0.55	(814)	
		하	3.79	0.53	(873)	
	2인	상	3.74	0.57	(881)	0.58
		중	3.72	0.61	(643)	
		하	3.78	0.54	(167)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아동이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시간에 어른이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1인 양육자 가족의 아동 돌봄 어려움에서도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는데, 1인 양육자 가족의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는 비율이 약 15%였다. 특히, 일하는 1인 양육자 가족의 아이가 일하지 않는 경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의 비율이 높았다.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가 여성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보다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14〉 양육자 1인 가족의 아이가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χ^2
전체		14.7	85.3	100.0	(232)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4.2	95.8	100.0	(71)	8.90**
	함	19.3	80.7	100.0	(161)	
양육자 성별	여성	13.2	86.8	100.0	(197)	2.217
	남성	22.9	77.1	100.0	(35)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취학 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야간보육을 꼽았다. 이는 결국 양육자의 업무시간과 돌봄 시간의 불일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비율 분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하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취업 양육자보다는 낮았으나, 학습지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으로 사교육 지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남성 양육자의 경우 키즈폰이나 아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정 내 CCTV 설치 등 누군가가 아이와 있는 방식이 아닌 아이 혼자서 있어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비율이 여성 양육자의 경우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혼자 둘 때 필요한 지원을 찾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15〉 양육자 1인 가족의 아이가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야간 보육 활성화	자녀 등·하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학습 지도 도우미 파견 서비스	키즈폰 등 비상 통신 수단 지원	가정 내 CCTV 설치	기타	계	(명)
전체		37.8	12.4	22.3	12.9	3.4	9.9	1.3	100.0	(233)
양육자 경제활동	안 함	39.1	8.7	21.7	17.4	0.0	8.7	4.3	100.0	(69)
	함	38.5	13.7	22.4	10.6	5.0	9.9	0.0	100.0	(161)
양육자 성별	여성	37.6	12.2	24.4	13.2	3.0	8.1	1.5	100.0	(197)
	남성	38.9	13.9	11.1	11.1	5.6	19.4	0.0	100.0	(36)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3. 희망하는 돌봄 방식

이전 장인 제3장에서는 돌봄 방식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그에 만족하는지 등을 가족유형과 그 안에서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살펴보았다. 현재 택한 방식이 상황과 선호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현재 방식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희망하는 아이 돌봄 방식을 알아본다.

전체 가족으로 보면, 양육자 1인인 가족이 원하는 돌봄 방식은 기관 이용이 약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0%가 기관 이용을 원하는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자 1인 가족과 2인 가족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함이고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서 양육자 조건마다 희망하는 돌봄은 어떤 방식인지 상세하게 알아본다.

〈표 4-16〉 양육자 수에 따른 희망하는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전체	41.2	28.5	30.3	100.0	(3,862)
양육자 2인	41.3	28.3	30.4	100.0	(3,825)
양육자(여성) 1인	32.4	45.9	21.6	100.0	(37)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을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희망이 약 70%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기관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제3장의 결과인 현재 돌봄 방식에서 나타난 기관 이용 돌봄 비율과 비슷하지만, 기관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욕구에서 현실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현재 정책에서 맞벌이 가족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보건복지부, 2020a)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희망하는 방식인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이 경제활동 2인 가족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 2인 가족이 희망하는 돌봄은 양육자의 경제활동, 아동 연령,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 내 취학 전 아동 수,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라 모두 차이가 났다.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은 국공립시설을 원하는 비율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0~1세 아동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63.0%)을 보인다. 그리고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 이용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아지는데, 기관 중에서도 국공립시설을 원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다음은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취학 전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가족이 1명인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더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조부모의 돌봄이 있는 가족은 개인이나 가족의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조부모 돌봄 지원이 없는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및 개인 돌봄에 대한 희망 비율은 조부모 돌봄 지원이 없는 경우는 약 30%,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는 약 40%로 나타나 약 10%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표 4-17〉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전체		41.3	28.4	30.4	100.0	(3,825)	
경제활동	1인	39.1	26.1	34.8	100.0	(2,064)	42.60**
	2인	43.8	31.0	25.2	100.0	(1,761)	
아동연령	0~1세	22.6	14.4	63.0	100.0	(1,263)	972.77***
	2~3세	48.2	32.9	18.9	100.0	(1,238)	
	4세이상	52.5	37.5	10.0	100.0	(1,324)	
소득수준	상	39.8	29.5	30.8	100.0	(1,202)	16.62**
	중	41.7	30.4	27.9	100.0	(1,517)	
	하	42.2	24.3	33.5	100.0	(1,105)	
취학 전 아동 수	1명	43.9	30.1	26.1	100.0	(2,595)	72.34***
	2명이상	35.8	24.6	39.6	100.0	(1,230)	
조부모 돌봄지원	없음	41.8	29.3	28.9	100.0	(3,282)	24.65***
	있음	37.9	22.8	39.2	100.0	(543)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 2인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여러 조건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표 4-18〉에 제시하고 있다.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대해서 경제활동 기준으로 가장 어린 아동 연령에 따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관계없이 0~1세 아동이 있는 가족은 모두 가족이나 개인 돌봄 방식을 과반이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3세나 4세 이상의 경우에도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10~20% 내외로 가족이나 개인 돌봄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0~1세 아동은 그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으며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경우는 66.7%로 2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56.5%

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시설이용에 대한 희망은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높아지며 국공립시설 이용에 대한 희망이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과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아동 연령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영유아에 대한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부모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보다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0~1세 아동에 대해 1인 경제활동 가족이 개인이나 가족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높기는 하지만, 선호 경향은 유사하며 그 이외 연령의 아동에 대한 돌봄 선호는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에 가족의 소득수준 조건을 더해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알아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시설을 이용한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국공립시설과 가족 및 개인 돌봄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경제상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가 전반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가족 및 개인 돌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선호도도 낮아져 1인 경제활동 가족과 정반대의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돌봄 선호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양육자 모두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장시간 아동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개인이나 가족 돌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시설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린 아동에 대한 안전과 시설에 대한 믿음이 시설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이슈가 작용해 국공립시설에 대

한 선호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이러한 선호는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기관 이용시 추가 비용이나 장기간 이용 가능성 등이 더욱 높아짐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과반이 아동 돌봄에 대한 주체로 국공립시설을 희망하게 된다.

경제활동 기준에서 취학 전 아동 수에 따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가족 내 취학 전 아이가 1명일 때와 그 이상일 때 희망하는 돌봄 시설에 차이가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은 취학 전 아동이 가족 내 1명인 경우보다 2명 이상인 경우 가족이나 개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45.8%)이 현저히 높아 양육하고 있는 취학 전 아이의 수에 따라 돌봄 방식 선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양육자 2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경우도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가족이나 개인의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취학 전 아동이 1명인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 내 1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성인 1인이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아동을 개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이러한 경우에 돌보아야 할 아동이 2명 이상이라면 시설이용보다는 가족이나 개인이 돌보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가족/개인 돌봄 방식에 대한 선호 비율이 매우 균등하게 나뉘는 현상도 찾아볼 수 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조부모 돌봄 지원 조건에 따라 나누어 보면, 양육자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두 명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모두 조부모 돌봄 지원 여부에 따라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으면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52.6%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더라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표 4-18〉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20.7	12.6	66.7	100.0	(804)	605.36***
		2~3세	48.5	32.0	19.4	100.0	(653)	
		4세 이상	53.0	37.8	9.2	100.0	(608)	
	2인	0~1세	25.9	17.6	56.5	100.0	(460)	335.49***
		2~3세	47.9	33.8	18.3	100.0	(585)	
		4세 이상	52.1	37.3	10.6	100.0	(716)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2.5	35.6	31.8	100.0	(292)	20.22***
		중	39.7	26.6	33.7	100.0	(841)	
		하	40.4	22.7	36.9	100.0	(929)	
	2인	상	42.0	27.6	30.4	100.0	(911)	32.06***
		중	44.3	35.1	20.6	100.0	(675)	
		하	51.4	32.8	15.8	100.0	(177)	
경제활동 – 취학 전 아동 수	1인	1명	42.0	29.1	28.9	100.0	(1,334)	59.58***
		2명 이상	33.6	20.7	45.8	100.0	(730)	
	2인	1명	45.8	31.2	23.0	100.0	(1,261)	12.31**
		2명 이상	38.8	30.6	30.6	100.0	(500)	
경제활동 – 조부모 돌봄지원	1인	없음	39.6	27.0	33.4	100.0	(1,912)	24.45***
		있음	32.2	15.1	52.6	100.0	(152)	
	2인	없음	44.9	32.4	22.7	100.0	(1,370)	21.26***
		있음	40.2	25.8	34.0	100.0	(391)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다른 욕구와 다르게 가장 어린 아동에 대한 희망하는 돌봄이기 때문에 아동 연령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았다.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보면, 0~1세 아동 가족의 경우 가족이나 개인이 돌봄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2~6세 아동 가족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0~1세 아동 가족 그룹에서만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1인 양육자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가 2인 경제활동 가족의 경우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돌봄 선호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가족 및 개인 돌봄에 대한 선호가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지는 현상과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선호는 30%대를 유지하는 대신, 가족 및 개인에서 낮아지는 비율이 국공립시설에 대한 선호로 옮아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9〉 양육자 2인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1인	20.7	12.6	66.7	100.0	(803)	13.49*
		2인	25.9	17.6	56.5	100.0	(460)	
	2~3세	1인	48.5	32.0	19.4	100.0	(653)	0.57
		2인	47.9	33.8	18.3	100.0	(585)	
	4세이상	1인	53.0	37.8	9.2	100.0	(608)	0.72
		2인	52.1	37.3	10.6	100.0	(716)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해서는 미혼모가족 데이터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는 42.7%가 가족이나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반면, 2~3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19.7%만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4세 이상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는 2~3세보다 오히려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원하는 비율이 26.1%로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원하는 비율이 확연히 감소하는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 양육 가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4세 이상이 되면 영유아라 해도 단순 돌봄 기관과 사교육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연령으로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그에 대해 더욱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희망 돌봄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4세 이상의 가족 및 개인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2~3세인 경우보다 낮아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희망 돌봄 방식에서의 이러한 경향이 아동 성장 초기부터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표 4-20〉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경제활동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경제활동 – 아동연령	안 함	전체	38.8	29.9	31.3	100.0	(552)	
		0~1세	31.0	26.2	42.7	100.0	(248)	
		2~3세	45.1	35.2	19.7	100.0	(193)	29.54***
		4세 이상	45.0	28.8	26.1	100.0	(111)	
	함	전체	47.6	36.0	16.4	100.0	(433)	
		0~1세	44.2	33.7	22.1	100.0	(86)	
		2~3세	50.6	35.3	14.1	100.0	(156)	3.11
		4세 이상	46.6	37.7	15.7	100.0	(191)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면, 0~1세인 경우에서만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가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모 그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그룹보다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시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돌봄 기관 이용으로 구분해보면 80%에 가까운 비율이 돌봄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개인 서비스 이용 비율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한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은 42.7%,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22.1%가 가족 및 개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아동 연령 2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미혼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희망하는 돌봄 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21〉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하는 돌봄 방식: 아동 연령 기준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x^2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아동연령 - 경제활동	0~1세	전체	34.4	28.1	37.4	100.0	(334)	11.76**
		안 함	31.0	26.2	42.7	100.0	(248)	
		함	44.2	33.7	22.1	100.0	(86)	
	2~3세	전체	47.6	35.2	17.2	100.0	(349)	2.13
		안 함	45.1	35.2	19.7	100.0	(193)	
		함	50.6	35.3	14.1	100.0	(156)	
	4세이상	전체	46.0	34.4	19.5	100.0	(302)	5.54
		안 함	45.0	28.8	26.1	100.0	(111)	
		함	46.6	37.7	15.7	100.0	(191)	

주: 1) *** p〈.001, ** p〈.01, * p〈.05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x^2값을 제시하지 않음.
3)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양육 비용 관련 욕구

이 절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현금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정부의 현금 지원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는 가정양육수당과 특정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모두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중요도는 평균 3.70점으로 나타났고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양육자 1인 가족의 중요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표 4-22〉 양육자 수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70	0.63	(3,855)
양육자 2인	3.70	0.63	(3,820)
양육자(여성) 1인	3.77	0.51	(35)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래 〈표 4-23〉에서 양육자 2인 가족의 여러 조건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인 경제활동보다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중요도 평균이 높았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은 보육시설을 주 돌봄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많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아동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았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0~1세 아동을 둔 가족의 경우가 2세 이상 아동을 둔 경우보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해 12개월 미만 아동은 20만 원, 12개월 이상 23개월 이하는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복지로 홈페이지b[12]) 0~1세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이 가장 많은 금액(2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령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중

12)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에서 2020.11.10. 인출.

요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23〉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70	0.63	(3,819)	
경제활동	1인	3.73	0.58	(2,063)	3.58***
	2인	3.66	0.68	(1,757)	
아동 연령	0~1세	3.81	0.48	(1,262)	43.11***
	2~3세	3.68	0.64	(1,237)	
	4세 이상	3.60	0.73	(1,320)	
소득수준	상	3.62	0.73	(1,203)	16.09***
	중	3.71	0.61	(1,514)	
	하	3.77	0.53	(1,102)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에 대해 경제활동 기준으로 아동연령과 소득수준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아동 연령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를 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와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 연령에 따라서만 보았을 때에도 나타난 결과에서처럼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 점은 동일하게 생각된다. 다만,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중요도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가정양육수당을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아동 연령이 가장 낮은 그룹이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를 경제활동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면,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중요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인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보다 중간이거나 낮은 그룹이 생각하는 중요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2인 경제활동 가족은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아동 연령에 따른 중요도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요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현금 지원이며 아동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다. 또한 2인 경제활동 가족이라도 아동 0~1세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가 2인 경제활동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은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1인 경제활동 가족에게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고, 이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하는 1인 경제활동 가족에게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에게 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표 4-24〉 양육자 2인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83	0.47	(802)	18.04***
		2~3세	3.71	0.58	(653)	
		4세 이상	3.63	0.69	(608)	
	2인	0~1세	3.79	0.50	(460)	21.37***
		2~3세	3.65	0.69	(584)	
		4세 이상	3.57	0.76	(713)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56	0.77	(293)	12.50***
		중	3.73	0.59	(842)	
		하	3.79	0.49	(928)	
	2인	상	3.64	0.72	(910)	1.33
		중	3.69	0.64	(673)	
		하	3.63	0.68	(174)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생각에서는 경제활동을 안 하는 가족보다 하는 가족이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 아동 연령이 0~1세인 경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25〉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2.98	1.01	(718)	
경제활동	안 함	2.91	1.04	(417)	-2.16*
	함	3.08	0.97	(301)	
아동 연령	0~1세	3.02	1.00	(256)	0.36
	2~3세	2.96	1.02	(258)	
	4세 이상	2.95	1.02	(204)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4점 매우 도움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생각은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 비용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양육 비용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소비가 더 많은 가족이 도움을 더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4세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0~1세를 양육하는 경우보다 아동수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26〉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아동수당 지원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09	0.98	(904)	
경제활동	안 함	3.01	1.00	(504)	-2.70**
	함	3.19	0.94	(400)	
아동 연령	0~1세	3.04	1.01	(291)	0.69
	2~3세	3.09	0.96	(328)	
	4세 이상	3.14	0.95	(285)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4점 매우 도움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현금 지원에 대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제3절의 양육 비용에서 미혼모 1인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양육 관련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해 비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가족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절 양육 시간 관련 욕구

마지막으로 양육 시간과 관련된 영유아 양육 가족의 욕구에서는 양육 시간과 관련된 어려움을 먼저 알아본다. 이어서 양육 시간과 관련된 정책 욕구를 파악한다. 양육 시간과 관련된 정책은 육아기 단축시간이나 육아휴직 등이 있는데, 육아기 단축시간에 대한 욕구를 따로 알아보는 데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시간 정책 중 대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를 통해 욕구를 파악한다.

1. 양육 시간 관련 어려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족은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과 1인 양육자 가족 중 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일 것이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 연령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시간 사용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아동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어렵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도 23.1%로 어렵다는 응답이 73.8%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이 0~1세인 경우는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다른 아동 연령을 양육 중인 경우보다 높아 27.7%로 나타났다.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어렵다는 응답과 매우 어렵다는 응답을 더해 어렵다는 응답으로 보면, 2~3세 아동을 양육할 때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율이 77.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아동이 0~1세일 때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3세 아동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다른 곳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27〉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 여성의 직장-가정생활 병행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려움 없음	별로 어려움 없음	대체로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명)	x^2
전체		1.6	24.6	50.7	23.1	100.0	(1,761)	
아동 연령	0~1세	2.0	22.9	47.5	27.7	100.0	(459)	19.51 **
	2~3세	1.0	21.7	52.7	24.6	100.0	(586)	
	4세 이상	2.0	28.1	51.0	19.0	100.0	(716)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데이터를 활용해 1인 양육자 가족의 시간 관련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1인 양육자 가족의 약 70% 가까이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아동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 어렵다는 응답이 83.2%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39.1%로 나타나 양육자 1인 가족 중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시간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어렵다는 응답도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는 26.7%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7.2%와 차이가 있다.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성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가 돌봄 시간이 더 부족하여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어렵다는 응답이 91.1%로 여성 1인 양육자의 66.0%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28〉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 돌봄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명)	χ^2
전체		6.9	23.4	48.9	20.8	100.0	(231)	
양육자 경제 활동	함	1.2	15.5	56.5	26.7	100.0	(161)	53.08***
	안 함	20.3	40.6	31.9	7.2	100.0	(69)	
양육자 성별	여성	8.1	25.9	45.7	20.3	100.0	(197)	9.38*
	남성	0.0	8.8	67.6	23.5	100.0	(34)	

주: *** p〈.001, ** p〈.01, * p〈.05
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 대해 시간 부족을 알아보기 위해 별도 문항이 아닌 전체 아동 양육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다른 어려움보다도 양육비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 외의 어려움에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것과 아이 챙길 시간이 부족한 점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에서는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커 보인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의 응답이 아이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에 더 치중되어 있고, 그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시간 부족 어려움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표 4-29〉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아동 양육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양육비 교육비 부담	아이 돌보거나 챙길 시간 부족	아이 맡길 곳 마땅치 않음	아이 생활 지도 및 훈육	아이에 대한 차별 및 따돌림 걱정	가족 상황 이해시키는 어려움	기타 및 어려운 점 없음	계	(명)	χ^2
전체		33.0	17.9	24.0	9.5	6.1	4.4	5.2	100.0	(985)	
경제활동	안 함	34.8	9.2	26.1	11.1	7.1	4.9	6.9	100.0	(552)	68.72***
	함	30.7	28.9	21.2	7.6	4.8	3.7	3.0	100.0	(433)	

주: *** p〈.001, ** p〈.01, * p〈.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2. 양육 시간 관련 정책 욕구

시간에 대한 지원 욕구는 대부분 육아휴직과 관련된 욕구들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육아기 단축근로, 유연한 시간 등에 대한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과 관련해 가장 큰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파악이 주를 이룬다. 육아휴직에 대한 욕구 이전에 육아와 관련된 시간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본 질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인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 지원 정책 1순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단가 인상, 육아휴직 제도 정책 및 휴직 시 소득보장, 기관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인상,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그런데 육

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를 시간 정책에 대한 욕구로 보면, 이 역시 작지 않은 비율로 생각된다. 특히 양육자 2인 가족의 2인 경제활동 경우에는 이 시간 정책을 활용해야 하는 대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양육자 1인 가족은 경제적인 지원이 시간 지원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육 어려움에서 시간보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앞서 양육 어려움에서도 보았듯이, 경제활동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결국 시간 부족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표 4-30〉 가장 중요한 양육 지원 정책 1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교육비 지원단가 인상	기관 미이용 양육수당 인상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시 소득보장	유연근무제 확대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및 정보.상담 제공	(명)	χ^2
양육자 2인	전체	36.2	11.4	7.5	17.8	10.5	6.4	5.6	4.7	(2,091)	74.80***
	2인 경제활동	34.2	10.1	4.5	16.7	13.8	8.2	7.1	5.4	(1,045)	
	1인 경제활동	38.1	12.6	10.4	18.9	7.2	4.6	4.1	4.1	(1,046)	
양육자 1인		28.0	22.7	8.0	8.0	8.0	6.7	13.3	5.3	(75)	

주: 1) *** p〈.001, ** p〈.01, * p〈.05
2) 남성 양육자 1인 가족 각 셀의 사례 수가 적어 양육자 1인 가족은 성별 구분 없이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

시간과 관련해 양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았다. 여성 육아휴직과 남성 육아휴직의 순서로 살펴본다.

가. 여성 육아휴직의 중요도

여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평균 3.89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육자 수에 따른 가족 구분에서도 평균값은 모두 비슷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1〉 양육자 수에 따른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89	0.34	(3,800)
양육자 2인	3.89	0.34	(3,767)
양육자(여성) 1인	3.90	0.31	(33)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에 대해 가족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경제활동 조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0~1세, 2~3세 아동이 가장 어린 아동인 경우는 평균이 3.90 이상으로 높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소득수준 조건을 보면,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요도 평균이 높았는데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평균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32〉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89	0.34	(3,767)	
경제활동	1인	3.89	0.36	(2,030)	1.87
	2인	3.91	0.33	(1,737)	
아동 연령	0~1세	3.91	0.33	(1,243)	2.29
	2~3세	3.90	0.33	(1,217)	
	4세 이상	3.88	0.37	(1,307)	
소득수준	상	3.92	0.29	(1,199)	8.90***
	중	3.89	0.34	(1,492)	
	하	3.86	0.41	(1,075)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을 양육자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가장 어린 아동의 연령 조건으로 해보면,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만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잠재적인 지원 대상인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이 육아휴직 지원의 직접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어린 아동이 3세 이하인 경우 중요도가 4세 이상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의 중요도보다 높아 차이를 보인다.

양육자의 경제활동 기준에서 소득수준 조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경제활동 2인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인 경제활동 가족이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육아휴직 지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3.93점), 소득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그룹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은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중간 또는 낮은 그룹보다 중요도 평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직접 지원 대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소득수준 상·중 그룹이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여성 육아휴직 지원의 직접 대상인 2인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여성은 육아휴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여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있지만 본인이 지원받을 상황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이러한 실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들 집단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33〉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89	0.35	(788)	0.52
		2~3세	3.88	0.36	(640)	
		4세 이상	3.87	0.38	(602)	
	2인	0~1세	3.93	0.29	(455)	3.30*
		2~3세	3.92	0.30	(577)	
		4세 이상	3.88	0.36	(705)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90	0.35	(291)	2.13
		중	3.90	0.31	(830)	
		하	3.87	0.40	(909)	
	2인	상	3.93	0.26	(909)	6.53**
		중	3.88	0.36	(663)	
		하	3.84	0.44	(166)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나. 남성 육아휴직 중요도

여성 육아휴직 지원에 이어 남성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중요도도 살펴보았다. 전체 평균은 3.68점으로 여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보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양육자 1인 가족이 생각하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는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약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양육자 1인 가족이 2인 양육자 가족보다 여성 육아휴직이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비슷하거나 약간씩 더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그만큼 시간 관련 지원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표 4-34〉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전체	3.68	0.64	(3,750)
양육자 2인	3.68	0.64	(3,718)
양육자(여성) 1인	3.78	0.42	(32)

주: 1)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에 대해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경제활동과 가족의 가장 어린 아이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그룹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의 평균이 높아 중요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집단에서 중요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35〉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t/F
전체		3.68	0.64	(3,718)	
경제활동	1인	3.67	0.65	(1,995)	0.54
	2인	3.68	0.63	(1,723)	
아동 연령	0~1세	3.71	0.59	(1,228)	2.91
	2~3세	3.67	0.65	(1,206)	
	4세 이상	3.65	0.68	(1,284)	
소득수준	상	3.71	0.61	(1,193)	3.30*
	중	3.66	0.65	(1,479)	
	하	3.66	0.66	(1,045)	

주: 1) *** p〈.001, ** p〈.01, * p〈.05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평균: 0점 매우 불만족~4점 매우 만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과 가장 어린 아동 연령으로 구분해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어느 그룹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활동 기준에 관계 없이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만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여성 육아휴직 사용보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소득보전이나 남성 직장에서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직 사용이 쉽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쉽게 돌아올 지원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중요도도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4-36〉 양육자 2인 가족의 남성 육아휴직 지원 중요도: 경제활동 기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F
경제활동 – 아동연령	1인	0~1세	3.71	0.59	(771)	2.38
		2~3세	3.66	0.65	(633)	
		4세 이상	3.64	0.71	(591)	
	2인	0~1세	3.71	0.59	(458)	0.76
		2~3세	3.67	0.64	(573)	
		4세 이상	3.67	0.65	(693)	
경제활동 – 소득수준	1인	상	3.65	0.72	(291)	1.51
		중	3.70	0.59	(822)	
		하	3.65	0.67	(882)	
	2인	상	3.74	0.57	(903)	7.77***
		중	3.61	0.70	(657)	
		하	3.69	0.61	(163)	

주: 1) *** p〈.001, ** p〈.01, * p〈.05
2) 평균: 0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4점 매우 중요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실제로 택한 돌봄 방식과 희망하는 돌봄 방식의 차이가 클수록 양육에 대한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이에 실제로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가족/개인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은 실제(18.9%)보다 희망하는 비율(25.2%)이 높아지고,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실제(37.1%)보다 희망하는 비율(34.8%)이 낮아져 경제활동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동 연

령이 0~1세인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약 2배 더 0~1세 아동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에 대한 희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3세 아동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 및 개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아동이 4세 이상이 되면 취학 전이라 해도 사교육이나 과외 활동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연령이다.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인 경우에 대한 응답도 높아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4세 이상 아동에 대해 오히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이라면 아동 성장 초기부터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돌봄 방식과 관련된 정책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유아교육비)이나 유치원 이용(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발생해 돌봄 공백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야간 보육 활성화에 대한 욕구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국공립시설에서의 돌봄에 대한 희망으로 보인다. 크게 기관 돌봄과 가정 돌봄으로 구분해보았지만, 사실 기관 돌봄 안에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희망은 매우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4세 아동의 경우에만 가장 근접하게 희망과 실제가 가까워져 있고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여전히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희망과 괴리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로 의사표현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2~3세 아동에 대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아동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양육자 2인 가족 중 아동 연령이 0~1세일 때 이 지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경제활동에 따라서 수당 지원에 대한 도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정양육 수당에 대한 도움과 아동수당에 대한 도움에 대해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움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자 2인 가족 데이터에서는 자료가 부재해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만 알아보았는데, 가정양육수당보다는 도움이 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더 도움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

타나 아동 양육에 돌봄 비용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드는 가족은 아동수당의 지원에 대한 도움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시간 부족은 2인 양육자 가족 중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1인 양육자 가족에서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은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다른 양육비나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욕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자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족에게는 시간 부족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비용이나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이 줄지만 그 줄어든 만큼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어, 양육자 1인 가족의 어려움은 줄지 않고 다른 어려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 육아휴직과 여성 육아휴직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계층에 따라 휴직 사용을 선택하는 양육자 그룹과 선택이 아닌 미사용이 당연한 선택으로 놓여 있는 양육자 그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5장

가족다양성 관련 전문가 의견

제1절 조사 개요 및 가족다양성 고려
제2절 가족유형과 양육 지원 정책
제3절 가족 정책에서의 가족다양성

제 5 장 가족다양성 관련 전문가 의견

제1절 조사 개요 및 가족다양성 고려

1. 전문가 조사 개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사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가족 정책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만, 변화의 방향에 대한 목소리는 다양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가족, 아동 양육·보육 및 돌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총 24명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 연구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양육 중인 2세대 가족(성인 1세대와 아동으로 구성)을 중심으로 조건을 나누어서 양육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가족의 다양한 조건을 가족 내 양육자 수(2인 및 1인), 그리고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 아동의 수, 양육자의 혼인 경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양육 특성을 파악하는 영역은 기관 및 서비스 지원, 현금 지원, 시간 지원 영역으로 구분함을 설명하고, 이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을 맞벌이, 외벌이, 양부모,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등 명명하지 않으

려 양육자 수와 경제활동 조건을 사용하여 가족유형을 나누고 있음도 설명하였다. 가족 내 성인 수, 경제활동 등의 기준에서 3세대 가족은 조건의 다양화로 인해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세대 가족으로 한정한다는 점 등도 설명한 후, 반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현재 취학 전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현금수당, 시간 지원에 있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현재 정부 지원 및 정책은 가족의 다양한 유형 및 조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필요도와 반영도를 질문하였다. 다음으로는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현금수당, 시간 지원 각각의 정책에 대해 양육자 수(2인 또는 1인), 경제활동(1인만 또는 2인 모두), 아동 수(1인 또는 2인 이상), 혼인 여부(이혼 또는 미혼)로 구분하고 각각의 중요도와 차등 정도, 차등을 두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의견,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이 잘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더 나아가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유형은 구분되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정책(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미혼모 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등)으로 있어야 하는지 등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유형 구분에 대한 견해,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족다양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현재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족다양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완료해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22	91.7
	남성	2	8.3
연령	30대 이하	1	4.2
	40대	11	45.8
	50대 이상	12	50.0
소속기관	대학교	19	79.2
	정부/지자체 연구기관	5	20.8
계		24	100.0

2. 현재 정책에서 가족다양성에 대한 고려

가.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반영 정도

한국의 영유아 양육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책은 가족의 다양한 유형 및 조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5점)’까지로 질문해 알아본 결과,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에서 가족다양성 반영 정도는 평균 2.5점(SD=0.9), 현금 지원은 평균 2.3점(SD=1.0), 시간 지원은 2.1점(SD=0.9)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취학 전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책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반영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반영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2.5	0.9
현금 지원	2.3	1.0
시간 지원	2.1	0.9

주: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0점)~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5점)

나.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고려 필요 정도

현재 취학 전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표적으로 돌봄 시설 및 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센터 등), 현금수당(아동수당), 시간 지원(휴가, 육아휴직 및 단축근로, 탄력근무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지원 형태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에서의 가족다양성 고려에 대한 필요도는 평균 4.2점(SD=1.3), 현금 지원은 평균 3.1점(SD=1.6), 시간 지원은 4.1점(SD=1.5)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가족 지원 정책에의 가족다양성 고려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다음으로 시간 지원, 현금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현재 영유아 양육 가족 지원 정책에서 가족다양성 고려 필요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	4.2	1.3
현금 지원	3.1	1.6
시간 지원	4.1	1.5

주: 전혀 필요하지 않다(0점)~매우 필요하다(5점)

제2절 가족유형과 양육 지원 정책

가족 지원 방식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현금 지원, 시간 지원 각각에 대해 지원 방식에 대한 중요도, 지원에 있어 가족 차등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 가족 조건에 따른 차등 또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가족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유형을 양육자 수(2인 또는 1인), 경제활동(1인 또는 2인), 아동 수(1인 또는 2인 이상), 결혼 여부(이혼 또는 미혼)를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
-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

1.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

가. 가족유형에 따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중요도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이 가족유형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문항

은 각 유형별 중요도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의 중요도는 평균 3.0점(SD=1.2),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3.4점(SD=1.2),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은 평균 4.5점(SD=1.1),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4.6점(SD=1.1),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7점(SD=1.0),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7점(SD=1.0)으로 분석되었다. 양육자 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가 많을수록,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4〉 가족유형별 영유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3.0	1.2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3.4	1.2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4.5	1.1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4.6	1.1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	4.7	1.0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	4.7	1.0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매우 중요하다(5점)

나. 가족 조건에 따른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차등·우선순위와 방식

다음으로는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은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3.3점(SD=0.8)으로 나타났다.

〈표 5-5〉 가족 조건에 따른 영유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른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3.3	0.8

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4점)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이유와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2] 아동이 있는 가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충족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

[전문가 8] 모든 아동에게는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권리로 보장해야 함.

[전문가11] 아동 돌봄 시설과 서비스는 모든 유형의 가족에게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임.

보편적 지원을 바탕으로 차등적 또는 우선적 조건을 주어야 한다면,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1인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시간에 있어서 2인 경제활동 가구, 한부모가구 등은 이용시간이 늘어나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경제활동 형태, 근로시간 형태 등에 따라 시간제 보육,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 및 시설 지원이 필요함.

[전문가 9] 전업주부의 경우 돌봄·서비스 지원에서 '우선 배제'하는 경향을 향후 시정해야 할 과제라고 봄. 전업주부도 취업준비와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는 전제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혹은 하려고 하는) 잠재력 취업활동 집단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

[전문가 15] 양육자 수와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

그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소득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다는 것이었다. 빈곤가구의 경우 가구 유형보다는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소득기준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나 일하는 양육자 1인 가족, 아동 수와 장애아동 유무 등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가족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전문가 2] 오히려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비용 지원이 차등 적용됨. 그래서 나형과 다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비용 부담으로 실제 이용자 비중이 가장 낮은 실정임.

[전문가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녀 연령에 따라 영아와 유아 또는 초등학생이 함께 있는 경우 형제의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의 경우 돌봄시설 내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전문가 7]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일괄 제공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때 한부모, 다문화, 조손, 중요하지 않음.

[전문가 17] 돌봄 자원을 돌봄이 가능한 가족원 수로 환원해서 차등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전문가 19] 우선순위나 차등을 두는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기보

다는 가족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취학 전 아동 자녀 수 등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의 방식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

[전문가 22] 양부모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클 것이고,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유형과 욕구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나아가 아동 양육 돌봄이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부모의 건강상태, 집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양육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돌봄 비용 지원에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족에게 선택지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8] 가족의 돌봄상황(즉, 부모의 취업 여부나 건강상태 등 돌봄자의 상황)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는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 자녀 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되어야 함.

[전문가 12] 가족의 조건에 따라 돌봄 시설과 서비스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동일한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등원과 하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또는 세 개의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가진 가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전문가 21] 양육자 중 1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건강상태가 양육에 적합한지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상황이 열악하여 경제활동이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혹은 못 구해서) 집에 있는 것인지 등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 있음.

다.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 조건을 잘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점 및 개선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이 잘 반영된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에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보육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을 추가 지원하거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의 다양성이나 성평등과 같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돌봄 제공 기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1] 연장보육의 질 개선이 필요함. 가족유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의 격차가 있는지(하원 시간, 기본반/종일반 이용) 파악할 필요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 특성에 따라 격차가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7]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다양성 및 성평등 교육 실시. 영유아 시기는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 개별 교사의 역량과 자질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기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보육교사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컨텐츠가 필요함. 학부모 모니터링과 결합하면 좋을 것.

[전문가 14] 종일 돌봄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또는 돌봄 인력의 추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지원, 예를 들어 인력을 늘리거나 연장 근로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함.

[전문가 18] 돌봄 제공 기관 엄격한 모니터링 실시: 국공립/시립 지자체 운영 시설 제외, 민간 어린이집/보육시설의 경우 법적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준수하는 사례 거의 없음. 이로 인해 서비스 이용 필요한 가정 내 추가 보육+돌봄 비용 발생.

[전문가 21] 시설적인 확충과 양적인 증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돌봄의 질이 매우 중요

함. 아무리 양적인 증대가 이루어져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인한 학대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돌봄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가 없음. 이를 위해서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지만(국립, 사립 관계없이) 한편으로는 돌봄 제공자만 탓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도 만족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서비스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필요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야간 근로자인 경우에 야간에도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1인 생계부양자일 경우에도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간에도 돌봄 시간을 구분하여 서비스 형태 및 서비스 이용시간 등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양육자 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2] 시설 보육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 지원은 신청자만 수혜를 받고 있는 문제점 개선 필요. 한국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재가돌봄 수요가 상시적으로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집단 보육보다 개별 가정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잔여적인 서비스로 되어 있는 재가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가 보육서비스로 보편적으로, 수요가 있는 가족에게 모두 제공되는 서비스로 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3] 현행 보육 우선 제공 규정(영유아보육법 제28조)을 따르되, 다문화 아동과 장애아동의 경우 이용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인력, 재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함.

[전문가 4] 아동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대상선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하며, 가족 상황 또는 특성이 반영된 이용시간 차등화 필요.

[전문가 7]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이 '낙인'이 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제공 방법 고민.

[전문가 12] 가족다양성을 반영한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 내에서 주간, 야간, 시간제, 급식 선택, 등하원 시간대 선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각 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선택지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가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음.

[전문가 15]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근무일정(예: 주간 근무, 야간 근무, 평일 근무, 주말 근무, 전일제 근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간대에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이 동시에 되어야 할 것임.

[전문가 16] 아동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가족유형에 따른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편, 무조건 돌봄 서비스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정돌봄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기본서비스 수급자와 추가서비스 수급자를 구분하여 현금과 현물 지원에 균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도 응답하였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노동문화를 정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8] 좋은 아동돌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친화적 노동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전문가 13] 기본서비스 수급권과 추가서비스 수급권을 엄밀히 분리하고, 집행에 적용해야 할 것임. 어린이집 서비스의 경우는, 추가서비스 수급권이 없는 가구의 반발을 하루빨리 낮추어야 하며(설득 필요), 추가서비스는 자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울 필요도 있음(가구소득을 고려한 차등 지불이 바람직).

[전문가 21] 과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 있게 인성교육은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정에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케어와 교육이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와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가정에서 개인도 부모로서 일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현금 지원

가. 가족유형에 따른 현금 지원의 중요도

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이 가족유형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은 유형별 중요도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의 중요도는 평균 3.3점(SD=1.3),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3.5점(SD=1.4),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은 평균 3.1점(SD=1.3),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3.3점(SD=1.4),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0점(SD=1.4),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0점(SD=1.4)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 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가 적을수록,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 사별, 미혼으로 인하여 1인 양육자 가족의 경우는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6〉 영유아 양육 가족유형별 현금 지원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3.3	1.3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3.5	1.4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3.1	1.3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3.3	1.4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	4.0	1.4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	4.0	1.4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매우 중요하다(5점)

나. 가족 조건에 따른 현금 지원의 차등·우선순위와 방식

현금 지원은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2.6점(SD=0.9)으로 나타났다.

〈표 5-7〉 가족 조건에 따른 현금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현금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른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6	0.9

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4점)

현금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이유와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가구 유형보다는 가구의 소득과 양육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2] 가족다양성에 따른 차등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함.

[전문가 7] 현금 지원의 경우 양육자가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금 지원은 일차적으로 빈곤가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적절함.

[전문가 9] 가족 조건보다는 가족의 소득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전문가 10]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 15] 가족 구조,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수가 아닌 양육자의 실제적인 소득수준과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를 고려하여 현금 지원.

[전문가 20] 단순히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아닌, 가구 총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23] 원론적으로 현금 지원은 가족유형보다는 가족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가적으로 차등적 또는 우선적 조건은 1인 양육자 가족(한부모, 미혼모 등)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 현금 지원 수당은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 외에 경제적 수준, 아동의 특수한 욕구(장애 등), 한부모가족(미혼부모가족)의 추가적 필요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전문가 5] 가구 유형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인 양육자 가구에 비해 돌봄 서비스 수요가 높아 양육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높아지므로 해당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적 수당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필요하다면 부가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당수당은 가족유형, 아동 수, 아동연령 범위를 넓히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전문가 8]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에 추가하여 부모의 소득상황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이 적은 가정과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전문가 11]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단, 자녀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13] 아동수당일 경우, 차등은 불필요함. 아동 1인당 성장지원이기 때문임. 그러나 양육지원 방식이라면, 맞벌이 가구의 시간 부족이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고, 모든 서비스가 무상이 아닌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필요"의 개념이 다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14] 현금 지원은 아동 수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문가 24] 현금 지원(수당)은 가족 형태보다는 취학 전 아동의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배수로 늘어나기보다는 2명, 3명으로 늘어나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상한선 적용). 1인 양육자 가족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은 현금보다는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다. 현금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 조건을 잘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점 및 개선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이 잘 반영된 현금 지원(수당)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은 아동수당으로 통합하고 추가 수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추가 수당은 세제혜택, 빈곤가구 추가 고려, 아동 수, 주거수당, 발달장애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 양육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과 경제적 수준, 가족 형태, 특수한 아동 욕구를 반영한 추가 수당 지급. 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 대상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적 공제, 비용 공제 등의 급여와의 중복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전문가 6] 아동양육수당의 폐지와 아동수당의 확대 필요.

[전문가 13] 주거수당, 발달장애아 수당 등 필요에 기반한 추가 수당 설계가 필요함. 아동수당 액수가 빠른 시일 내에 오르거나 추가 수당이 신설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수당의 설계도 고려해볼 수 있음.

[전문가 19] 현재 아동수당이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될 필요가 있다면 기본적인 수당 외에 자녀 수(예를 들어 둘째 자녀 이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으로는 소득과 경제활동 수준을 고려하여 빈곤가구에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1인 양육자 가족이나 비경제활동 가구의 경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7]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보다는 빈곤 가족의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한부모가족의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9] 가족유형 자체보다는, 양육 자녀 수와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함.

[전문가 16] 가정의 소득수준(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과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현금 지원의 정도에 차등화를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20] 단순히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아닌, 가구 총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 밖에 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돌봄 비용 지출 양태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금급여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전문가 1] 양육수당과 같이 아동과 양육자를 고립화하는 가정 내 보육을 지원하고 성평등적 관점에도 역행하는 현금급여는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아동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수당으로 족함. 서비스 질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8] 실질적으로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 필요.

[전문가 12]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전문가 17] 다양한 유형의 돌봄 상황(돌봄 비용 지출 양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실질적이고 차등적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보편적 보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음.

3. 시간 지원

가. 가족유형에 따른 시간 지원의 중요도

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시간 지원을 가족유형별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사 문항은 유형별 중요도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의 중요도는 평균 3.5점(SD=1.1),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3.8점(SD=1.1),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가족유형은 평균 4.6점(SD=0.6),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가족유형은 평균 4.8점(SD=0.5),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9점(SD=0.4),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유형은 평균 4.9점(SD=0.4)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 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가 많을수록,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혼 상태가 이혼, 사별, 미혼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각각 4.9점을 보여 시간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시간 지원은 돌봄 지원 시설 및 서비스 지원, 현금 지원보다도 전체적으로 중요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는 시간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5-8〉 영유아 양육 가족유형별 시간 지원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형1)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1명	3.5	1.1
(유형2) 2인 양육자 가족 중 1명만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3.8	1.1
(유형3)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1명	4.6	0.6
(유형4) 2인 양육자 가족 중 2명 모두 경제활동 & 아동 2명 이상	4.8	0.5
(유형5) 이혼, 사별한 1인 양육자 가족	4.9	0.4
(유형6) 미혼 1인 양육자 가족	4.9	0.4

주: 전혀 중요하지 않다(0점)~매우 중요하다(5점)

나. 가족 조건에 따른 시간 지원의 차등·우선순위와 방식

다음으로는 시간 지원(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은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2.7점(SD=1.0)으로 나타났다.

〈표 5-9〉 가족 조건에 따른 시간 지원의 차등 또는 우선순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시간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른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7	1.0

주: 전혀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4점)

시간 지원에서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이유와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1인 양육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혼, 사별, 미혼 가구의 경우 2인 양육가구와 동일하게 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1] (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은 일하는 근로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모 중 한 사람만 일하고 있는 가족, 혹은 한부모만 있는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 특히 한부모는 (양부모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양부모가 있는 가족에 비해 아동을 키우는 데 육아휴직과 관련된 혜택을 절반만 사용할 수 있음(아동단위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 급여기간과 혜택이 산정됨).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 있음.

[전문가 6] 한부모가구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필요.

[전문가 8] 한부모의 경우 홀로 부모 2인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2인 양육자와 유사한 수준

으로 육아휴직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9] 시간 지원을 부모가 각각 사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인 상황에서, 한부모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절반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임. 따라서 부모가 사용하는 시간의 총합을 한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

다음으로는 가족유형보다는 가족의 돌봄 공백 시간이나 양육자의 시간 사용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 수나 아동 연령, 양육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2] 시간 지원은 가족 조건이 아니라 개별 가족의 돌봄 공백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즉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전문가 7] 시간 지원 서비스의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아동의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야 함.

[전문가 9] 전반적으로 전업주부와 취업맘 간 차별을 두는 시간 지원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봄. 전업주부도 사회활동과 취업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시간 지원정책을 해야 함.

[전문가 20] 가족 내 종일 양육 가능자의 여부 및 양육자 직업의 유연근무도 등의 시간 지원 여부가 기준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한편, 시간 지원에서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이기보다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간 지원은 고용주에 의해 적용되는 지원이므로 승진의 불이익이나, 낙인감, 경력단절로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3] 시간 지원은 아동의 수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권리가 아닌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로 접근해야 하므로 가족 조건에 따라 차등 또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부적절함.

[전문가 14] 고용보험 가입자의 권리로써 가족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로 보장되며 사업장에 따라 조건 및 실시 여부에 격차가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낙인과 차별이 있다는 지적도 많음.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돌봄 책임자에 대한 낙인, 더 나아가 경력 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고려도 반드시 필요함.

[전문가 23] 가족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가족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다. 시간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 조건을 잘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점 및 개선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 상황이 잘 반영된 시간 지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에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의견은 1인 양육자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인 양육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시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2인 양육 가족과 동일하게 총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배의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7]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양육자가 1명인 가족(5번, 6번)의 아동은 2명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양육자가 1명인 가족은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2배가 되어야 할 것임.

[전문가 9] 한부모와 부모 가족 간 시간 지원의 총량을 맞추는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함. 가족유형 자체보다 아이의 상황(장애 여부), 아이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시간 지원정책이 필요함.

[전문가 13] 한부모가구의 활용 가능성 대폭 확대.

또한 시간 지원을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음에는 소득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원 제도가 필요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 1인 경제활동 가구의 경우 시간 지원을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 상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간 지원은 가족 형태로 차등 지원을 하기보다는 가족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 14] 자녀 돌봄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족생활과 경력을 함께 지속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가족돌봄휴가의 확대 및 유급화가 필요함.

[전문가 19] 혼자서 일을 하는 외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급여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경제적 상실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함. 또한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부모/외벌이 가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시간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전문가 20] 시간 지원에 있어서만큼은, 현금 바우처 등의 산정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산정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봄.

[전문가 22] 기본적으로 시간 지원은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모든 근로자들이 시간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임.

[전문가 24] 시간 지원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양육자뿐 아니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양육자가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결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함. 시간 지원은 소득의 손실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의 형태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의 욕구(양육자 근로활동, 아동의 수, 임신과 출산 시기, 아동에게 건강 및 발달상 특수한 욕구 발생 등)에 맞게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가가 중요할 것 같음.

시간 지원에 있어서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직장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 지원 대상자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많은 가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전문가 1] 육아휴직 적용범위 확대(자영업, 특고 노동자 등),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범위 확대: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임.

[전문가 3]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휴가제도를 실제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전문가 6] 현재 고용보험에서 운영되는 육아휴직을 건강보험과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전문가 15]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무지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 지원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 지원 활용이 모든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자리 잡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임.

[전문가 16]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이러한 시간 지원을 근로자에게 해주는 기업이나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이러한 제도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시간 지원 자체보다는 사회적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며, 모든 부모가 특정 기간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돌봄자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휴가나 자기 돌봄 시간 등의 광범위한 돌봄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전문가 10] 특정 유형의 가족, 특정 성별,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휴가, 휴직, 단축근로 확대 포함)이 필요.

[전문가 14]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자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위한 시간 지원을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가 제도(광범위한 가족돌봄휴가, 자기돌봄시간 등)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제3절 가족 정책에서의 가족다양성

1.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유형 구분에 대한 견해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유형은 구분되어야 하는지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나 미혼모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 등과 같은 별도의 개별 정책이 있어야 하는지 등 가족 정책에 있어 가족유형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의견은 크게 세 가지 형태였다. 먼저, 구분이 필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 정책은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므로 가족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가족유형의 구분이 가족 정책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의견이었다. 가족유형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편적 접근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며, 낙인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1] 통합을 하면서도 개별 집단의 추가적 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주의 내에서 타게팅”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전문가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은 가족유형별 구분을 지양하고 있음. 가족다양성 증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음. 가족유형별 별도로 적용되는 개별적인 가족 정책은 해당 가족유형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목표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7] 장기적으로 가족유형이 가족 정책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 유형별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유형이 가족 정책 실행의 기본 준거틀이 될 수는 없음.

[전문가 8] 가족유형을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각 가족의 구체적인 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전문가 11] 가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취약한 가족원을 돌보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 13] 지나친 세분화와 별도의 구분되는 전달체계 설계는 오히려 가족 간 수용성 증대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집행하되, 특별욕구에 대해 반응성 있는 서비스와 시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19]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은 보편적 정책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분하여 가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음. 다만 취업 부모와 다자녀 가족, 상대적으로 돌봄 자원이 부족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가족 정책 외에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이 가능한 정책들을 개발 또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

반대로 가족유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가족 정책 패러다임 자체에서 가족을 단일범주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미 가족유형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가족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므로 포괄적 가족 정책으로 개별적 욕구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 가족유형에 따른 지원이 달라져야 하므로 가족유형에 따른 구분은 필요함.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가구, 미혼부모가구, 조손가구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 이미 유형 구분이 되어 있음. 다만 법령 또는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족유형에 따른 시설, 서비스, 수당 등의 적절성과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러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재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5] 가족 정책에서 가족유형은 구분되어야 하며, 가족 정책 전반으로 개별 가족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개별 가족유형별 지원정책을 별도 수립되고 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즉, 가족 변화 전반을 반영한 가족 정책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에서 나아가 개별 가족유형별로 애로사항과 욕구 그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성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전문가 10] 가족 정책에 있어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총론적인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이 '가족'이란 단일한 범주가 아님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야 함.

[전문가 15] 가족유형에 따라 특화된 개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족유형별로 다른 유형의 가족과는 차별적으로 독특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가 반영된 개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전문가 16]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족 정책 외에도 가족유형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20] 가족유형을 나누는 기준과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각 기준에 따른 분류가 때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다양한 정책의 나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특정 가족유형 중 현대 한국 사회에서 데이터로 검증된(evidence based) 취약 유형의 가족은 별도의 개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21] 가족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족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자녀 수와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는 물론이고 가구소득과 돌봄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다른 의견으로는 개인 단위의 가족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아동, 부모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유형 보다는 가족의 생애주기, 욕구 등이 반영된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6] 가족 정책의 단위는 역설적이지만, 단위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구성되는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가족이 아니라 개인 단위의 가족 정책.

[전문가 8] 가족유형을 구분하여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각 가족의 구체적인 욕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급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욕구는 소득, 자녀 수, 양육자 수, 돌봄환경(주변의 서비스인프라)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음.

[전문가 22] 가족유형에 따른 구분보다는 가족의 생애주기나 아동의 욕구에 따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2. 가족다양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

이번에는 현재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족다양성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양육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양육자의 조건, 욕구,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돌봄 지원이나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5] 가족유형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양육에서 차별화된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양육자의 애로사항에서 나아가 양육자의 특성이나 가구 여성에 따라 아동권리 및 발달 측면에서 결핍된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12]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은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전문가 14] 보육서비스의 기본틀이 '1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의 니즈를 포용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함. 2인 양육자가 모두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맞벌이), 보다 유연한 선택지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15] 가족의 유형별로 다양한 가족이 처한 독특한 상황과 가족의 니즈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 17] 아동 양육의 측면에서 가족다양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족유형은 가족원 수나 경제활동, 돌봄자의 혼인 양태에 따른 다양성뿐만 아니라 동거/비동거 가족의 양육 활용 등의 실질적인 돌봄 실태가 반영된 가족유형의 파악이 필요함.

다음으로는 아동의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으로는 가족형태 이외에도 아동의 특성, 연령, 아동 수, 아동의 건강 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아동, ADHD 아동 등 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전문가 7]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관점에서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취학 전 아동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생존권과 보호권은 가족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11]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결혼 지위나 인종/민족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수준 및 자녀 수, 자녀 연령대임. 이러한 조건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 21] 그동안에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구소득에 주로 집중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상태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녀가 신체적 장애나 ADHD, 자폐 혹은 정서불안 등의 정신적 장애를 앓는 경우도 있고(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도) 부모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우울증, 각종 중독, 미성숙 등)를 겪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태를 다양성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는 가족의 다양성을 구분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육 자체 이외에도 가족의 고립이나, 양육

자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전문가 5] 양육자의 애로사항에서 나아가 양육자의 특성이나 가구 여성에 따라 아동권리 및 발달 측면에서 결핍된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9] 이른바 '가족다양성'에 맞추는 정책을 하는 순간,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난다고 봄. 가족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규범 및 가치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족다양성'과 관계없이 아이 중심 보편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봄.

[전문가 10] 돌봄 시설 및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한편 양육자의 조건과 욕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돌봄 지원 방식이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겠음

[전문가 14] 1인 양육자의 경우, 소득 감소나 시간 압박, 고립감 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자조집단 형성, 생활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임.

그 밖에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부모역량강화와 같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낙인감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족 정책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1] 과거에 비해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가족은 "그 외" 가족유형 정도로 간주되고 있음. 교육현장에서부터 점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임.

[전문가 2] 가족다양성 측면에서 일부 가족유형의 경우 아동 양육자로서 부모나 가족의 역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 대체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단, 특정 가족유형이 반드시 아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낙인은 지양하여야 함.

[전문가 13]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보너스 등의 설계에서 한부모가구가 의도하지 않은 penalty를 입지 않도록 조정(부모가 두 명이라는 대전제를 버리고, 부모가 1인인 경우, 2인인 경우 등으로 세분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과거에 고용보험료 납부기록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 정착 여부에 따라 연동).

[전문가 16] 현재 가족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가정 양립정책'이므로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과 직장생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전문가 23] 우리 사회에서도 근로자 아버지와 양육자 어머니로 구성되는 외벌이 가족이 '일반가족' 혹은 '정상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도 않으므로 남녀가 모두 일과 자녀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발전되어야 함

[전문가 24] 성별영향평가처럼 가족영향평가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족다양성이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3. 가족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가족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중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가족유형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어떤 가족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만성질병) 아동가족, 부모가 장애인인 가족, 한부모가족, 이주배경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을 뽑았다. 특히 장애아동가구의 경우는 경계성 지능이나 ADHD, 만성질병과 같은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욕구 파악이 필요하며, 비장애 형재자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3] '장애아동'으로 유형화되지는 않지만,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아동과 같은 가족 유형화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필요함.

[전문가 4] 장애아 자녀를 둔 취학 전 아동 가구(형제가 장애아인 경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미비함. 장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비장애아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할 수 있음.

[전문가 5]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육자가 사회적 적응의 과제를 안고 있고, 육아 관련 각종 정보의 접근성도 낮으며, 기관 이용 시에도 이용자 입장에서 소통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등 고유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전문가 8]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봄.

[전문가 10]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역시 2세대 가족에 속함. 이 경우 조부모 2인 가족이거나 해당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조부모 1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자녀에 대한 돌봄을 충분히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부모+손자녀 2세대 가족의 조건과 필요에 근거한 차등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14]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 입양 가족,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그런데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 가족다양성, 등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지, 아니면 보편적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틀 위에서 이들의 니즈를 녹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전문가 15] 장애 혹은 만성질병이 있는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특화된 시설 및 서비스가 필요하고 현금 및 시간 측면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와 만성질병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전문가 22] 미혼 1인 양육자 중 청소년기 1인 양육자는 더욱 취약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가 23] 다문화가족, 특히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다문화와 한부모라는 이중적 약자로, 빈곤, 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편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에서 소외되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체계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혼(사별)으로 부계 확대가족과 소원하고, 물리적 거리로 모계 확대가족과의 관계도 제한적이어서 가족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아동양육 가족 지원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가족유형을 구분하기보다는 가족의 욕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부모 역할을 교육하거나 아동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부모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전문가 2] 가족의 아동 양육 기능에 초점을 둘 경우 청소년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 있음. 따라서 청소년 부모에 관심이 필요함. 그러나 성인이라 하여도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차적인 아동 양육 기능을 하는 가족으로서 해당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을 경우 모두 보완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 아동 양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최소 생계, 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일 것임.

[전문가 6] 육아휴직의 보편화(비정규직, 자영업자,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 포괄).

[전문가 12] 추가적으로 고려할 가족의 유형이 있기보다는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돌봄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중요함.

[전문가 13] 적정 주거를 크게 벗어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 등 발달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성장발달의 여건을 점검하면서 양육을 지원하되, 부모의 역할과 사회(국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partnership을 구축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부족한 사회화만큼 지나친 사회화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

[전문가 21] 조손가족이나 부모가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대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전문가 24] 최근 취학 전 아동의 방임과 학대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기타 공공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가족 사례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족을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해 영유아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및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돌봄 방식, 양육 비용, 양육 시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족유형 구분에 있어 가장 큰 구분은 양육자 수에 따른 구분이다. 양육자 1인 가족과 양육자 2인 가족을 구분해 따로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 아동 연령, 경제 수준 등의 조건을 활용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양육자 2인 가족에 대한 특성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자료를 활용해 파악하였고,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한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자료와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1. 돌봄 방식 측면

가장 먼저 돌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돌봄 방식은 크게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자료가 서로 상이해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돌봄 경향을 보면,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이 많이 활

용되고, 2세 이상부터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4세 이상 아동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서비스 중에서 국공립시설 이용 구분이 가능한 양육자 2인 가족과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을 보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공립시설을 이용 비율이 증가한다.

〈표 6-1〉을 활용해 양육자 2인 가족과 양육자 1인 가족, 그리고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이 아동을 돌보는 방식을 비교해볼 수 있다. 4세 이상 아동에 대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로 비교할 수 있는데, 양육자 2인 가족이 0.7%로 가장 낮고, 그다음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결과를 활용한 양육자 1인 가족이 6.5%로 나타났으며,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은 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족 내 양육자 수가 2인으로 양육자 1인인 경우보다 양육자가 많은 가족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표 3-34〉의 결과에서 양육자 1인 가족이 아동을 기관에 보내지 않는 이유를 이 결과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1인 양육자 가족이 기관 이용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 이외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었다. 따라서, 1인 양육자와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한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6-1〉 조사별 아동 연령에 따른 주된 돌봄 방식

(단위: %, 명)

구분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및 기타	계	(명)
		국공립시설	민간시설			
양육자 2인	0~1세	3.5	20.8	75.8	100.0	(1,262)
	2~3세	15.3	74.2	10.6	100.0	(1,238)
	4세 이상	25.9	73.4	0.7	100.0	(1,323)
미혼모 양육자 1인	0~1세	10.5	33.2	56.3	100.0	(334)
	2~3세	22.1	56.7	21.2	100.0	(349)
	4세 이상	38.1	52.0	9.9	100.0	(302)
양육자 1인	0~3세	80.6		19.4	100.0	(62)
	4세 이상	93.5		6.5	100.0	(1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돌봄 방식은 아동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6-1〉에서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은 2세 이상부터 대부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에서 상세하게 아동 연령-양육자 경제활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세 이상 아동은 대부분 기관 서비스 이용으로 집중되어 있어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3세 아동은 많은 비율이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더욱이 0~1세 아동은 1인 경제활동 가족과 2인 경제활동 가족 모두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이 더 많았다. 양육자 2인 가족의 1인 경제활동 조건에서의 아동은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으로 돌보는 경우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도 아동의 0~1세 시기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으로 돌보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을 하더라도 아동 0~1세 시기는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으로 인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자 2인 가족과 비슷하게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도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 서비스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양육자 2인 가족의 결과에서와 같이 아동이 0~1세, 2~3세인 경우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돌봄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4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기관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2〉 주된 아동 돌봄 방식: 아동 연령-경제활동

(단위: %, 명)

구분		양육자 2인 가족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명)	χ^2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명)	χ^2
		국공립	민간				국공립	민간			
0~1세	1인(안 함)	2.1	15.7	82.2	(803)	52.0***	8.1	28.2	63.7	(248)	22.1***
	2인(함)	6.1	29.5	64.4	(461)		17.4	47.7	34.9	(86)	
2~3세	1인(안 함)	12.6	72.1	15.3	(653)	36.3***	18.7	50.8	30.6	(193)	22.8***
	2인(함)	18.2	76.5	5.3	(584)		26.3	64.1	9.6	(156)	
4세 이상	1인(안 함)	25.2	74.0	0.8	(608)	0.7	31.5	55.9	12.6	(111)	3.8
	2인(함)	26.7	72.8	0.6	(716)		41.9	49.7	8.4	(191)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소득수준-경제활동에 따른 아동 돌봄 방식은 소득수준의 각 그룹에서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가족 및 개인 방식의 돌봄을 더 많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이 차이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1인 경제활동 가족은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높아지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은 반대로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으

로 인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선택 비율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른 돌봄 방식 차이는 아동 연령 3세까지 나타났다. 소득수준-경제활동에서도 돌봄 방식은 차이가 나타났지만, 아동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아동의 연령 중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가 돌봄 방식 차이에 가장 중요 조건이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무상보육으로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 또한 유아학비로 기관 서비스 이용이 지원되고 있어 아동 각 연령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아동이 0~1세가 지나면 대부분 기관을 주된 돌봄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다양한 조건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때문에 조건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3세대 이상 가족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2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부모는 현대 사회에 일하는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돌보 지원군이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따로 살펴보았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아동 연령이 0~3세일 때, 2인 경제활동 가족일 때 조부모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아동이 0~1세일 때 양육자 2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조부모 돌봄을 가장 많이 받고, 소득수준-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2인 경제활동 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이 조부모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이 2명 이상이면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인 경우가 조부모 돌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의 조부모 돌봄에 대한 분석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 자료를 활용한 결과였는데,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조부모 돌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양육자 2인 가족의 10%보다 약간 높은 약 17%였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양육 가족이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양육자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 2인 경제활동 가족에 조부모 지원이 더 많았던 것과 같이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양육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1인 양육자 가족이 아동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여성 양육자 가족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조부모 돌봄 지원이 없는 가족보다 있는 가족의 기관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부모 돌봄이 없는 가족의 기관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자 2인 가족과 다른 경향이다.

양육자 2인 가족 중 돌봄 방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기관 서비스 이용 가족 중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양육자였다. 아동 연령-경제활동에 따른 분석에서 0~1세 연령 그룹 내의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가 모두 있어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연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0~1세 아동을 양육 중인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도가 가장 높고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가장 낮았다.

실제로 택한 돌봄 방식과 희망하는 돌봄 방식의 차이가 클수록 양육에 대한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이에 〈표 6-3〉에서 실제로 희망하는 돌봄 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가족/개인의 돌봄 방식에 대해서 2인 경제활

동 가족 전체는 실제(18.9%)보다 희망하는 비율(25.2%)이 높아지고, 1인 경제활동 가족 전체에서는 실제(37.1%)보다 희망하는 비율(34.8%)이 낮아져 경제활동에 따라 반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돌봄 방식과 실제 돌봄 방식을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기준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비교해보면, 0~1세 아동에 대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은 실제로 현재 아동을 가족 및 개인이 돌보는 경우가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특히 1인 경제활동 가족은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3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약간씩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2~3세 아동에 대해 1인 경제활동 가족은 개인 및 가족 돌봄에 대한 희망과 실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3세 아동은 가족이나 개인 방식으로 아동을 돌보고 싶은 경우가 있으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희망하는 만큼 충족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표 6-3〉 양육자 2인 가족의 아동에 대한 희망-실제 돌봄 방식: 경제활동-아동 연령

(단위: %, 명)

구분		희망			실제			(명)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국공립	민간		국공립	민간		
1인	전체	39.0	26.2	34.8	12.2	50.7	37.1	(2,064)
	0~1세	20.7	12.6	66.7	2.1	15.7	82.2	(803)
	2~3세	48.5	32.0	19.4	12.6	72.1	15.3	(653)
	4세 이상	53.0	37.8	9.2	25.2	74.0	0.8	(608)
2인	전체	43.8	31.0	25.2	18.5	62.7	18.9	(1,761)
	0~1세	25.9	17.6	56.5	6.1	29.5	64.4	(461)
	2~3세	47.9	33.8	18.3	18.2	76.5	5.3	(584)
	4세 이상	52.1	37.3	10.6	26.7	72.8	0.6	(716)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방식 만족은 양육자 2인 가족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아동 연령이나 돌봄 방식,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 4세 이상 아동인 경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아동이 성장해 4세 이상이 되면 3세 이하 영아보다는 주된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2~3세를 거치면서 현재 돌봄 방식에 적응하거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등의 과정을 거친 연령으로 더 어린 연령대의 아동을 돌보는 방식보다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 만족이 매우 약간 높아 보이기는 했으나,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돌봄 만족은 가족의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도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 혼자 아동을 돌보는 가족,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돌봄을 혼자 완전히 담당하며 육아의 어려움을 모두 감당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 어린아이 돌봄 및 관리가 어렵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부분의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양육자 2인 가족보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이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이유가 양분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양육자 1인이 자신의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 확보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아동의 영아기에는 본인 혼자 '독박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돌

봄 시간이 긴 것이 불만족의 이유이고, 아동의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4세 이상에는 미혼모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자신이 경제활동 하는 시간만큼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봄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 대해 〈표 6-4〉를 통해 확인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동 연령이 0~1세인 경우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약 2배 가까운 비율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동 연령이 2~3세인 가족의 경우만 실제 가족 및 개인 돌봄의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기관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 비율이 그 만큼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는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2~3세 아동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 2인 가족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없이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족 및 개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아동이 4세 이상이 되면 취학 전이라 해도 사교육이나 과외 활동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연령이다. 일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돌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용 때문인 응답 비율도 높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돌봄 방식에서는 4세 이상 아동이 높은

비율로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의 4세 이상 아동에 대해 오히려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아동 성장 초기부터 아동의 발달이나 교육에 대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표 6-4〉 양육자 1인(미혼모) 가족의 희망-실제 돌봄 방식: 경제활동-아동 연령

(단위: %, 명)

구분		희망			실제			(명)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기관 서비스		가족/개인 등	
		국공립	민간		국공립	민간		
안 함	전체	38.8	29.9	31.3	16.5	41.7	41.8	(552)
	0~1세	31.0	26.2	42.7	8.1	28.2	63.7	(248)
	2~3세	45.1	35.2	19.7	18.7	50.8	30.6	(193)
	4세 이상	45.0	28.8	26.1	31.5	55.9	12.6	(111)
함	전체	47.6	36.0	16.4	31.4	54.5	14.4	(433)
	0~1세	44.2	33.7	22.1	17.4	47.7	34.9	(86)
	2~3세	50.6	35.3	14.1	26.3	64.1	9.6	(156)
	4세 이상	46.6	37.7	15.7	41.9	49.7	8.4	(191)

주: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

양육자 2인 가족의 돌봄 방식과 관련된 정책 지원 욕구를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이나 유치원 이용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 연령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결과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발생해 돌봄 공백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야간 보육 활성화에 대한 욕구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욕구에서 현실과 희망하는 돌봄에 대한 차이로 보았을 때, 가장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국공립시설에서의 돌봄에 대한 희망으로 보인다. 크게 기관 돌봄과 가정 돌봄으로 구분해보았지만, 사실 기관 돌봄 안에서 국공립시설에 대한 희망은 매우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혼모 1인 양육자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의 4세 아동 경우에만 가장 근접하게 희망과 실제가 가까워져 있고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여전히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이 어릴수록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희망과 실제가 더욱 벌어지는 현실로, 의사표현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2~3세 아동에 대해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원하는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육 비용 측면

양육 비용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 사교육비, 돌봄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가족의 총 소비가 아닌 아동 1명에 대해 사용되는 비용 위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 중 가장 어린 아동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해당 비용 항목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자 1인 가족과 2인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 총비용을 비교해본 결과에서는 대부분 양육자 1인 가족보다 양육자 2인 가족이 아동 1명당 사용하는 비용이 항목별로 높고 결

과적으로 총 양육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양육자 2인 가족 내에서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비용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양육자 2인 가족 중 2인 경제활동,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1인 양육자 가족 순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 비용에서는 양육자 2인 가족 중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1인 양육자 가족의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양육자 2인 가족의 1인 경제활동과 여성 양육자 1인 가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양육비 항목을 사용하는 가족으로 한정해 양육자 2인 가족 내의 여러 조건에 따른 양육 비용을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양육자의 경제활동 조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의 소득수준-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은 2인 양육자 중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더 높았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가족은 양육자 중 1인만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가 아동 돌봄, 교육 등 아동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과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 아동에게 특별활동이나 기타 교육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활동이 만족스러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이 다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업비나 특별활동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아동 연령-소득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를 보면, 0~1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2~3세와 4세 이상 아동 그룹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비용이 높아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위한 비용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가족 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의 차이로 인해 아동 1명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반드시 활동이나 교육의 다양성이나 질 등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투입 비용은 아동이 접하는 활동 및 교육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의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는 매우 어린 아동기부터 기회의 차이를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시점에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약 2세부터 나타나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4세 이상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로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도록 미루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는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어쩌면 이러한 차이가 0~1세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가족만 대상으로 알아본 사교육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뚜렷했고, 2인 경제활동 가족이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아동 1명에 대해 많은 사교육비를 사용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 0~1세에는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연령대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2~3세와 4세 이상 아동 연령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돌봄에 사용하는 비용은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타 아동에게 드는 양육비는 아동 연령이 낮고,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과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양육 비용을 더한 총 양육비에서는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아동 1명에 대해 드는 양육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의 각 연령대별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에 사는 아동의 양육 비용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차이를 보였고 각각의 항목에서 조금씩 벌어지는 차이는 총 양육비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양육 비용에서는 양육자의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3세 이상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가 더 높게 나타났고, 아동 돌봄 비용에서는 아동 연령 0~2세 그룹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이 하지 않는 그룹보다 아동 돌봄에 비용을 약 2배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 1인 양육자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동이 어릴 때는 돌봄 비용이 많이 들고,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육 비용과 관련된 정책으로 현금 지원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았는데, 현재 기관 이용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족이 받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양육자 2인 가족 중 아동 연령이 0~1세 일 때 이 지원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경제활동에 따라서 수당 지원에 대한 도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도움과 아동수

당에 대한 도움에 대해 미혼모 1인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도움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양육자 2인 가족 데이터에서는 자료가 부재해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만 알아보았는데, 가정양육수당보다는 도움이 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도움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양육에 돌봄 비용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드는 가족은 아동수당의 지원에 대한 도움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3. 양육 시간 측면

양육 시간은 아동 1명에 대한 시간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없어 양육자의 시간 활용으로 구분하였다. 평일을 기준으로 양육자 2인 가족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육 시간을 보여 여전히 가정 내 시간 중 아동 양육은 여성 양육자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양육 시간은 경제활동 여부, 가장 어린 아동 연령, 취학 전 아동 수, 소득수준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이고 남성은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 가장 어린 아동 연령, 취학 전 아동 수에 따라 양육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양육자가 일하는 경우, 아동 연령이 어린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는 다른 양상이 보이기도 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1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주말 양육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되지 않는 시간 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 차이가

평일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양상으로 여러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주말에도 경제활동 2인 가족의 남성이 경제활동 1인 가족의 남성보다 더 많은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에서 양육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자 2인 가족 중 아동이 1명인 가족을 대상으로 평일 양육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아동 연령과 경제활동에 따른 양육 시간 차이나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 양육자의 양육 시간은 감소하며, 아동 연령 3세까지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이 2인 경제활동 가족과 비교해 약 2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알 수 있고, 4세 이상 아동에게는 평균 약 1시간 이상 더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2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 육아시간이 1인 경제활동 가족의 남성보다 길고 모두 2시간 미만 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양육자가 돌봐주는 시간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2인 경제활동 가족에서 남성 양육자가 양육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시간 차이를 보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남성 양육자의 시간 차이다. 그러므로 아동 기준에서는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양육자와의 시간에 차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양육 시간이 매우 긴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미혼모 1인 양육자는 평균 약 7.6시간을 양육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이 6.9시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양육자의 양육 시간인 8.5시간보다 짧기는 하지만,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자 평일 양육 시간이 약 5.9시간인 점과 비교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이 약 2.7시간 더 길다. 양육자 2인 가

족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약 4.7시간(미혼모 1인 양육자: 6.9시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약 6.9시간(미혼모 1인 양육자: 8.5시간)인 점을 생각해보면,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이 약 1.5시간 이상 더 긴 양육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 양육 시간은 평균 7.4시간이었으나 미혼모 1인 양육자 여성은 토요일 약 10.8시간, 일요일 약 11.4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주말에 남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의 양육 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평일과 주말 사이 양육 시간 차이가 미혼모 1인 양육자보다 크지 않다.

종합해보면, 가족 내 여성의 양육 시간은 남성보다 매우 길며, 여성 1인 양육자의 경우에는 1~2시간조차 양육 시간을 규칙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양육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간 부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시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할 수 있다. 또한, 양육자 1인 가족은 주말이 되어도 다른 양육자로부터의 시간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일의 시간 부족에 대한 보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양육에 따른 소진이 일어날 수 있고, 양육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은 영유아에게는 매우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시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2인 양육자 가족 중 2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1인 양육자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양육자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여성은 직장과 가정생활 병행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 1인 양육자 가족에서는 다른 양육비나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정책 욕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혼자 양육하고 경제활동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족에게는 시간 부족 문제에 정책을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 아이를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이 줄 수는 있지만, 그 줄어든 만큼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어, 양육자 1인 가족의 어려움은 줄지 않고 다른 어려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육아기 시간과 관련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성의 휴직 사용보다 보편화된 경향을 보이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 양육 중인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령이 더 어린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양상이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동 연령을 양육하고 있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여성과 같이 최근에 아이를 낳은 가족일수록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약간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는 2인 경제활동 가족이, 아동 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성 육아휴직 경험 비율이 높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으나 육아휴직 경험자가 많지 않아 세부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 육아휴직과 여성 육아휴직 모두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에서도 상용직에서의 집중적인 사용이 발견되었는데 여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특정 종사상 지위에 한정된 보편화 현상일 수 있어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자영업자는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얼마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육아휴직과 같은 시간을 갖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아직 제한적이며,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육아휴직 중요도에 나타난 결과로 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 중요도가 여전히 높아 이용 경험률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보다 더욱 제한적인 선택사항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제2절 정책 제언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가족의 다양한 조건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양육 환경 및 특성을 바탕으로 영유아 양육을 위한 가족 정책에 있어 시사점을 찾아본다. 그 과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해외사례를 이용해 더 실질적이고 선진적인 아동 양육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아동 양육 정책이 돌봄 서비스, 비용,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양육 특성 및 욕구 파악 또한 이 순서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정책 제언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관련 내용을 순서대로 먼저 짚어보고 그 외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뒤이어 다루기로 한다.

1. 돌봄 방식 관련 정책 제언

가. 1세 미만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 확충

양육자 1인 가족과 2인 가족 모두 공통적으로 0~1세 아동은 개인이나

가족 돌봄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 많고, 2세 이상부터는 기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들이 선택한 이 실제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돌봄 방식과 비교해보면, 괴리가 나타난다.

양육자 2인 가족이나 양육자 1인 가족 모두, 그리고 양육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실제로 그 방식의 돌봄을 하고 있는 비율이 더 많았던 것이다. 0~1세 아동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기준으로 보면 0~1세 아동과는 반대로 실제보다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현재 개인이 돌보고 있지만 기관에 보내고 싶은 비율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에서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2~3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이다. 이 경우는 실제 가족 및 개인 돌봄의 비율이 희망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종합해보면,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기관 돌봄 방식을 원하는 가족이 많으며, 나머지 연령에서는 실제보다 개인 및 가족 돌봄 방식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다. 단,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2~3세 아동을 원하는 만큼 기관 돌봄 방식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관 돌봄 중에서도 모두 국공립시설 돌봄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희망하는 비율에 미치는 그룹이 없었다. 또한, 0~1세 아동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에 대한 희망과 실제의 차이는 양육자 2인 가족에서는 1인 경제활동 가족이 2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크고, 양육자 1인 가족에서는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의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 중에는 기관 돌봄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돌보는 방식을 택한 비율이 더 많을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공립 및 공공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중요도에서 다른 연령보다 0~1세 아동 양육 가족에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영아기 아동을 기관 돌봄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족 및 개인 돌봄으로 0~1세 아동을 돌보고자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라면 자신의 의지보다는 상황에 의해 돌봄 방식을 택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0~1세 아동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은, 현재 일을 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양육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수요 파악을 통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3세 미만 어린 아동 돌봄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원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사한 문제를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독일은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육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보육서비스 확대]

독일의 보육서비스는 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되어왔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전업주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전반적으로 어머니취업률이 2018년 기준으로 69%에 불과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어 왔다. 실제로 2018년에도 3세 미만 아동의 전일제보육 이용률은 16.5%에 불과하였다. 그로 인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영유아아동의 전일제보육 이용률을 35%로 상향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3~5세 아동의 전일제보육 이용률도 같은 기간 동안 45.9%에서 70%로 높이기로 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19, p.7).

또한, 영유아기 아동 양육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 등에 대한 문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려움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몫이 너무도 쉽게 다시 가족에게 돌아온다. 가족 내에 돌봄을 담당한 양육자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은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이러한 돌발상황이 일상이 된 측면이 있다. 아동은 집에 있어야 하고 양육자는 일을 해야 하는 생활이 장기간 이어진 것이다. 아동 돌봄이 다시 가족의 책임이 되어버린 일상을 경험해야만 했는데, 믿고 맡길 곳이 아니라 맡길 곳 자체가 없어진 상황을 모든 영유가 양육 가족이 경험한 것이다. 앞으로의 영유아 돌봄 지원기관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인 동시에 돌발 상황을 감당해주는 서비스를 겸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 기관 내의 인력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양육자가 긴급상황에 곤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계기로 정비해야 할 돌봄 정책은 매우 돌발적인 상황을 감당해주는 서비스를 가족 대신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긴급상황을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초석이 될 것이다.

나. 영유아 돌봄 방식에 대한 가족의 선택 자율성 확대

양육자 2인 가족에서 두 양육자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에서는 가족 및 개인 돌봄 방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가 직접 돌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조부모나 친척 또는 다른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조부모나 개인 돌보미 서비스 등 이외에, 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아동에게 다양한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예체능 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2인 양육자 경제활동 가족 중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가족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해당 기관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더 많은 사교육 기능, 높은 서비스 만족 등으로 인해 학원으로 분류된 사설 기관을 이용한다. 실제 만나본 양육자 중에도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를 이용하는 아동을 둔 양육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두 2인 경제활동 가족이었는데, 아이가 3세 이상이 되면서 놀이학교에서의 생활을 일반 어린이집보다 즐기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고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관의 교사는 양육자와 아동에게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아동이 먹는 식사나 간식의 수준, 놀이기구 및 교육의 양과 질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아동 발달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만난 양육자는 반드시 고소득이어서 놀이학교와 같은 형태의 기관에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아이가 예민해서 어린이집에 적

응을 못 하고 아침마다 등원이 어려웠는데, 놀이학교에서는 적응을 잘해서, 즉 기관이랑 아동이 잘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험이었다. 이 경우의 양육자는 어린이집 대신 다른 기관을 택한 것인데 지원은 가정양육수당으로 받게 되어 자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자영업자 양육자 또한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 9시나 10시가 돼야 일을 마치는 상황으로 최대한 늦게까지 기관 보육을 이용하려다 보니 어린이집을 마치면 다른 학원을 가도록 아이 스케줄을 관리해왔었다.

반드시 여유 있고 형편이 좋아서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양육자들은, 매달 지원되는 일정 금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용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금액을 가족 내 사용이 아닌 기관 사용에만 지불되도록 하고 기관 선택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 방식은 기관 사용에 있어 또 다른 격차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도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보육의 시작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라면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이 어느 기관이든 가족 내 돌봄이 아닌 기관 돌봄 방식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양육 비용 관련 정책 제언

가. 영유아 양육 비용 격차 해소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영유아 기관 이용에 대해 보편 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통해 기관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에 지불하는 특별활동비, 간식비 등 과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육자 2인 가족 아동 중 0~1세 아동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용률도 낮고 특별활동과 같은 과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작은 특징이 있다. 그러나 2세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4세 이상 아동은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사교육비에서도 나타난다. 역시 사교육을 시작하기 전일 확률이 높은 0~1세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세 이상이 되면서 차이가 나타났고, 4세 이상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보육료를 사교육비에 투자할 여유가 되는 가족의 영유아는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영유아 시기부터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 기관 이용비 지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격차가 이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교육비로 나타나는 차이까지 당장 줄일 수 없지만, 아동이 2세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료와 사교육비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완전 무상보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아동이 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만큼을 국가

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영유아기만큼은 아동이 지원받는 기회가 형평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 지원인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만 하는 가족의 격차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우 2~3세 아동을 마음으로는 기관에 보내고 싶지만 가족 및 개인이 돌보는 비율이 실제로는 더 높게 나타난 것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12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양육을 할 경우 20만 원 지원, 12개월 이상-23개월 아동에 대해서는 15만 원 지원, 그리고 24개월 이상 아동을 가정양육 하는 경우 10만 원을 지원(복지로 홈페이지b[13])하고 있어서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0~1세 아동 이외에는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 중 경제활동을 안 하는 가족에서는 양육자 2인 가족이나 미혼모 양육자 1인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2~3세 아동과 달리 가족 및 개인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희망하는 만큼 기관 이용 비율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 및 개인 돌봄 비율이 높다. 여기에는 어린 아동을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자가 직접 돌보고 싶은 돌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원하는 돌봄 방식을 바꾸는 요인이 되는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중에도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통합하고 아동수당은 아동 1인의 성장에 대한 지원으로 보편 지원의 형식을 취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급여를 설계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추가 수당에서 양육자 수나 가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3)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에서 2020.11.10. 인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아동수당과 추가 아동수당을 찾아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양육자를 중심으로 한 부모 수당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독일 각종 수당형태의 현금급여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 조치]

독일에서 저소득 가족의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2.8%에 불과하여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평균인 6.7%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소득(평균소득 13,184 유로)은 핵가족의 소득(평균 19,034 유로)보다 낮으며, 핵가족의 소득은 무자녀부부의 소득보다 적어서 가족유형 간 격차가 발생된다. 이렇듯이 가족유형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19, p.7).

* 독일의 경제적 지원, 시간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부록] 참고.

나. 양육자 1인 가족의 경제적 지원 수준 및 방식 개선

1인 양육자는 양육의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진다. 또한, 시간 부족을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2인 양육자 가족에 비해 양육비는 더 들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취약하기 쉬운 구조이다. 이러한 1인 양육자 가족의 아동이 격차를 경험하며 성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족의 조건을 세분화해 반영하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인 양육자 가족에 대해 현재 한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부분적으로 양육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양육자 가족을 더욱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1인 양육자 가족은 그동안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양육비(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중위소득 30% 이하로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성가족부, 2020.9.24.). 이러한 변화는 생계와 양육을 1인이 책임져야 하는 1인 양육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가족이라도 더욱 어려움과 취약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가족의 조건을 반영하는 변화이지만, 하나의 제도에서 다양성을 충분하게 다루면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에도에서 물론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한 지원만큼은 가족 내 양육자 수, 아동 수, 연령 등을 반영한 세분화 및 다각화된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성인 2명으로 구성된 2인 가구와 성인 1명과 영유아로 구성된 2인 가구는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상대적 크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취약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매우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은 주요 제도에서 가족의 조건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없도록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시간 관련 정책 제언

가.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한 시간 지원 보상

양육자 2인 가족에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은 1인 경제활동 가족보다 시

간 부족 현상을 더 경험하고, 양육자 2인 가족보다는 양육자 1인 가족,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 1인 가족은 시간 부족 경험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준에서 보면 양육자 1명인 가족의 아동은 양육자와 지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반만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양육자 2명 가족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아동이 2배의 시간을 양육자와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양육자 2인 가족의 2인 경제활동 가족의 아동은 양육자 2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아동 양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지지만,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은 1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아동에게 양육자와의 시간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차별적인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입장에서 양육자 육아휴직 기간 총량은 아동에게 차별없이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즉, 아동 1명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그 아동은 총 2년 이내의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은 총 1년 이내의 부 또는 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갖게 되어 양육자 1인 가족의 아동을 위한 육아휴직은 절반만 허락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해외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아동을 중심에 놓는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Leah, 2020.2.6.). 양육자 1인 가족은 한 명이 두 명과 같은 양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이 받는 기준에서 육아휴직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핀란드 아동 중심 및 성평등 관점의 육아휴직]

현재 핀란드 육아휴직은 158일로 정해져 있고, 한부모가족에 대해 54일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ela Homepage[14]). 2021년부터 시행할 새 정책은 아이를 가족이 받는 혜택의 중심에 두면서 복지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동을 중심에 둔 육아 정책을 펼치기 위해 부모가 각각 근무일 기준으로 약 7개월에 해당하는 164일간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일 경우에는 부모 2명이 받는 육아휴직 총 날짜와 같은 328일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Leah, 2020.2.6.). 부모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더한 만큼 한부모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는 15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아동 돌봄을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2인 경제활동 가족이나 양육자 1인 가족이 심각한 수준의 돌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아동을 돌봐줄 곳을 찾다가 해결되지 않자 아동을 일시적으로 입양해줄 가족을 찾는 일이(이윤주, 2020.3.4.)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긴급 상황에서 양육자 1인 가족은 돌봄에 있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0일 가족돌봄휴가에 재난 시 추가 연장을 할 때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해 2인 양육자 가족의 추가 일수인 10보다 5일 더 많은 휴가 일수를 부여받는, 비록 제한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1인 양육자와 아동

14) https://www.kela.fi/web/en/parental-allowance에서 2020.10.20.인출

의 상황을 반영한 상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로 보인다.

전문가 의견에서도 시간과 관련된 개선점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자 1인 가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고, 이와 함께 어느 직장을 다니든 시간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적으로 양육자 1인 가족은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계 활동을 줄여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려다 보면 돌봄 공백에 쉽게 마주해 생계 활동-돌봄 사이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해야 하는 제3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휴가나 휴직 일수의 증가로 바로 극복되지는 않는다.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사용될 것이며, 양육자 1인 가족의 양육자는 직장에서는 근로자 1인이 되기 때문에 이 근로자 1인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법에 정해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가족돌봄휴가의 변화처럼 아동 양육을 위한 정책은 아동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나. 시간 지원 사용의 격차 해소 및 유연성 확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조건이 양육자 역할에 격차를 만드는 현상을 줄여야 할 것이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결과에서 임시·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2018년도에 육아휴직 사용자 중 65.0%가 정부기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다(통계청, 2019. 12. 18, p.22). 이

는 아동 기준에서 보면, 양육자의 근로자로서의 조건에 따라 양육 받을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자원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 중요도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는 그 지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중요도가 더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에게 아동-양육자의 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양육자에 대한 시간 지원도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의 아동 0~1세 양육 경험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업고 일을 해야만 했던 어려운 시기를 기억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둘째 아이를 낳고 싶지만 포기한 상황이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양육자는 근로자이지만 육아휴직과 같은 권리가 주어질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는데 남녀 양육자가 동일 자영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한 명에게라도, 몇 달간만이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욕구를 드러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양육자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육아휴직을 포함한 육아기 시간 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임에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양육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삶과 양육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동시에 현재까지 시간 지원 활용 대상이 아니었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양육자와 아동이 형평한 시간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최종의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의 변화로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육아기 동안 시간과 관련된 정책들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자가 단기간으로 육아휴직을 더욱 단기간으로 사용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사용 가능한 횟수를 확대해 근로자가 본인 및 가족의 상황에 맞게 동일 기간이더라도 사용 횟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가산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육아휴직에서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돌봄 휴가로 사용하는 등 시간 정책 내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다양한 아동 양육 가족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제도가 될 것이다.

다. 양육자 2인 가족의 성평등한 시간 제도 사용 환경 마련

아동 양육에 대한 정책은 지금보다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동시에 아동 양육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전제를 한 정책이 필요하다. 양육자 2인 가족 내에서 육아시간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육아를 돕는 존재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보조자 역할은 제도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실제 사용은 여성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육아휴직 사용도 증가하는 등 과거와 비

교해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018년 육아휴직 신규 사용자 9만 9,199명 중 남성 사용자는 1만 7,662명이었는데 이는 2017년도와 비교해 46.7%가 증가한 비율이었다(통계청, 2019. 12. 18, p.21). 그러나 아동 양육 시간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양육에 할애하며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높아 남성은 여전히 양육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성별 분업의 통념이 현실 가족에 남아 있는 한 여성은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고 근로자가 되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동시에 가장 우선되는 역할은 아동의 돌봄자로 인식되기 쉬우며,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은 남성의 부차적인 역할로만 남아 있게 된다.

2018년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만 0~만 8세 아동을 양육 중인 대상 근로자는 284만 7,721명이었다. 이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4.7%이며, 그중 여성 양육자는 11.9%, 남성 양육자는 1.2%에 그친 것(통계청, 2019. 12. 18, p.22)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평등한 양육자 역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단축근로 등 아동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제도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유럽국가 중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족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독일에서도 변화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가족 정책은 오랫동안 1인 생계부양 모델로 평가되어 왔으며 남성과 여성 간의 전통적 성별 분업이 가족 정책을 통해 공고화되었다. 그로 인해 양육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북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았고, 3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보육서비스의 발달도 지체되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전후하여 심화된 저

출산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독일 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부터 가족 정책의 목표는 '일-가족 양립'으로 설정되어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의 변신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독일에서는 '부모 공동의 일-양육 양립을 위한 파트너십'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부모 공동 일-양육 양립을 위한 파트너십 지원]

최근에 독일 가족부(BMFSFJ)는 가족 정책의 목표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1단계에서는 일-가족 양립'의 실현,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강화와 아버지의 돌봄 강화를 통한 '파트너쉽(Partnerschaftlichkeit)'의 실현, 3단계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Wirtschaftliche Stabilitaet)'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19: 5).

위와 같은 가족 정책적 목표의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내용 안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부모수당(Elterngeld)과 부모 시간(Elternzeit)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부모수당과 부모 시간은 부와 모 중 한 사람이 수급을 하거나 부모가 분할하여 수급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가 파트너쉽 관계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수당과 부모 시간을 수급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 29~3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20a: 10~78). 즉, 이 제도들은 일과 양육이라는 삶의 두 축이 부와 모 모두에게 공통으로 실현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런 결과, 부모수당과 부모 시간 수급자인 아버지들의 비율은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37.5%였는데 독일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이를 50%로 상향시키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19, p.7).

4. 기타 제언

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통합적 양육 지원 정책 설계

이혼은 과거보다 증가하였고, 매해 일정 비율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이혼보다는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것, 미혼보다는 기혼 상태에서 출산하는 등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유형에 제도적·인식적 차별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19세기 유럽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제도상 배제하는 등 실제로 차별을 두기도 했다(Ronfani, 2003; 김희자,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혼인 관계 유지에 대한 절대적인 필수성이 사라졌고 가족 형성이나 해체에 대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Ronfani, 2003; 김희자, 2008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는 1인 양육자 가족과 2인 양육자 가족 간의 구분이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양육자 수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자 수가 같다 하더라도 아동 양육 가족에 대해 아동 연령, 소득수준, 또는 아동 수 등 가족마다 가진 조건을 조합해 아동 양육 환경 및 특성을 바라본 결과 흔히 동일 유형으로 구분하는 가족이라도 그 안에서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계속 탄생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아동 양육정책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 가족의 조건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중요해 보인다. 가족다양성은 가족유형을 네이밍(naming) 하는 방식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 및 아동의 특성과 조건에 따른 구분, 조합이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의 형태 또한 가족유형으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이나 제도 안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의 가족은 그 유형을 특정한 모습의 가족으로 구분지어 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정책 설계에 있어 가족에 대한 큰 그룹핑(grouping)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특정 지원이 반드시 한 유형의 가족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을 정의하려 하거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유형 간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가족 구분이 아닌 가족 상황의 기준에 따른 지원이 낙인효과도 제거하며 통합 정책의 기조와도 방향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더욱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이라면 유연하게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관점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다 가족의 모습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가족 정책이 가족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식은 가족의 외형적 형태를 준거로 하기보다는 아동과 주 양육자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주 양육자의 조건은 주 양육자가 결혼을 했는가 하는 가족유형 중심의 전통적 판별규범보다는 주로 가족 내 실질적인 양육 여부, 소득, 그리고 아동 수를 준거로 고려하고 있다. 개인이 친생자를 위해서 부모 시간을 쓰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동거파트너의 자녀, 전일제 위탁아동,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손자녀,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증증질환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손자녀나 증손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등에도 양육자로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책이 가족의 유형이나 형태보다는 아동의 양육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 다양한 유형의 아동 양육 가족을 포함한 통계 생산

현재의 아동 양육 가족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함보다는 가족의 다양성이 한 데이터 안에서 동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대상으로 다른 시기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지만 각각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가 따른다.

모수 추정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지만, 적어도 1인 양육자 가족은 가능하다. 한 데이터 안에서 1인 양육자 가족의 비율만이라도 현실에서와 유사하게 10% 내외로 표집되어 1인 양육자 가족과 2인 양육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게 될 한국 사회의 조사들이 현재는 대부분 2인 양육자 가족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가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조사의 데이터에서는 다양한 현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계 생산에 있어서는 표본 설계 시 이러한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교육통계연보.

김성천. (2001).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복지, 10, 89-118.

김승권, 양옥경,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희, 김선미. (2013). 맞벌이 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Environ.Res., 51(3), 355-370.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최효미, 배윤진, 양미선, 김정민. (2015).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 서울: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배주현, 성경. (2018).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욱. (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3, 239-260.

김희자. (2008).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경제와사회, 6, 194-2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문소정. (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2), 73-107.

문은영. (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박옥임, 서선희, 김경신, 옥경희, 박준섭, 최은정. (2013). 가족복지학. 서울: 공동체.

배은경, 박기남, 류임량, 박혜림, 엄혜진, 최은영, ... 김한나. (2009).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20~30대 여성 심층 조사. 서울: 여성부.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 홑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백은주, 한선아, 강민정. (201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09-232.
변수정,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c). 2019년 보육통계.
서선희. (2017). 적응인가, 위기인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7-33.
석병훈, 유혜미. (2019). 맞벌이 가구의 시간배분에 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15(4), 1-23.
성미애, 진미정. (2009).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 가족과 문화, 21(3), 1-28.
송다영. (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8), 231-254.
안선영, Cuervo, H., Wyn, J., 김지희.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엄규숙, 황석만. (2019). 맞벌이 가구 가사 분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상과인식, 43(2), 75-102.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0. 9. 2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43 에서 2020.12.11.인출.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209호. 2020. 4. 7. 일부개정
유혜미, 배윤진, 김문정. (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미정. (20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의지와 현황. 이화젠더법학, 2(2), 79-107.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미, 김선미, 구혜령. (2014).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85-106.

이승미, 이현아. (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이승윤, 박고은, 김윤영. (2014). 가족정책의 세 가지 지원유형과 그 조합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41(1), 213-240.

이여봉. (2017). 가족안의 사회, 사회안의 가족 (제3판). 경기: 양서원.

이옥경. (2015). 맞벌이와 외벌이의 어린이집 이용실태와 필요사항. 부산여성가족 Brief, 23, 1-8.

이윤주. (2020. 3. 4.). “아이 2주 돌봐줄 곳 찾습니다” 개학 연기로 입양 가정 구하는 싱글맘.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41461026698?did=NA&dtype=&dtypecode=&prnewsid=에서 2020. 10. 12. 인출.

이재경. (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1), 229-244.

이재경. (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 283-310.

이정원, 도남희. (2014).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4(1), 268-298.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서울: 집문당.

장명선, 이영호. (2016).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2), 141-163.

정영금. (2015).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73-92.

정혜숙. (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7(4), 251-277.

조성호. (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채로, 이기영. (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최선영. (2020). 한국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생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46(2), 203-230.

최효미. (2020).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실태 및 지원 방안. 이슈페이퍼, 2020-03, 1-17.

통계청. (2019. 8. 29.).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세선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711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2018+%EC%9D%B8%EA%B5%AC에서 2020. 5. 25 인출.

통계청. (2019. 12. 18.). 2019 일· 가정 양립 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9366에서 2020. 10. 15. 인출

통계청. (2020. 3. 19.). 2019 혼인 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read&aSeq=381203에서 2020. 5. 25. 인출.

통계청. (2020a).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부단위기관〉보건복지부〉기준 중위소득 추이)에서 2020. 7. 22. 인출.

통계청. (2020b).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홈페이지.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부단위기관〉여성가족부〉한부모 가구 비율)에서 2020. 5. 25. 인출

통계청. (2020c).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총괄(공식 실업률, 구직기간 4주기준, 1999.6~현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서 2020. 12. 10. 인출.

통계청. (2020d).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교육기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conn_path=I2) (주제별통계〉교육·훈련〉교육기본통계〉유치원 개황)에서 2020. 8. 7. 인출.

통계청. (2020e).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3) (인구〉인구총조사〉가구부문〉총조사가구(2015년 이후)〉전수부분(등록세선스, 2015년 이후)〉전수기본표〉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에서 2020. 5. 25. 인출.

통계청. (2020f).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3) (주제별통계〉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에서 2020. 8. 7. 인출.

통계청. (2020g).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9S&conn_path=I3) (노동〉지역별고용조사〉맞벌이가구(2011~)〉지역별고용조사: 시도별 맞벌이가구)에서 2020. 6. 1. 인출.

한경님. (2010).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부담비용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99-3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성인지통계 홈페이지.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성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EA0410R&conn_path=I3) (주제별>경제활동>인력현황>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성별))에서 2020. 6. 1. 인출.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Barrett, M. & McIntosh. M. (2019). 반사회적 가족. (김혜경·배은경 역). 서울: 나름북스. (원저 1993년 출판).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19). *Agenda 2030 - Nachhaltige Familienpolitik.* Zusammenfassung.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0). *Starke-Familien-Checkheft. Familienleistungen auf einen Blick.* Druckerei J. Humburg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20a).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Da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ONIFATIUS GmbH Druck - Buch - Verla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20b). Frühe Bildung gemeinsam weiterentwickeln: Das GUTE KITA GESETZ. MKL Druck GmbH & Co. K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 (2020c). Leitfaden zum Mutterschutz. BONIFATIUS GmbH Druck - Buch - Verlag.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York; Basic Books.

Gerson, K. (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oldscheider, F., Bernhardt, E., &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207-239.

Kamerman, S. B., & Kahn, A. J. (1997). *Family change and family policies in Great Britain,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Leah, A. (2020. 2. 6.) Finland will gice each parent 7 months of leave after a child's birth. *CNN,*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20/02/05/world/finland-parental-leave-policy-trnd/index.html. 2020. 8. 12.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4),* 607-627.

Morgan, D. (2012). 가족의 탐구: 가족실행의 새로운 접근. (안호용 역). 서울: 이학사. (원저 1996년 출판)

Ronfani, P. (2003). Family law in Europe. In D. I. Kertzer & M. Barbagli (Eds). *Family life in the twentieth century* (pp. 113-151). Yale Univ. Press.

Scanzoni, J. (2001). From the Normal Family to Alternate Families to the Quest for Diversity With Interdepend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2(6),* 688-710.

Thorne, B. & Yalom, M. (eds.) (2003)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

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저 1991년 출판).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여성〉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에서 2020. 8. 30. 인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임신출산육아기 지원〉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육아휴직 및 급여)에서 2020. 6. 10.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2587) (뉴스〉정책뉴스)에서 2020. 6. 10.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a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999&welInfSno=146&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상·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 등 급여))에서 2020. 8. 30.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b.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5) (복지서비스〉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2020.11.10. 인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a.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1.do)
(유아학비 지원안내〉유아학비란?)에서 2020. 11. 25. 인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 홈페이지b.
(https://www.childschool.go.kr/si/ifo/supportInfo002.do)
(유아학비 지원안내〉지원금 안내)에서 2020.11.25. 인출.
Kela Homepage. Retrieved from
https://www.kela.fi/web/en/parental-allowance
(Our services〉Families〉 Parental allowances〉Parental allowance)
2020.10.20.

〈데이터〉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0. 3. 26. 인출.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MDI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2020. 3. 26.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보건복지데이터포털 https://data.kihasa.re.kr/에서 2020. 4. 2.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조사. 원자료[데이터파일]. 데이터 미공개.

[부록] 양육자 특성별 독일 가족 정책의 종류와 내용

구분		1인 양육자 가족	2인 양육자 가족
현금 또는 경제적 지원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과 추가 모성수당(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 이른바 고용주수당 (Arbeitgeberzuschuss))[15]	산전 6주부터 산후 8주까지의 모성보호기간 동안 모성수당을 통해 임금 전액 보전. 모성보호기간 동안 수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모성수당(고용주수당) 지급	
	부모수당 (Elterngeld)[16]	부모수당은 3가지 유형(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Plus), 파트너십보너스(Partnerschaftsbonus)로 구분됨.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직접 돌보고 주당 3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할 경우 12개월간 출산 전 순소득(Nettoeinkommen)의 65~67% 수준으로 매월 최소 300유로에서 최대 1,800유로가 지급됨. 부모수당플러스는 기본부모수당의 2배의 기간 동안 시간제 근로에 대한 소득을 고려하여 기본부모수당 수준으로 지급됨.	아버지가 부모 시간을 이용할 경우 기본부모수당은 14개월까지 지급되고, 부모수당플러스는 28개월까지 지급. 부모 둘 다 4개월 연속으로 주당 25~30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 부모당 4개월의 부모수당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파트너십보너스).

구분		1인 양육자 가족	2인 양육자 가족
		한부모는 부모수당 중 어느 유형이든 선택 가능.	
	아동수당(Kindergeld)[17]	모든 18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204~235유로의 아동수당이 지급됨. 교육이나 훈련 등 예외적 경우에는 25세 생일까지 지급됨**	
	추가 아동수당 (Der Zuschlag zum Kindergeld)[18]	월소득 600유로 이하의 한부모와 동거 중인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사회부조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85유로의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됨.	월소득 900유로 이하의 부모와 동거 중인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사회부조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85유로의 추가 아동수당이 지급됨.
	생계비 선급 (Unterhaltsvorschuss)[19]	한부모는 다른 한편의 부모가 생계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불충분한 정도로만 지불할 경우, 자녀가 만 17세 될 때까지 자녀연령에 따라 165~293유로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세금 추가 공제[20]	한부모에게는 첫 자녀 1,908유로, 두 번째 자녀부터는 240유로씩 세금공제 혜택이 추가됨.	
	주거수당 (Wohngeld)[21]	저소득 가족은 주택임대료에 대한 보조금 또는 자가주택 구입의 용도로 주거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주택아동수당 (Baukindergeld)[22]	저소득 가족은 한 자녀당 매년 1,200유로씩 10년 동안 총 12,000유로를 주택아동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패키지 보조금 (Leistungen für Bildung und Teilhabe)[23]	저소득 가족의 아동에게 연간 150유로의 수업용품 구입비용, 매월 15유로의 과외수업 및 예체능활동비, 무료점심 혜택이 지원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1인 양육자 가족</th><th>2인 양육자 가족</th></tr>
<tr><td rowspan="3">시간</td><td>출산전후휴가
(Schutzfristen vor und nach der Entbindung)[24]</td><td colspan="2">산전 6주부터 산후 8주까지의 모성보호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후엔 고용 금지.</td></tr>
<tr><td>수유휴식시간
(Stillpause)[25]</td><td colspan="2">산후 12개월 동안 근무 중 최소 1일 30분씩 2회 또는 1일 1시간의 수유시간이 보장됨.</td></tr>
<tr><td>부모 시간
(Elternzeit)[26]</td><td>부모 시간은 친생자, 배우자 또는 동거파트너의 자녀, 전일제 위탁아동,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사용 가능. 그 외에도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증증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손자녀나 증손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등에도 사용 가능.
부모 시간은 자녀가 3세될 때까지 3년간 사용 가능함. 부모 시간의 사용 가능시간 중 일부는 아동의 연령이 3-8세 시기로 이월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함. 사용 기간 동안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는 불가. 부모 시간 이용 시에는 부모수당 지급.</td><td>부모가 동시에 부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 부모가 부모 시간을 동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부모수당플러스나 파트너십보너스 지급.</td></tr>
<tr><td colspan="2">보육서비스[27]</td><td colspan="2">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세 생일부터 모든 어린이는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보육료는 16개의 연방주가 직접 결정하는데, 저소득 가족은 무료이용</td></tr>
</table>

주: 1유로(Euro)= 1,408.90원(2020년 8월 18일 기준)
* 모성보호 관련 제도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므로 1인 양육자 가족으로 작성
** 1인 양육자 가족도 동일. 이런 경우 기준은 2인 양육자 가족으로 작성.

1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50).
1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29-3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2020a: 10-78).
1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13-18).
1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19-24).
1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37-40).
2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41-42).
2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50).
22)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52).
23)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25-28).
2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50).
2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2020c: 52).
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29-3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2020a: 79-89).
2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43-47),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Hg.)(2020b)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 구독안내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